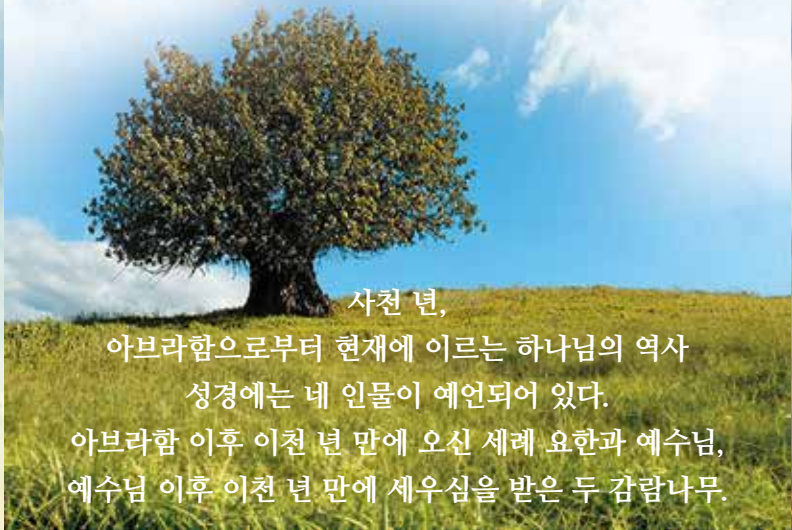


이영수 설교전집

# 에덴의 메아리 3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 에덴의 메아리

---

발행일 | 2012년 1월 4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에덴벚꽃길 189

홈페이지 | [ieden.kr](http://ieden.kr)

이메일 | [info@ieden.kr](mailto:info@ieden.kr)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272-7

ISBN 978-89-6449-223-9 (세트)

---

에덴의  
메아리 3



저자 (1976년 당시)



**알곡성전 제1별관.** 부서 사무실 및 예배실이 있다. 전면의 모습은 알곡성전과 같이 향연을 상징하는 종각과 십자가 주위에 나팔을 든 일곱 천사, 감람 잎을 물고 있는 비둘기 두 마리가 그려져 있다.



**알곡성전 제2별관.** 성회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 Prologue

## “책머리에”

여기 또 한 권의 ‘에덴의 메아리’가 나간다. 주의 종의 세 번째 설교집이다. 더욱 고마운 일은, 이렇게 발간 횟수를 거듭할수록 말씀도 깊어진다는 것이다. ‘에덴의 메아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어떤 말씀이 터져 나올지 알 수 없으나, 이미 간행된 세 권의 설교집과 ‘계시록 강해’에 실린 것만 하여도 놀랍기만 하다. 주의 종은 이 세대에 가장 요긴한 성령의 메시지(새 소식)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 그 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지—그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설 뿐이다.

오늘날 인류는 먹고사는 일에서부터 이데올로기(사상)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골치 아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아니, 지구는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그 멀고 가까운 원인은 무

엇일까?

옛 희랍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尺度)”라고 해서, 인간이 세계의 주인공(主人公)임을 언명했는데,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부터가 아닌가 한다. 그 후 저르네상스를 기점(起點)으로 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보다도 자기 힘으로 모든 일—진리의 문제까지도—을 다루어 나가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자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나치게 ‘나’를 내세우면서 비롯된 폐단이 쌓이고 쌓여, 오늘날 인류 역사는 이미 위험수위(危險水位)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성경에는 마귀가 알아차릴세라,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처럼 그 가르침의 일부만 우리에게 나타내 보였을 뿐, 오리무중(五里霧中)한 가운데 정체를 가려놓은 데가 많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저 믿으면 되려니 하고 따라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덮어 둔 성경의 여러 가지 의문들이 풀려가고 있다. 그것이 ‘에덴의 메아리’에 담겨 있는 것이다.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길’이라고 하셨다. 다시 말하면 절망에서 희망, 눈물에서 웃음, 죽음에서 삶(생명)에의 길잡이가 곧 주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된다. 주께서 영의 것을 말씀하시면, 이들은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마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지 못하셨다. 이것을 보충한 종이 바울이었다.

그런데 바울도 듣는 자들의 심령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하였다. 이것을 보충하는 종이 오늘의 이긴자이다. 두 분 다 성령을 넘치도록 받고 주의 지시에 따라 주의 것을 전했으며, 또 전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 당시와 오늘은 무려 2천 년을 격해 있지만, 포교(布教)의 양상(樣相)은 비슷한 데가 많다. 영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하여 한결같은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를 신약시대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도, 거기 원칙적으로 일관된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눈에 뜨이지 않는 세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다. 정신의 힘과 성령 및 악령의 힘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생활은 한결 복잡하다. 우리는 이 3자를 분별하는 총명을 갖고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여 탈이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리(事理)를 올바르게 가리지 못해 종종 착각을 일으키는 이유가 주로 이런 데 있다고 본다.

이 땅에서 이긴자를 통하여 감추었던 말씀이 터져 나간 지도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 먼저 부름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은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자라고 말씀에 서서, 내일의 고지(高地)를 향해 발돋움을 하고 있다. 누가 뭐라 하고, 어떤 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이 역사는 반드시 흥해야 하며, 또 기어코 결실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와의 뜻이자, 시대의 요청이기도 한 것이다.

설교의 제목은,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때 그때 기록하고 정리하여, 마치 길목마다 꽃말을 박듯이 적당히 붙



인 것이다. (이미 나온 설교집에서도 그랬다.) 그러므로 제목에 구애  
되지 말고 읽어 주시기 바란다.

1976년 5월 최 현

# Prologue

## “재판에 즈음하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크고 작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감람나무 역사에 가지로 부르심을 받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성경 66권 중에는 사단의 눈을 피해 짐짓 가려놓은 부분이 적지 않으나,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나중 감람나무의 입을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진리의 말씀은 설교집 ‘에덴의 메아리’로 계속 발간되고 있으나, 주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좀처럼 깨닫지 못하여 이제야 재판이 나오게

되었다. 몇 군데 잔손질을 한 것은 이미 간행된 설교집 전체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이다. 이 설교집의 재판을 위해 수고하신 윤상학 박사님께 감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최 현

# Prologue

##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 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시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레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눅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눅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눅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라고 하셨다.(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최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려듣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책머리에 ... 06

재판을 즈음하여 ... 10

*Prologue*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12

## *Part 01.*

### 심원한 경륜

01 율법에 대하여 22

02 제사에 대하여 63

## *Part 02.*

### 십자가는 살아 있다

03 그 품에 안기리 90

04 성령은 이렇게 역사한다 123

## Part 03.

### 역사의 증인들

- 05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52
- 06 어린 양 이삭 176
- 07 승리자 야곱 183
- 08 총리 요셉 192
- 09 장사(壯士) 삼손 212
- 10 승천한 엘리야 219
- 11 영화(榮華)의 심벌 솔로몬 230

## Part 04.

### 진리의 샘

- 12 구원에 대하여 238
- 13 지(知)와 덕(德) 245
- 14 이것이 기독교이다 250
- 15 음녀(淫女)에 대하여 256
- 16 자고(自高)하지 말라 261
- 17 교회의 일꾼 266
- 18 천년왕국에 대하여 272
- 19 우리에게는 전진이 있을 뿐이다 279
- 20 이긴자와 '이한 낫' 284
- 21 인간의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지 말라 288
- 22 은혜에 대하여 299
- 23 이긴자와 영적 이스라엘 306

*Part 01.*

# 심원한 경륜



01 율법에 대하여 · 02 제사에 대하여

## Chapter 01.

# 율법에 대하여



### 1) 제 2 르네상스

기독교는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인간에게 죽지 않는 길을 제시해 주는 종교입니다. 나는 구태여 남의 종교에 대하여 말하고 싶지 않고, 또 그럴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 자체가 크게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단상에서 새삼스럽게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자주 입에 올리는 것도 까닭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실상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충 윤곽만 드러났을 뿐, 정작 그 핵심은 많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가려진 데가 많은데, 이것은 마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 진리의 면사포는 벗겨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 단상을 통하여 그 거창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세기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 인간 중심으로 살려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문예부흥)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중심의 생활도 그 후 허다한 폐단이 일어났으며, 수백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커다란 벽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즉 핵무기니, 공해니, 인구 폭발이니 해서, 자칫하면 지구 자체가 송두리째 썩발이 될 위기가 닥쳐 온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큰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처방이 나와 있으나, 어느 하나도 만족스러운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치의 무정부상태’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목표도 소망도 없이 그때그때의 쾌락을 추구하기에 급급할 뿐,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히피’니 ‘비트’니 하는 건달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확한 진단부터 내려야 합니다. 어디가 잘 못되었을까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네상스 당시에 식자들이 희랍 세계로 돌아갔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제 2 르네상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암흑시대로 표현되는 중세기로 후퇴하자는 것은 물

론 아닙니다. 중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으나, 이것은 인간의 잘못이지 결코 하나님의 탓은 아니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허용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용해 준 이상,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된 인생관을 고쳐야 합니다. 요컨대 인간 본위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1 르네상스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갔으나, 제 2 르네상스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전자는 후자에게 흡수되어야 합니다. 즉 인간본위의 모든 사고방식과 언동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기의 신본주의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며, 또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휴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 1 르네상스 이후의 그것과는 판이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은총 아래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재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 2 르네상스의 첫째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억압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일  
억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죽음입니다. 그  
러므로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해방이 아니고 무엇  
이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굴복하게 마  
련입니다.

하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주일  
날 마음대로 놀러가지도 못하고, 연보도 내야하고, 그밖에 그래  
서는 안 된다, 이래야 한다, 하고 간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 작은 자유를 억제하려는 것이지, 결  
코 억압이 아닙니다. 이 밖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주요한 원  
인의 하나가 ‘울법’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에 있습니  
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때로는 ‘엉터리’라고 속단하게 될 정도로 유치하게 보입니다. 즉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며,  
우상숭배와 같은 대수롭지 않은 일에 격분하며, 원수는 철저히  
갚아야 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큰 책벌을 내리기가 일쑤입니  
다. 이걸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휴머니즘(인본주의)의 견지에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동시에 두렵기 짝  
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만 여기다가는 나  
중에 실망하게 됩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래!’ 하고 말이죠. 하나

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도적 같은 아버지도 자식이 미워서 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미움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을 이런 각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편애에 대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특히 구약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골라서 은혜를 베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경륜을 이루시는 데 필요한 영적인 군대를 기르기 위해 어느 일정한 지역의 백성에게 집중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훼방을 지혜롭게 물리치고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출33:19)는 말씀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2)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린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오랫동안 미개한 가운데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던 애초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에게 처음으로 역사하신 것은 신석기시대를 지나 인지가 어느 정도 발달한 아브라함 때이며, 그 후 이삭을 거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상대로 은총을 베푸는 것은 그 당시의 일이요, 결코 언제까지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법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열두 아들을 택하여 역사의 대상으로 삼고 이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처음으로 반포하신 것은 모세 때였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영도자로 내세워 애굽의 압제에 시달리는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할 때,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제정한 법도의 요체가 이른바 10계명입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 풍속에 젖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예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큰 이적과 기사를 저들에게 보여 주셨으나,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우습게 여기기가 일쑤였으며,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불평불만을 퍼붓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을

하는 등, 주책도 이만저만 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법도는, 세상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반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의 움직임에 따라 일단 반포된 하나님의 법도를 변경하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할례를 폐지했는데, 이것은 주께서 피를 흘리신 뒤에 땅의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을 보면 광야에서 오랫동안 헤매는 이스라엘 민족의 참상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 1조가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제 2조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서 제일 강조한 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10계명에 이어 모세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를 소상히 일러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만일 타인으로부터 해를 입으면 철저히 복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출21:24)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해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만큼 상대방에게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율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혹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실망하기도 하고, 숫제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자기중심의 속단이 낳는 폐단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인간의 육을 사이에 두고 싸우기 때문에 이런 육적인 율례가 반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도 엄

격한 법도로 다스리지 않고서는 미개하고 완악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법도가 이처럼 엄격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미개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명을 하나님의 헌법이라고 한다면, 율례는 민법이나 형사 소송법과 같은 기타 법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준수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셨습니다.(출16:4, 신8:2) 그리하여 잘 지키면 축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크게 드러내야 할 모세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운 연고로(민20:10)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여호와와의 통고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를 세워 줄 것을 여호와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내정해 두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 주어, 성업의 인계가 순조로워졌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되고 보니, “여호와 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는 필경 다 소멸되어”(민32:13)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유를, “나에게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민32:11)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전혀 순종치 않은 것도 아니어서, 때로는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즉 홍해를 발로 걸어서 건너가거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거나 할 때에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순종하였으나 그것은 그때뿐이고, 조금만 고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면 피차에 이만저만한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않는” (신1:45)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 3)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는 뜻밖에도 여호와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 큰 사명을 맡게 되자 어리둥절하여 걱정이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그는 도무지 자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영음이 들려 왔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수1:9)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히 대담하게 나서서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것은 고금을 통하여 변치 않는 하나의 통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장 견고한 요새로, 벽돌로 이중벽을 쌓아 올렸으며, 바깥 벽의 폭은 2미터, 안쪽 벽의 폭은 4미터나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선 정탐꾼을 보내어 성내를 상세히 살펴보게 했습니다. 이때 크게 활약한 것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는 비록 천한 몸이지만 천성이 영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불원에 이 성을 차지할 것은 알고, 이 정탐꾼을 감취 주었으며, 그 공로로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게 되었습니다.(수6:25)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기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으나, 여기에 말썽이 생겼습니다. 유다지파에 속하는 아간이 범죄한 것이 화근이 되어 전 이스라엘군이 아이 족에게 크게 패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는 이어서 가나안 땅에 살던 다른 부족들을 차례로 정복하기 위해 3천 명의 군대를 보내 우선 아이 족부터 쳐들어갔으나, 뜻밖에도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쫓겨났습니다.

견고하기로 이름난 여리고성도 여호와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리게 하여, 다른 성읍의 주민들이 이 소문을 전해 듣고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는 판이라 일사천리로 밀고 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수아는 영문을 몰라, 궁금하다 못해 몹시 당황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서글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 어찌하여 우리를 아모리(가나안 원주민)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합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저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오리까!”(수7:7-8)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어긴 것이다. 내게 바칠 제물을 훔친 자가 있으니, 찾아내어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수7:11-12)

여호수아가 여호와와 명령으로 제비를 뽑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간이라는 자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죄를 추궁하자 그는, “제가 여호와께 여차여차 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 중에서 금, 은 덩어리를 조금 가로챘던 것입니다.(수7:20)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간을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게 하고,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언약하신 대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네 손에 주었노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 방침입니다.

아간은 별로 중요한 직분을 맡은 간부급에 속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큰 지장



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은 여러분에게 내가 언동을 조심하라고 누누이 당부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 어찌랴!”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합심해서 움직여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주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하나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노하셔서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된 책벌을 내렸다가, 범죄자를 돌로 쳐 죽이자 화가 풀려 언약대로 다시 은총을 내렸다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이나 공감할법한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스려 나가실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110세에 죽은 후로, 여호와께서는 사사를 내세워 명색이나마 부분적으로 역사해 오다가, 330년이 지나 다윗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100년 후에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어 큰 은총을 베푸셨으며, 엘리야가 사명을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에 오른 후 약 200년이 지나 이사야가 나타나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업은 하늘과 땅이 합작하여 이루어 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불러도 땅에서 호응하지 않으면 자연히 공백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공백기는 몇십 년, 몇백 년, 때로는 천여 년이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백

기에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여호와와는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사55:6 참조) 그러므로 땅에서는 하늘에 흠족한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하늘에서는 땅에 충분한 은총을 베풀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나더러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반박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여 땅의 일을 마음대로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대하여 마귀로부터 적지 않은 저항을 받고 있으므로 하늘나라를 이룩하기 전에는 전능하시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람을 땅에 세워 그 세대에게 맞도록 율법을 변경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나아가, 여호와께서 솟제 하늘 문을 닫아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전혀 상달되지 않으며, 천사들은 편안히 낮잠만 자도 됩니다. 일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에서 세레 요한에 이르는 약 4백여 년 동안의 완전한 공백기가 그것입니다.

모세가 그렇듯이, 이사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자고로 하나님의 큰 종은 모두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와 같이 큰

종을 만나 그 입으로 전하는 말을 듣는 백성들과, 그렇지 못하고 작은 종을 만나 이들이 전한 가르침을 듣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복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이 주로 모세의 율법을 풀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신약시대에는 목사나 신학자들이 바울의 신학을 풀이해 가르쳐 왔습니다. 그때 그랬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요긴했던 가르침이고, 바울의 신학은 초대교회 당시에 적합했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나중 세대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당신의 가르침 일부를 시정케 하고, 오늘날 주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당신이 생전에 하지 못한 말이나 암시 정도에 그친 말을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라고 이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사야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만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도 그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쓰여 있는 내용과 다르므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야는 도깨비라는 소리를 들어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묵묵히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은 흔히 이런 데서 옵니다. 바울이 할례를 폐지할 때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받으라고 전한다면 어찌 핍박을 받았느냐.”(갈5:11) 이것은 당시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써 보낸 편지의 한 토막으로,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천사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이다. …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1:8-12)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 700년 후에 성사될 주님의 일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사7:14) 갈릴리를 무대로 설교를 시작하며(사9:1) 용모도 보잘것없고 풍채도 없으며,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고(사53:3) 처형을 받아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리라는 것과(사53:9) 그의 피 권세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사66:22) 이 모든 예언 중에서 앞으로 될 하늘나라의 창조를 제외하고는 주님 당대에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다른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하나만은 거짓말이라고 여기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 세상이 결코 대대손손 무한정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적어도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4) 자유의 율법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는 흔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인을 상대하여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만을 살피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한편, 범죄 하면 책망과 때로는 채찍도 내리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모든 족속들은 거들떠보지 않았 습니다. 우상을 숭배해도 그만, 선한 일을 해도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그들에게 선한 일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자기 나름대로 창조주를 찾아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생각해낸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공경하는 것이 못 되므로 역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동반경, 즉 활동 범위는 결코 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대상은 사실상 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즉 만인에게 은총의 문은 열려 있으나, 실제로 그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와 신령한 꿀을 먹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에는 영적인 이방인이 수도룩합니다.

그럼 어찌하여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좁게 움직이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며, 여기 필요한 당신의 일정한 군대를 확보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범위를 좁혀서 집중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군대, 곧 주의 아내에 대해서는 주께서 땅에 계실 때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이상 중에 상세한 청사진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설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군대는 무슨 군대냐고 반문하지는 않을 줄 압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적으로 누누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시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집안에 태어나도 할례라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며, 이방인이라도 유대인과 한 식구가 되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머슴이건 서생이건 간에 유대인과 같은 지붕 밑에서 한술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할례란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같은 것으로, 여기에는 이런 권리와 함께 하나님의 법도(율법)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른 법도가 있을 수 없

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방인처럼 손수 지켜야 할 법률을 만들 필요도 없지만, 또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그때그때 땅의 여건에 따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마귀의 침입으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대마다 선지자를 세워 그를 통하여 명령과 지시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본다면 이 땅에 세운 선지자는 국무총리 격이라고나 할까요? 왕이 총리를 앞세워 나라를 다스리듯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는 백성들로 하여금 싸울 것을 명령하시고(삿4:40이하) 예레미야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렘38:17)

그러나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며,(행13:39)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므로,(히7:19)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새로운 법도를 실시하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땅에 오셔서 예언된 대로 하늘의 새로운 법도를 전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행색이 초라한데다가, 세례 요한이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천여 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켜오는 가운데 그것이 몸에 배어

주님의 말씀이 먹혀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우선 할례부터 폐지해야 할 터인데, 이것은 요지부동의 오랜 습성이라 건드리지도 못하고, 겨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주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당신이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을 대언케 하겠다고 약속한 이유의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하시리니.” (요16:12-13)

주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의 광경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칼날 같은 말씀으로 상대방을 치시는가 하면, 때로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조용히 타이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만 하더라도, 씨를 뿌리는 비유, 고기를 낚는 비유, 돈을 꾸고 갚는 비유 등 여러 가지입니다. 주께서는 설교하실 때 미리 제자들을 시켜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흔히 바위 같은데 올라서서 육성으로 말씀하였으므로 2, 30미터 이상은 잘 들리지 않아 자주 장소를 옮겼습니다.

청중들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어떻게 생기고, 또 무슨 말을 하나 알아보려는 호기심에서, 대체로 농부는 일이 한 가할 때, 어부는 고기잡이를 나가지 않을 때, 장사꾼은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때 떼를 지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청중에 따라 적절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였습니다. 게다가 오늘날과



같이 마이크가 없어 많은 청중에게 한꺼번에 말씀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늘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입에서는 자연히 이 말 저 말이 나가게 되었지만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잘 들어왔던 것입니다.

만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유식층이 많이 모여 율법에 관한 질문을 해서 주님을 책잡으려고 하면 그때에는 저들보다 몇 곱절 오묘하고 깊은 말씀으로 꺾어 버리곤 하셨습니다. 예컨대 저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합당치 못한 일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께서 서슴지 않고 저들을 향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눅20:25) 하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저들은 주님을 올라미에 걸려고 하다가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목수가 어찌면 이렇게 능수능란할까 해서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형식에만 치중하는 저들을 여지없이 들이쳤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마23:33) 이렇게 되니 저들이 주님을 좋아할 리가 만무합니다. 저들은 모세 율법을 내세워 사사건건 주님을 물고 늘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저들보다 선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가르침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려는 것이다.”(마5:17)

주께서 이렇게 율법의 귀중성을 내세우는 데야 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눅16:16)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 하기 때문입니다.(히7:19)

그러나 이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자유의 율법을 반포한다는 것은 여간 난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배운 것이 골수에 배어 있으므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7:12) 이것은 물론 누구나 명심해야 할 훌륭한 가르침이지만, 주님은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치니까 나도 너희를 친다.’는 뜻을 암암리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자층은 이런 말귀를 금방 알아듣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워낙 배우지 못하여 센스(지적 감각)가 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인들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매사에 서툴고 눈치가 없고 거칠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도깨비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와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고 외면해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 당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바뀔 때마다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바울 때에도 그랬으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 5) 바울의 사명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베드로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주님의 측근자로서 주님을 가까이 모셨으나 바울은 주님의 적대자로 생전에는 주님을 만나 본 적도 없으며, 베드로는 수석 사도이지만 바울은 자칭 사도이고, 베드로는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바울은 독신으로 일생을 보냈으며, 베드로는 비교적 유리한 환경 가운데 하늘의 도를 전하였으나 바울은 가난과 핍박 속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지만 바울은 유식한 학자이며, 베드로는 하루에 3천 명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으나 바울은 욕을 먹으면서 기껏해야 하루에 열두 명 정도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베드로는 할례를 주장했으나 바울은 할례를 폐지했습니다. 두 분 다 위대한 주의 종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분에게 공통된 점이 있다면 처참한 가운데 순교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만 남아 있다.”(딤후4:7-8) 과연 바울다운 말입니다. 그는 역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라, 능히 이렇게 자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아껴 발발 떠는 줄장부와는 달리, 죽음을 완전히 이긴 대장부였습니다. 또한 가난에 매이지 않는 점에서도 따를 자가 없었으니, 저간의 소식은, “누가 자기 양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병정 노릇을 하겠느냐?”(고전9:7)는 그

의 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특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며, 다른 종들은 거의 다 뒤끝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 신도들도 물질에 욕심을 부리면 믿음이 붙지 않는데, 하물며 단을 지키는 주의 종이야 더 말해 무얼 하겠습니까? 세상 재미를 다 보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씨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이 흐리거나 금이 가면 벌써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마련입니다.

바울과 가장 대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영화의 극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워낙 왕자의 귀한 몸으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십분 발휘했던 것입니다. 처첩을 합쳐서 1천명, 하긴 우리나라에도 3천 궁녀를 거느린 임금이 있었다고 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당신이 기름을 부은 자가 이처럼 부덕을 끼치는 것을 묵인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세상의 모럴(도덕)을 초월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합니다.(민12:8 참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자니 자연히 그렇게 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의 요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나니, 열왕 중에 너

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왕상3:13)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시사 하고 아뢰는 말을 듣고 기특하게 여겨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역대 임금 중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많은 처첩을 거느리는 것이 부덕이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은혜) 가운데 누리는 영화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모럴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계산에 넣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인간 본위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면 회의에 빠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만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본인만 손해를 볼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는 바울은 존경하지만, 솔로몬은 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솔로몬의 영화가 하나님의 법도에는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서적으로 해명해 드릴뿐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질적으로 아쉬운 것 없이 살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바울뿐만이 아니라 어느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그러한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도들과 고락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니 즐거움은 남에게 양보하고, 괴로움은 혼자서 당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주의 일을 하다가 맞는 곤장을 환영했습니다. 그

리하여 곤장 한 대라도 더 얻어맞는 것을 다행하게 여겼으니, 누가 이런 사람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물론, 마귀도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 법도를 펴기 위해 오신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목이 곧아, 겨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나 증거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와 문도들은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며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좃고 또 못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으므로, 이를 폐지할 만한 일꾼으로 택하여 세운 것이 곧 바울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주님도 어렸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눅2:21) 그러나 그것은 다만 그 부모가 당시의 관례를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폐지해야 할 할례며 모세의 율법을 그토록 오랫동안 실시하도록 하는 헛수고를 되풀이해 왔는가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하는 의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가리켜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신18:18)고 말씀했으며, 이밖에 다윗이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주님에 대해 누누이 언급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자체가 신약의 그림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첫 언약에서 비롯된 모세의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치리하는 데 필요했던 것이며, 둘째 언약, 곧 새 언약의 보증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자유의 율법이 반포되면 마땅히 폐지될 성질의 것이었습니다.(창17:13, 히7:22)

그런데 이것은 말이 쉽지, 실로 난사 중의 난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시행되어 오던 하늘의 법도를 뒤바꿔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하늘의 일대 혁명으로,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 ‘개혁’이지 ‘혁명’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낡은 법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는 일대 혁명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일으켰는가를 살펴봅시다. 전에도 이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오늘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법도를 세우기 위해 등장한 하나님의 큰 종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고, 주께서 천국 열쇠를 맡길 정도로 한동안 신임이 두터웠으며(마16:19)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모여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을 때에도 그 모임을 주재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20문도는 주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말씀을 한결같이 믿는 신도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모으신 500명 가운데 일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에 오셔서 3년 동안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여 인정을 받게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겨우 500명 정도였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주님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으셨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는가를 단적으로 표시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들은 그야말로 1등 공신(?)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루에 주님에게 인도한 3천 명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된 숫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죽을죄를 짓고 벌을 받아 사형을 당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생전에 하신 그분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만큼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천 명은 생각을 바꾼 숫자이지, 주를 믿는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선 당신의 누명부터 벗어야 했으며,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은 성령을 내린 것은 당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비롯한 120문도들의 열띤 전도로, 주님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당하였다는 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켰는데, 여기까지



는 과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면서 이들을 능히 감화 감동시켰으므로, 그 정도로 말이 먹혀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마다 ‘예수라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여 이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고 자유의 율법을 새로 세워 그대로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당한 하나님의 종이 바울이었습니다.

주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그치고, 새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눅16:16)라고 발설했을 뿐,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씀을 못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상세히 사람들에게 전해 줄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를 비롯한 문도들이 성령을 받아 주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성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대충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반포하기는커녕, 주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죄인으로 매장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가 큰 죄를 저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들의 경솔했던 행동을 크게 뉘우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어리둥절하여졌습니다. 여기에 제일 큰 몫을 한 주의 종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사명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바울의 그것은 주님의 새로운 법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신약시대의 토대를 닦은 하늘의 큰 일꾼이지만, 말은 바 사명은 각각 달랐던 것입니다. 이들이 한동안 서로 갈등을 일으킨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윽고 시간이 모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주었습니다.(갈2:9)

여기서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을 텐데,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베드로를 세웠다가 다시 바울을 택하여 하나님의 종들끼리 서로 아옹다옹하게 하느냐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일을 마음대로 척척할 수 있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그런 의문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주께서는 하필 당신의 적 바울을 종으로 삼았을까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바울이 예뻐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두고 대대손손 지켜온 하늘

의 법도를 폐지하는 큰 일을 해내려면 베드로 정도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당신의 종으로 삼을 때에는 그 장본인이 타고난 됴뻘이부터 세밀히 살핍니다. 마른 막대기도 세우면 된다고 하지만, 아무나 들어 쓰시지는 않습니다. 주께서는 처음에 사도나 문도들 가운데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 그 배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결국 바울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주의 큰 일꾼으로 바울만 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이상 중에 지시하지 않고, 직접 나타나 명령을 준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 아니 사울은 주를 믿는 자를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선 자로, 주님이 이상 중에 지시하는 정도로는 그를 깨우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직접 나타나 강하게 역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친 다음부터는 주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 여러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베드로가 내 피를 두고 옛날 제사를 그대로 드리고 있으니 이런 딱할 데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영광이 별로 올라가지 않는다. 제사가 온전치 못하니 그럴 수밖에 있느냐?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내려보낸 것이 헛수고가 된다. 네가 시정해라. 할례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지시가 오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베드로에게도 내렸지만, [\(행10:10-16 참조\)](#) 베드로는 이 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서 그에게 내리는 지시는 바울의 주장에 동조하라는 내용에 그치고, 바울의 경우처럼 자주 지시가 간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종은 이미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주장이 한동안 엇갈리게 되자 백성들은 어느 쪽이 옳은지 몰라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자가 백성을 사이에 두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니 말입니다. 그럼 주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싸움을 붙여놓고 ‘백군 이겨라. 홍군 이겨라.’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 경우에 주님은 바울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하루에 3천 명을 회개시킨 베드로보다, 겨우 열두 명밖에 회개시키지 못하는 바울의 일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바울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은혜의 줄기는 같아도, 한 쪽 백성들은 정으로 쏠리고, 다른 쪽 백성들은 원리에 끌리니, 그 은혜가 판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너나없이, ‘주를 가까이하는 길이 여기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 3,000 대 12, 뿌리는 종과 거두는 종은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은 후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것은 주의 지시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바울은 베드로의 움직임에 대하여 잘 알지만, 베드로는 바울의 움직임에 대하여 잘 모르게 되어 있

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만 새로운 지시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건 또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이미 한물갔으므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동행한 성령은 같지만, 사명이 각자 다르므로 지시 내용이 판이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여기서 무턱대고 베드로를 깎아내리고 바울을 추켜올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두 분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갈1:12) 베드로에게는 이런 지시가 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니 말인즉 하나님의 아들 운운하지만, 행동은 구태의연할 수밖에요.

할례란 요컨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필요 없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욕 안 먹게 생겼습니까? 게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가두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예수의 신도로 탈바꿈을 했으니, 잡아 죽이려고 할만도 합니다.(행23:12) “내가 할례를 전했던들 내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갈6:11) 바울이 이렇게 약해지면 주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 힘을 북돋아 주곤 하셨습니다.(행23:11) 실제로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실감이 나지 않을 테지만, 이것이 큰 중들이 가는 길입니다. “세상일을 하다가는 이 역사 못하겠구나!” 바울은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나가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가 처자식을

원치 않고 일생을 독신으로 보낸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로서는 실로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나서도 자기가 맡은 사명을 이룰까 말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어깨가 무거웠던 것입니다. 하물며 완성의 사명을 맡은 종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대하겠습니까? 이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 6) 교제의 악수

기독교가 전파되던 초기에, 주께서는 이상 중에 베드로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 비몽사몽 간에, 모세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하는 짐승을, 큰 보자기로 된 바구니 같은 것에 담아 하늘로부터 베드로 앞에 내려보내, 잡아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율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깨끗케 했으니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세 번이나 되풀이한 후에, 그 바구니 같은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깜박 제정신이 들었습니다.(행10:10-16)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베드로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왜 나한테 사람을 보냈을까?” 베드로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자기들을 베드로에게 보냈다는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자기의 이상과 고넬료가 지시받은

내용을 결부시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상의 지시대로 고넬료를 비롯하여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면서도, 한편으로 은근히 쾅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 이들 이방인에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금세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보시기에 베드로의 행동이 합당치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과 자리를 같이하면서도, 야고보를 따르는 할례 받은 교인들은 만나기가 거북하여 슬그머니 몸을 피하였습니다.(갈2:13)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앞에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지닌 성격적인 약점을 교인들 앞에 그대로 드러낸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얼마나 자기 위신을 살리기에 급급하였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자기 자신을 우상화나 신격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당신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할 수 있겠소!”(갈2:14) 이것은 옛날 같으면 바울이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즉 수세에 몰리던 바울이 공세로 나온 것입니다. 요컨대 그만큼 바울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1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갈

2:9) 이것은 비단 초대 교회 당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마디 첨부하고 싶은 것은, 주의 종은 자기보다 교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자기 위신이 손상될까봐 두려워한다면 벌써 주께서 같이하시지 않는다는 적신호입니다. 내가 더 꼬집어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만한 분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 7) 율법과 은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롬3:20) 이 말씀은 모세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주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 어느 정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어느 정도’라는 말에는 깊은 사연이 깃들여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상의 경중에 따라 송아지나 양 또는 비둘기를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들 제물의 피가 정결한 만큼 지은 죄가 씻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의하면, 죄는 피가 아니면 씻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히9:22)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제물은 물론, 제사장도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죄가 다 사해지지 못하고 일부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꿀 먹은 벙어리 모양 잠자코 있을 수는 없는 일이므로, 온전치 못하나마 최선의 도리를 다하여 죄를 씻은 것이 곧 짐승의 피로 드린 구약시대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라도 올리라고 지시한 것은 주의 피가 없기 때문에 취한 잠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드리는 제사가 온전치 못하니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고,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으니 엄밀한 의미에서 의인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모두가 이런 온전치 못한 의미의 의인을 가리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3:10)는 말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만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로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다면 구태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주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놓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이 문을 지나야만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계5:9) 그들에게 인격이나 하나님에의 충성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참된 의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5:19) 구약시대에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 노릇’해 왔으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주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 노릇’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즉 첫째 아담의 죄를 둘째 아담이 온전히 씻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선지자들까지도 꿈꾸던 복이었습시다.

그리하여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율법에서 풀려나와 은혜의 사슬에 묶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갈3:24) 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오늘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주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은혜(성령)가 같이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이 그를 주관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까지는 율법이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며, 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선생을 만나면 몽학선생은 자연히 필요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으면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의 율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몽학선생한테 가지 않으면 온전한 선생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그보다도 훨

싼 차원이 높은 자유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선물로, 위에서 주셔야 합니다.(엡2:8)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이런 성령의 큰 은총은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대를 가리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후6:2)라고 말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빌1:7)고 하였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바울의 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그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 몸소 체험한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불과 같은 성령을 보내신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천 년 가까운 동안에 꾸준히 역사하여,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교회가 들어서고 수역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같은 성령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불과 같은 성령은 주로 하늘의 도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긴자를 통하여 내리는 불과 이슬과 생수의 세 가지 성령의 은사는 그 역할이 이전과 다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세 가지 은혜는 요컨대 아직도 모자라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주의 아내감’을 다듬어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계20:4 참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땅위에서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에덴성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전도에 힘쓰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을 깨끗이 씻어 주님 앞에 바치는 사명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이긴자가 바로 그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마귀를 발등상 시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은 한결 쉽습니다. 그러나 주의 피로 씻어 알곡을 채우는 일은 몇 십 곱절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지시의 내용도 다르며, 치리하는 방법이나 은혜도 판이합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교회가 너무 많으며, 드나드는 사람이 넘칠 정도입니다. 문제는 주의 편에서 마귀를 소탕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의 수에 있는 것이지, 이런 곁에 나타난 머릿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부흥’의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곧 부흥된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부흥은 주께서 쓸 만한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치적 현실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영적

인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오늘날 세계 4대 강국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것은 결코 정치의 역학관계에서만 비롯된 일이 아닙니다.

이긴자란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인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속4:6) 또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느 한 국가를 상대하여 역사하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세가 영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하게 되어 있으며, 마지막 때에 마귀를 발등상 시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온 세계의 주를 모신 감람나무는 분명히 둘이고,(속4:12) 강 가운데 서 있는 세마포를 입은 분의 양쪽에 두 사람이 서 있다고 했으며,(단12:6)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고 했고,(속14:8) 또 주님도 생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표로 보여 주셨는데,(막9:4) 세마포를 입은 자, 예루살렘 등은 다 주님을 가리킵니다. 즉 두 사람의 가운데 으레 주님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종은 주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들을 주께서 ‘나의

두 증거자'라고 부르신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계11:3-4)

그런데 마지막 주의 역사를 이루는 두 종은 각각 사명이 다르기도 하지만, 전자가 미처 이루지 못한 것이 있으면 후자가 그것까지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씨를 뿌리는 직분을 맡게 되고, 후자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부터도 다르게 터져 나가게 됩니다. 또한, 후자에게는 전자의 모든 잘잘못을 주께서 영적으로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무너진 데를 보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58:12) 예컨대, “전자에게 부엌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저 모양으로 지어 놓았으니 고쳐라.”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후자는 전자가 쓰던 기둥이며 서까래를 하나하나 뜯어다가 썩은 곳은 잘라내고, 더러운 곳은 깎아 내고, 짧은 데를 이어 대고 해서, 견고하고 훌륭한 집을 다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 Chapter 02.

# 제사에 대하여



### 1)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우리가 제단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주의 아내가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내가 될 자격자는 빛나는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옷을 입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입혀지게 마련입니다.(계19:8) 여호와께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신약시대에 주의 종을 내세워 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도 다 이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사 43:7)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로서는 언제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제사(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며, 여호와께서

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향내 나는 제사이며, 결코 인간의 냄새를 풍기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올릴 때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창4:4-5)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평소에 행실이 고약하여 정성껏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아벨은 경건하고 선량한 생활을 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인과 아벨은 성경에 아담, 하와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창4:1) 아담, 하와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들에게 아기를 낳고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들이 땅에서 번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우 아벨을 시기하여 쳐 죽이고, 여호와의 노여움을 사서 사방을 유리방향하게 되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가인을 이방인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오늘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밟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창 4:14) 이 말씀에 보면, 가인은 여호와의 은총 아래 여호와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밖에는 보지 못했는데, 가인은 여호와를 만나면서 살았던 것



입니다. 그만큼 가인에게는 죄—유전죄는 물론 자범죄도—가 적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여호와와 얼굴을 보면 그 광휘에 짓눌려 죽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인용한 말씀 중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로 오랜 세월을 두고 인간이 미개하여 상종하지 않으시다가, 청동으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만큼 인지가 발달한 연후에 비로소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 전이며, 이것은 과학과도 부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다음 세대에 와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창4:26) 다시 말하면, 이때 와서야 비로소 사람들 사이에 신앙의 싹이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오랜 장수를 누리면서 급속도로 번식해 갔으나, 이들이 음란에 빠져 하나님이 외면하게 되자,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창6:1-3)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못 받는데 따라 이처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추방되는 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미개인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모면케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은혜 가운데 있던 가인을 이방 구역으로 내쫓으면서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만나는 누구에게서든지 죽임을 면케 하셨습니다.(창4:15) 이것은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호와와의 표시이지만, 선량한 성도의 이마에도 여호와께서는 이런 표시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 육적인 표는 신약시대에 들어와 영적인 표인 인침을 상징합니다. “너희도 …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엡1:13) 하는 인침이 그것입니다. 이 인침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빛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기름 부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마귀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표를 주어 성도와 구별합니다.(계19:20) 그리하여 때가 되면 이 표에 의해 여호와와의 편에 선 자와 마귀의 편에 선 자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표를 하시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하늘의 군대, 14만 4천을 채워 새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가인 때부터 이미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릴 때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자 여호와에게 제사를 올리고, 제사를 올림으로써 여호와와 교류하기 시작했으나, 아우를 시기하여 쳐 죽일 정도로 난폭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가 헛수고에 그치지 않도록 부디 말과 행실을 단속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2) 유월절의 제사

유월절은 모세가 여호와와의 지시를 받아, 애굽에서 매여 살며 갓은 고난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오순절, 초막절과 아울러 구약시대의 큰 명절의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10계명을 받은 기념일이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고 십일조를 드리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 세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축제일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린 점에서 그 이전의 제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민9:1-2) 여기서 말하는 정기란 1월 14일 저녁을 가리킵니다. 이때 시체를 만져서 몸이 더러워졌거나 멀리 여행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에게 예물을 올리게 했으며, 이 규례를 어기는 자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민9:13)

모세가 애굽인들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

시켜 준 경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로 왔다는 것을 바로에게 알리기 위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희한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출9:12) 바로는 좀처럼 모세를 여호와의 사자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요컨대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강박하여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계속해서 부인하게 만들어야만 이를 납득시키기 위해 더욱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여호와의 크신 권능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출12:11 참조) 만일 그렇지 않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는 정도로 바로가 금세 탄복하여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주었다면, 여호와의 위대한 권능을 더는 나타내 보일 기회가 없어지며, 따라서 여호와의 권능은 술객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는커녕, 술객과 동일시하여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일부러 바로의 목을 곧게 만들어, 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는 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동의 신과 격

동의 신이 그것입니다. 전자가 사람에게 임하면 마음이 감화 감동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합니다.”(롬15:2) 우리의 기도만 해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롬8:26) 것입니다. 이 ‘성령의 탄식’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부리는 감동의 신의 조화입니다.

한편, 격동의 신은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으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신의 권능을 좀 더 크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부리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며 …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삼상18:10-12)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았으나, 사울이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악신을 사울에게 주어, 당신께서 같이하시는 다윗을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대상21:1)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잘못된 처사임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호와의 심오한 섭리는 실로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낼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마냥 격동시켜 충분히 여호와의 권능을 드

러내 보이고 나서, 즉 모세가 아홉 번째로 여호와와의 권능에 의해 애굽 땅을 사흘 동안 어둠 속에 몰아넣게 한 다음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여(출10:27)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도록 유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하여(출12:22) 애굽인과 구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하여 제물로 드린 양고기를 구워먹게 했습니다. 이윽고 밤중에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바로와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리고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모조리 죽여 버리니”(출12:29) 그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주겠다고 통고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압제를 받으며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죽음을 면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어린 양은 주님의 그림자이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요6:53)고 하셨습니다. 이 피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며,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주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직전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처럼, 주를 맞을 우리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엡6:14)

### 3) 마노아의 번제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기름진 땅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난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 믿음이 식어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고, 하늘에서는 이를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를 사사로 세워 지역적으로 치리해 나갔습니다. 이들 중에는 사무엘이나 드보라처럼 예언자다운 능력까지도 아울러 지닌 자도 있고, 기드온이나 입다처럼 군사적으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목축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세우자, 이 사사시대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삼손으로 말하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그 부친은 마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므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삿13:1) 저들의 압박과 학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공경하여 수태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장차 아들을 낳으면 성장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게 될 터이니, 술이나 부정한 음식을 일체 입에 대지 말

라고 일렀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세레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할 때 한 말과 비슷합니다. **(눅1:15)**

마노아가 아내에게서 이 말을 전해 듣고, 어찌 된 영문인지 내막을 상세히 가르쳐 달라고 여호와에게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는 이 간구를 들으시고 받두렁에 앉아 있는 그의 아내에게 다시 천사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녀가 급히 남편 마노아에게 달려가 전일에 나타났던 그 사람(천사)이 또 왔다고 알리자, 마노아는 아내를 따라 그 사람에게 이르러, 당신이 전에 이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겠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번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한 말과 같은 내용의 대답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저번과 똑같은 대답을 하자, 그제야 마노아는 상대방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 온 천사에게 송아지를 잡아 진수성찬으로 대접했던 것을 상기하고, **(창18:7)** 그 사람을 위해 염소 새끼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차라리 그 염소 새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므로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마노아는 아직도 상대방의 정체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기묘’라고 부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묘란 신령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는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어



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늘에서 천사가 맡은 임무는 각각 다른 데, 이 천사는 경사스러운 일을 미리 알리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사스러운 일은 저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한 가브리엘 천사장이 도맡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고하고, 사가랴의 늙은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고한 것도 이 천사였습니다.

마노아가 천사의 지시대로 반석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니, 천사가 이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즉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와 사자가 그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삿13:20) 그러자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땅에 엎드리고 이른바 기모자가 천사, 곧 여호와와 사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마노아는 혹시 곧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나 다름없는데,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출 33:20)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았으니, 죽을 리가 없다고 우겨 남편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뵈고 하니 마노아가 땅에서 드린 제사가 불꽃으로 하늘에 상달된 동시에, 천사를 하늘로 데려갔으니 말입니다. 이와 같이 땅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서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4) 상달되지 않은 사울의 제사

삼손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좀 더 당신에게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물을 땅에서 물색하는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여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머리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커서 사람들을 어깨 아래로 거느릴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시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 블레셋 사람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와 비슷한 경우로 모세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와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이도 지긋하고 천성이 뛰어난데다가 여호와와 기름부음으로 임금이 된 그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처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기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범한 제일 큰 죄는 제사장을 대신해서 외람되이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즉 사울이 임금이 된 지 2년 만에 3만의 블레셋 군과 싸울 때,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급한 나머지 손수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렸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설사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아서 일국의 권좌에 오른 사울이라 하더라도 제사를 드릴 권한은 없었습

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율례에 벗어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삼상13:13-14)고 경고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실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말렉 군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노소와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삼상15:3)는 여호와와의 명령을 어겨 살찐 송아지와 양은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죽이지 않고 남겨 두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호와와의 안목으로 보면 이것은 당신의 지시를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사울의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와 같이 엄청난 견해 차이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본의는 아니나 마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삼상15:11) 것은 당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다니, 그까짓 임금 하나쯤 알아치우면 될 게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단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상, 당신의 위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여

느 죄인 다루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경우에 당신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게 됩니다. 책임이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분부를 어기면서까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죽이지 않고 남겨둔 데에는 그의 의사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겼던 것입니다.(삼상15:24) 그리하여 사울은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여, 그 환심을 사는 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때때로 당하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하나님의 종은 이런 유혹을 잘 분간하여 단호히 물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택함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백성들의 의견에 귀를 더 기울인다면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습니까?”(삼상15:22)하고 타할 법도 한 일입니다.

한편, 이런 사울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무능한 하나님, 또는 죽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작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점찍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였습니다.(삼상16:14) 이것은 여호

와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접선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사울 왕의 신하들로 하여금 거문고를 잘 타는 사람을 시켜 악신을 내쫓게 하면 왕의 번뇌가 사라질 것이라고 진언케 하여, 그 명수인 다윗을 불러들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궁중의 모든 법도와 예절을 익혀 자기 때에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와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차츰 다윗을 멀리하다가, 이윽고 질투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아주 없애 버리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했으나, 다윗은 번번이 몸을 피하여 정면충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윗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임금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와 기름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와 금하시는 것’(삼상24:6)이라고 주위 사람들을 타일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설사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는 어느 임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났다고 해서 헌신짝같이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잠시나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역사하기도 했습니다.(삼상 19:23)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착각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떠나 있어도 대뜸 버리지 않고 한동안 보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르

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로 작정한 후에도 여전히 하늘의 만  
나로 그들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리지만  
은 많았습니다. 이것은 사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번  
은 블레셋 군과 싸울 때, 두려운 마음이 앞서 여호와께 힘이 되어  
주시길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  
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삼상28:6) 사울은 당  
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만 두려워했을 뿐, 일체 그런 내  
색을 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임금으로 군림했습니다. 만일  
여기서 사울이 여호와께,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내 범죄로 말미암아  
나를 멀리하시나이까? 그러시다면 내가 다스리던 당신의 백성을 위해 새  
임금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구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여호와께서는 그때 비로소 당신이 진작 다윗을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것을 알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대뜸 갈  
아 치우면 땅에서 일어나는 혼란도 혼란이지만, 여호와의 위신도  
깎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5) 완전한 제사와 불완전한 제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  
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죽음을 며칠 앞두고 처음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발설하였을 때, “그리 마옵소서.” 하고 간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수제자로 침식을 같이하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베드로도 자기 스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제자가 선생을 몰라보다니,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못났거나 무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날 유명한 신학박사를 베드로의 자리에 앉혀 놓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이 죽는다는데 말리지 않을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 된 도리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스승으로부터 최대의 모욕을 당했습니다. 죽으려는 스승의 옷자락을 잡고 만류했다고 해서, ‘사단’이라고 하다니, 이걸 또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하긴 이렇게 반문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망발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물음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마 여러분 중에는, “아니, 사람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먼저 생각하란 말인가?” 하고 반박하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사람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육적으로만 생각하여, 구세주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려니 하고 기대에 부푼 제자들이 당신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실망할 때, 주께서는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요16:7)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원망스럽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잔뜩 노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대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했을까요? 우주의 창조에 동참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되다니, 이런 못난 짓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마냥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와 보아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한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어느 의미에서 당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다면 그런 매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제물로 받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하는 주님의 호소를 묵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게 되면 이것은 곧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바친 제물은 비둘기와 양과 송아지였는데, 죄과의 경중에 따라 드리는 제물도 다르게 마련이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었을 때에는 구하기 쉬운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제사장을 통하여 깨끗하지 못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지은 죄를 도저히 눈과 같이 씻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런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와 유전죄까지도 걸머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까지도 완전히 도말 받으려면 흠과 티가 없는 제사장과 제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동참하신 주님이 직접 당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한 번 드린 제사로 속죄의 길을 열고, 돌에 새긴 모세 율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자유의 율법을 선포하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축이 되어 드린 신령한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께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곧 생수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성령은 사람을 통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고넬료에게 성령을 내리실 때에도 베드로의 손을 거치게 했던 것입니다.(행10:1 참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려면, 아무래도 그런 중개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긴자도 주께서 세운 이런 성령의 중개자입니다.

그를 통해 주의 피는 이슬같이 내리고, 불과 생수의 강한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그의 입을 통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게 마련입니다.(요14:26) 이 경우에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요16:13) 그러니까 모든 것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연결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롬8:15)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 6) 예배에 대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는 천층만층이지만,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전자의 생활 태도를 인본주의적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신본주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면적인 구분이고, 실제로는 거의 다 전자와 같은 생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오늘날 하나님을 공경하노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간본위의 생활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하기야 인간이 육을 갖고 있는 이상, 먹고 살아야 하므로 세상과 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공기만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란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빨래를 하더라도 영의 때를 씻는 심정으로 찬송가를 입 속으로 나직이 부르면서 빠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때를 씻는 데만 온 정신을 빼앗기는 사람의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되 적당히 하고, 생활은 생활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신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볼일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사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자기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고방식이나 신앙 자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영위되어야 하며, 일거일동이 하나님과 어떤 형태로나 선이 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의 것은 결코 신령하지 못합니다. 설사 고귀한 인격이나 순수한 양심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격을 ‘고귀하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양심에 ‘순수한’이란 형용사를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릇 신령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결코 땅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의 은총이 담길 때 비로소 그 그릇이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금은보화가 담긴 격이라고 할까요? 이 금은 보화를 오래 간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방 쏟아 버리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되어버릴 뿐더러, 다시 주워 담기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는 그때그때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현재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모하고 충성을 다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제까지 주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충성했어도 오늘 어찌어찌 해서 떨어지면, 전에 애쓴 보람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제까지는 마귀의 괴수 노릇을 했더라도, 오늘 회개하고 매달리면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연조가 필요 없으며, 우리는 언제나 새로 출발하는 심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주와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 영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악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령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여도 우리 자신이 마음의 무장을 튼튼히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침범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나 악령은 우리가 기회를 제공했을 때 비로소 들어와 좌정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이 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귀한 손님을 맞으려고 해도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는데, 하물며 보배로운 성령을 맞아들이기 위해 찬송을 부르면서 것처럼 한눈을 팔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집안 정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신령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정성은 인간이 드리는 것으로, 이 양자는 떼려고 해야 떨어지지 않는 긴밀한 관계입니다. 즉 신령해지면 정성을 기울이게 되고, 정성을 기울이면 신령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개성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내립니다. 가령 대체로 할머니나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은혜가 내리고, 지성인에게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립니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개성에 따라 지적, 정적 및 의적인 요소에 강약이 있듯이, 믿음에도 이 세 가지 유형에 강약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지적인 면이 앞서는 경우도 있고, 정적인 면이나 의적인 면이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기도를 하게 되면 으레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람은 정적인 신앙이 우월하고, 설교 말씀에서 남달리 큰 감동을 느끼는 사람은 지적인 신앙이 강하며, 교회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사람

은 의적인 믿음이 우세한 것입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신앙에 이 3자, 즉 지적, 정적 및 의적인 면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셋을 고루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의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즉 땅에서 아무리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올 것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옴으로써 베드로는 목숨을 내걸고 주를 증거 했으며, 그것이 옴으로써 주의 반역자 바울은 주의 충신으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하고 궁금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 바울의 경우는 특별 케이스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충성심과 그릇의 됴됨이를 보고 주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특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고, 또 그래서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한 번 부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고 또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골3:16)고 했습니다. 찬송은 마귀와 싸우는 무기의 하나요, 은혜 받는 비결의 하나입니다. 은혜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며, 모른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와 연결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남이 볼 때는 된 것 같아도 되지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고, 되지 않은 것 같아도 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끼리 두셋만 모여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마 18:19)

예배는 하나의 교회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룩한 의식이 형식에 그치는 폐단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하여 좀 더 인식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Part 02.*

# 십자가는 살아 있다



3. 그 품에 안기리 · 4. 성령은 이렇게 역사한다

## Chapter 03.

# 그 품에 안기리



### 1) 둘째 언약의 주인공

나는 지금부터 꼭 1년 전, 우리 에덴성회의 첫 돌을 맞아 한 주 일동안 특별 집회를 열고, 주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행적에 대하여, 주로 선지자들이 남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중심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한 주일 동안의 특별 집회에서는 둘째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주께서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배후를 더듬어 좀 더 깊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간에는 성경 이외의 말을 하면 으레 상대방을 이단으로 모는 폐단이 없지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성경과 어긋나는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

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16:13)고 말하고, 바울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2:10)고 말하였습니다. 즉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경에 없는 깊은 것을 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그 말에 어디까지나 성경적인 밑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 예비자로서 먼저 못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고 교권을 쥔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나 세도가 당당하게 자랐으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때 주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그 위세에 놀려 그의 말을 고분고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세례를 줄 때, 당시에 가장 지식층에 속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서슴지 않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도 그가 얼마나 도도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처음부터 이렇게 고자세로 나와도 누구 하나 깃소리 못할 정도로 세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눅3:15)

이러한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예고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부풀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누가 과연 메시아일까? 그는 얼마나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으며, 또 얼마나 잘 생겼을까?” 하고 저마다 여간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임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습

니다. 그러자 주님은 가사를 정돈하고 당신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곳에 가서 사람들의 동태를 주시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것을 보고 요한은 놀라고 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나기는 했으나, 이렇게 초라한 사람을 못 사람들에겐 구세주라고 증거하기가 난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 해야 할 유일한 임무가 오랫동안 전 이스라엘 백성이 손꼽아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인데, 어느 모로 보나 자기보다 월등히 나아야 할 메시아가 꼭 자기 신들메나 풀기에 적합한 것 같은 볼품없는 목수라, 사람들이 자기 말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 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렸으니, 주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다 마치고 나서 주님을 찾아가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할 일을 의논하고 사람들에게 서서히 주님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우러러 보이는 훌륭한 인물로 나타났다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올시다!” 하고 소개하면 될 텐데, 그와는 정반대였으므로, 대뜸 주님을 백성들 앞에 내세우지 못하고 이를 테면 얼마 동안 뜰을 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세례를 계속하면서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들 중에 내가 말한 메시아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메를 드는 것도 감당치 못 하겠소.”(요1:26-27) 하고 일단 암시를 주어 간접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메시아가 과연 누구일까 하고 그럴싸한 사람을 찾아내어,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라고 짚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주님은 다시 요한에게 가서 시치미를 뚝 떼고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또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요한은 이미 그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가만 계시지, 무엇 때문에 또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고 조용히 말하면서 깎듯이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요한이 저렇게 굽실거리나!” 또는 “이상한 걸, 아무리 봐도 천생 시골뜨기 같은데?”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자 요한은 비로소 실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내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올시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1:29)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주님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딘가 잘못된 게 아냐?” 또는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저마다 한 마디씩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것은 주님보다도 오히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이 순조롭게 잘 되면, 다시 말해서 세례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 주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임무가 끝나게 되므로

깨끗이 물러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말을 좀처럼 믿어 주지 않고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성사업의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요한은 요한대로 여전히 세례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까지도 손을 떼면 하늘의 역사가 중단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못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한편,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도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더러 하나님께서, ‘물세례를 줄 때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례를 주고 있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이 내려와 머물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메시아로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요1:33 참조)

이렇게 세례 요한이 목청을 돋워 구세주가 오셨다고 열심히 증거하였으나, 사람들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주를 따른 사람은 겨우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주님은 전도의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사들 중에서 상당한 수를 흡수하여 이들을 기반으로 하여 하늘의 도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현실은 이처럼 뜻대로 되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맨투맨 작전을 하신 것입니다. 이리하

여 밥알 붙듯 주님에게 모여든 것은 고작해야 가난하고 병든 하찮은 사람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데가 없다.”(사53:2)고 했으며, “빈궁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한다.”(사29:19)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내로라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주의 언동에 일일이 꼬투리나 잡으려고 했을 뿐,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여전히 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게 되고, 주님은 요한의 기반을 전혀 물려받지 못한 채 새로이 세례를 주면서 일을 해나갔던 것입니다.(요3:22) 이때 주께서 당신의 일꾼으로 택한 것이 열두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주님이 인계 받아 일을 시작하려던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주님과 요한이 따로따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자, 주님의 세례가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이 주님 쪽으로 많이 모이는 반면에 요한에게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는 요한의 제자가 스승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3:30) 이것은 참으로 요한의 위치에서 의젓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때까지만 해도 ‘길 예비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굳게 지키고 있었으나, 차츰 두 분의 관계는 미묘하

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데는 제일 속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치 광대 구경이라도 가는 심정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을 보러 모여들었습니다.

## 2) 주님과 시험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여러 나라들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자 습관이 되어 주일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설교도 들을 겸, 사람도 만날 겸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찾거나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살아가는 방편의 일부로 교회 문을 드나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에는 타성이 생기고 때가 끼게 마련입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예배 의식도 그럴듯하지만, 영은 기갈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함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 폐풍은 우리라고 해서 물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늑한 은혜가 많은 곳에 으레 마귀가 극성을 부리게 마련이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온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를 무찌르고도 남은 큰 보혈의 은총이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마귀를 끝까지 대적하면 물러간다고 했습니다.(약4:7)

우리 에덴성회는 쉽게 말해서 하늘군병의 양성소입니다. 여러분이 예뻐서 주께서 남달리 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군병으로 뽑아 싸움터(아마겟돈)에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사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몇 명 모이느냐보다, 몇 명이나 이루어지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서야 하고 나는 여러분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주께서 맡은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좋든 싫든 이 일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청춘을 다 바쳐가면서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나도 남과 같이 편안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사사로이 움직일 수 없는 몸입니다. 이런 나를 깊이 이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해하여 주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는 여태 누구에게도 이러한 심정을 호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긴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해 계시서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좀더 열심을 내어 잘 다듬어지면 주께서 먼저 알고 보여 주시므로 이것을 위안으로 삼다가도,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 속이 상하

면 역시 주께서 아시고 힘을 주시므로 기운을 내곤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약해지면 주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 힘을 주어 기운을 내게 했던 것입니다.(행23:11)

나에게 낙이 있다면 주님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어떤 주의 종도 일을 해나가지 못합니다. 주의 종은 거기서 지혜와 힘과 기쁨까지도 얻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하늘의 도를 전하기에 앞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읽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므로, 여러분은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까, 또는 주님과 마귀가 어떻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상 중에 나타나는 것으로, 직접 경험해 보면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나도 이상 중에 수십 차례 사단과 대면도 하고 대화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피어서 자기편으로 만들려는 술책을 쓰는 것입니다. 나는 마귀와 싸울 때마다 진땀을 흘리면서 물리치곤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상 중에 더러 마귀와 겨뤘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잠결에 마귀가 문을 열고 들어와 목을 조르거나, 환상 가운데 마귀가 덤벼드는 광경을 목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도 우리는 마귀의 위력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는 예수가 목수 일을 할 때에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가 가족을 위해 목수 일을 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므로 마귀가 덤벼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늘의 도를 전파하러 나서서 공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국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이모저모로 가로막으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맨 먼저 알아본 것도 마귀입니다.(막1:26) 마귀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한 생수를 보고 미친 사람이 도망치는 것도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 속에 담긴 주의 피가 영체인 놈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 3) 보혈의 의미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6:53) 이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너나없이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이미 말씀드렸으므로 재론하지 않기로 하고, 여기서서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시켜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지금 말한 피와 살은 물론 주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승리의 피요 영광의 살을 가리키며, 따라서 이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와 살은 주님의 육적인 그것이 아님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주님이 제자들과 가진 이른바 ‘최후의 만찬’에서 먹고 마신 빵이나 포도주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심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된 영적 양식,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성령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기독교의 근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느냐,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이 땅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요7:39 참조)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죽는다는 말에 놀라고 겁을 먹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요16:7)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훼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고충과 그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생축이 되게 한 것은 당신의 큰 경륜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신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사람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곧이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마귀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성경을 기술적으로 기록하여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의 유일한 경륜, 곧 하늘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역사는 결코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하늘 군병의 수는 그다지 많은 수가 아니며(14만 4천) 이들은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의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아브라함을 구약시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신 후에, 이들 중에서도 당신의 손발이 되는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만을 상종해 왔으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바울을 시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 성령으로 오늘날까지 역사해 오셨지만, 역시 그 범위는 한정된 일부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는 부분적으로 명색을 유지해 오다가, 오늘날 이 땅에 이긴자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일어났으며, 또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역사에 부름을 받은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은 은혜의 창과 속에 젖어 열광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일찍이 수많은 선지자들도 꿈만 꾸고 맛보지 못한 놀라

운 은총으로, 세상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그 은총을 받아본 사람은 그야말로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저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피 권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으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완성하시려는 의도가 깃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 놀라운 은총이 차츰 식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크게 노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는 당신의 율례를 조금만 어겨도 노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주의 피를 헛되이 짓밟는 죄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날 못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도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비통하기 짝이 없는 일이거늘, 주님이야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옛날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십 배의 책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나는 여기 대해 더 말할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2년 전에 이 단상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 드려야 한다.”고 외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을 내세워 지금 그 뒷수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

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니.”  
(사58:12) 내가 바로 이런 치다꺼리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 손발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이 어려우면 그만큼 보람도 있는 법입니다. 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주께서 줄곧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하필이면 이 보잘것없는 이영수와 주야로 같이 하십니까요? 이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을 가리고 주 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 같은 못난 사람이 적격자였나 봅니다.

지금은 전과 같이 주께서 은혜를 마구 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내린 은총의 경우를 상고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작정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호수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능을 나타내 보이면, 돌로 표적을 세워 저들이나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를 기념하여 명심하도록 했습니다.(수4:4-7) 그만큼 여호와께서 은혜에 인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피와 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단상을 통하여 불로, 이슬로, 생수로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나 여러분이 잘나고 예뻐서 이 역사에 불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고 우리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 헤매는 무수한 형제들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기

동참하는 긍지를 갖는 한편, 무거운 사명감을 느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역사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4) 산상수훈

무릇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언제나 십자가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주님을 항상 가까이 모시고 그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며, 이렇게 되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상을 쇠줄에 매어 목에 달고 다니면 그게 십자가를 붙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십자가상을 방안에 걸어 놓고, 드나들 적마다 자연스럽게 눈에 띄이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마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마 10:38) 이걸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십자



가를 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전도에 힘쓰며, 십일조도 착실히 바치는 등등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무슨 어마어마한 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차곡차곡 해나가면 그것이 바로 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동시에 주의 뒤를 따르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다.”(마11:30)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짐을 저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술, 담배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술, 담배 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좀 더 경건하게 가다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며, 이것 역시 주께서 쉽사리 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쟁이가 되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 못 믿겠다고 합니다. 왜, 예수쟁이는 제사를 안 드리나요? 다만, 추도예배라고 해서 제사의 형식을 달리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안 믿는 것까지도 우리의 의사에 맡기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따르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여러분 중에는 용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감당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종교의 경전처럼 세상에 대한 교훈적인 말은 별로 찾을 수 없고 거의 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도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기독교가 수도에 그치지 않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영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지만, 주님으로서는 극히 초보적인 이야기밖에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야기해 봤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못다한 말씀을 보혜사 성령에게 미루셨습니다. 주께서 희한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모여들게 했으나, 이들은 고작해야 주님을 큰 선지자 정도로 인정했을 뿐,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산에서 야외집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이분은 원래 산악인입니다. 생업이 목수라 언제나 산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점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온 세례 요한과는 활동무대부터가 다릅니다. 주님은 그때그때 청중들의 동태에 따라 대체로 즉흥적인 설교를 하였습니다. 즉 우선 제자들을 시켜 어느 날 아무 데 사람들을 모이게 하라고 지시하고는, 이들 중에 어부가 많으면 고기 잡는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농부가 많으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좀 더 영의 세계를 알기 쉽게 풀이하기 위

해서였습니다.

주님의 집회에 모여든 청중은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보다 오히려 병을 고치러 온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경, 앉은뱅이, 귀머거리, 절름발이, 중풍 환자 등으로 붐비는 청중들 앞에서 주님은 돌 몇 개를 꺾어 연단으로 삼고, 육성으로 고래고래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설교 중에서 비교적 짜임새가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5:3)로 시작되는 ‘산상수훈’입니다. 흔히 이 산상수훈을 매우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초기의 설교로, 따지고 보면 세상적인 교훈에 기울어져 그다지 깊은 영적인 말씀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마치 주님의 가르침이 요약되어 있거나 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모럴이나 교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럴 이상의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이 기독교의 초보 단계에 해당된다는 것을 지적해 둘 뿐입니다.

주께서 영적인 말씀을 처음으로 발설하신 것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고위 관리와 나눈, 이른 바 중생에 대한 이야기에서입니다. 그는 위신상 낮에는 창피하여 시골 목수였던 주님을 떳떳이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남의 눈을 피해 조용히 주님을 찾아가서 구원의 도리를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무슨 소린지 알

아들을 수 없어, “그렇다면 나더러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하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날이 갈수록 점점 그 단계가 높아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날자가 촉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몇 달 앞두고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느니,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느니,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설교 내용이 영적으로 깊어갈수록 듣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간 이유의 하나입니다. (요6:66)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도 이러한 상황 변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용이 달라졌으며, 때로는 반대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께서 한창 인기가 상승하여 지방에 12사도를 전도사로 파견했다가 성과가 좋으므로 다시 70문도를 방방곡곡에 파송할 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갖지 말라.” (눅10:4)고 일렀으나, 주님이 궁지에 몰려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자 제자들에게도 그 여파가 닥칠 터이므로, “전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러하고, 검 없는 자는 겂옷을 팔아 살지어다.” (눅22:36)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무슨 탈을 쓰고 어떤 행패를 부릴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가르침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기응변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

던 것입니다.

주께서 70문도를 전도에 파송했을 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습니다.(눅10:18)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는 주님이 사도를 지방에 보낼 때까지만 해도 크게 훼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대를 들고 가지 않아도 환영을 받아 주식에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주님에게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전도했더니 매우 좋아합니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10:20)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 그 나라에 관심이 많고, 제자들은 이 나라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 5) 주님의 예언

주께서 생전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터뜨린 깊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4장의 말씀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연결되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둘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리고 셋째는 세상 끝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마24:9)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대리석으로 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고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성전이 자손만대에 길이 빛날 줄 알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그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웅장한 성전이 무너진다면 큰 난리를 예상해야 하며, 큰 난리가 나면 자기네들도 당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감람산에 조용히 앉아 계신 주님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넌지시 물어보고, 아울러 주님이 언제 다시 세상에 오시며,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마24:3) 그러자 주님은 성전이 무너질 때 나타날 현상과 조심할 일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즉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하며, 각자 민첩하게 움직여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구애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아이 밴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마24:21)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므로, 이방인들의 전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안중에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양상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마24:15) 이라는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함축성이 높습니다.

다음에 주님은 당신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

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일에 대해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마24:36)고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두고 볼 때,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그 피 권세로 이 땅에 바로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를 이룩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에 이르도록 오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거짓말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미리 못을 박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는 이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좀 더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상고해 보면 주께서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오시지 못하며(계6:11) 이 여건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에 이긴자를 내세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계 2, 3장 참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여기 이긴자를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는다는 말씀은 주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뜻으로, 성경에 나오는 ‘기둥’은 여호와께서 언약의 증거로서 교류 또는 간섭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주의 아내를 상징하며, [\(계21:2\)](#) 이긴자 위에 주의 아내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긴자가 성령의 인을 쳐서 그 수(14만 4천)를 채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긴자는 그 수가 찼는지 차지 않았는지 알 수 있으며, 주께서 언제 오신다는 것도 알게 마련입니다. 이 수가 차기만 하면 주님은 곧 오시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일어나지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24:29-30\)](#) 여기 나오는 환난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일어난 환난과는 다릅니다. 의로운 자의 수가 차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마귀는 위정자들을 격동시켜 큰 환난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님은 세상 끝에 대하여 다니엘서에 이미 기록된 말씀, 곧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단12:11\)](#) 이란 말씀을 인용하여,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설 때는 천년세계가 지나, 마귀가 한 때, 두 때, 반 때, 곧 마흔 두 달 동안 성도의 거룩한 성을 포위하고 행패를 부리는 때를 가리키며 [\(계11:3 참조\)](#) 다니엘은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보여 주신 것을 기록하고,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가 세상 끝이



라고 덧붙였습니다.(단12:7)

이 깊은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도 일찍이 바울이나 베드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이 이 중요한 말씀에 대하여 입을 다문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갈1:11-12)이라고 말하고, 당신이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천사가 전해도 저주를 면할 수 없다고까지 말한 바울이지만, 그가 마지막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지 않은 것은 이것을 말할 사람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다윗의 뿌리, 곧 주님이 터뜨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계5:5) 그렇다면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 이걸 이렇고 저런 저렇다고 터뜨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이긴자에게 새벽별(주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계2:28) 그런 고로 마지막 때에 성사될 감추었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이긴자를 내세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6) 주님과 이긴자

주께서 이상 중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나서 맨 처음에 설

교를 시작하신 곳은 갈릴리였으며, 요한이 외친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처음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행색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시골 청년이 하나님 운운하고 핏대를 올리면서 떠들어대니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적,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주로 사용한 것은 ‘신유의 은사’였습니다. 더구나 의학이 발달되지 못한 당시라,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리는 많은 중병 환자들이 주님의 손이 닿거나 말씀 한 마디로 척척 나으니,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에게서 고침을 받은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 알면 트집을 잡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눈이 멀어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자가 버젓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채문해 본 결과, 예수가 고쳤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마귀(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병을 고친다고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모였습니다. 하기야,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시달려 온 병만 물러가 준다면야 누가 무슨 말로 이들의 발길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이처럼 타산적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끌려고

하지, 죽은 다음의 천국을 운운해 봤댔자 별로 실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천국이 실제로 없는데 성경에 천국 운운했다면, 기독교는 사람을 미혹시키는 가짜 종교가 됩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나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윤곽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과 주님이 계시는 영의 세계이며,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들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재미로 천국에 가서 사나?” 하고 말입니다. 있을 법한 의문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육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호화찬란한 보석 때문에 온통 금 덩어리가 깔린 길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상 중에나마 실제로 가보아야지, 도저히 펜으로는 그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면 흔히 흠과 티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아름다운 에덴동산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이 에덴동산과 여호와가 계시는 3층천과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투성이인 이 땅덩이와도 판이하지만. 그렇다고 에덴동산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눈부시게 황홀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는 아닙니다. 에덴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으로 나무도 자라고 강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은 마치 내가 면목동 집에 있는 것처럼, 아담

과 하와의 안식처입니다.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언제나 이 안식처에만 들어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영체이므로 이 광대한 우주를 어디나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면목동이지만 아침밥을 먹고 명동도 쏘다니고 인천에도 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 하와처럼 이 우주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겨우 달나라에나 내왕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돈을 많이 들여 특수한 장비(옷)를 갖춰야 합니다. 그곳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와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영체이므로 이런 여건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이 놀러간 별이 차건 뜨겁건, 공기가 있건 없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이 계시는 세계로, 그곳 주민들은 영광과 희열과 복락의 모든 감정이 그대로 영속되어 권태를 느끼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 나라도 우리의 경우처럼 모든 것이 얼마 후에 시들하게 여겨진다면 천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히 밝혀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어둠이 없고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천국은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곳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천국처럼 답답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도 이 세상 못지않게 복잡다단한 계급제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은 하나

님이고 왕자는 주님, 이긴자와 24장로, 14만 4천의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주의 아내와 백성, 그리고 천사 등, 각자 맡은 임무가 따로 있어 분주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 옷은 물론 하나의 비유로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제로 그런 옷을 몸에 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께서 외치셨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천국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여건과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마귀가 동시에 지켜야 할 룰(규례)의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겨루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생각할 때 언제나 마귀의 존재를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 하늘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갖춰야 하는 여건이 14만 4천의 하늘 군대입니다.(계14:14) 이 숫자가 차야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야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하늘나라를 이뤄 놓을 수 없으며, 설사 이뤄 놓았댔자 곧 마귀에게 침범을 당하여 쉬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 어찌하여 얼른 14만 4천의 하늘 군대를 채우지 않고 오늘까지 미루고 있는가? 채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천국이 가까웠

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주님은 당신이 흘리신 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천국을 이루는 여건을 마련하시려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즉 14만 4천이라는 천군을 완전히 확보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어 오늘날 비로소 이 땅에서 이긴자를 통해 그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계20:4)

### 7) 주님께 쓸모 있는 그릇이 되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당신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사43:7) 그리하여 오늘도 하늘에서는 우리의 움직임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관심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백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곧 여호와의 선민으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영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암 3:2)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민족을 차별해서 대우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못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미 상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윽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주의 피로 말미암아 할례가 폐

지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하나님의 도가 전 세계에 전파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여호와께서 은혜의 쇄국 정책을 지양하고, 널리 온 세계 인류에게 당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그 덕분에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공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은총의 문호를 범세계적으로 개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마구 그 혜택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계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불러서 은총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요6:44)는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하늘의 움직임은 요약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려면 우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한쪽은 부르심을 받고, 한쪽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주일날 아내는 교회로, 남편은 산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흔히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든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는 일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여호와와의 부름을 받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

습니다. 다시 관문 하나를 더 거쳐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빠냄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고하면, 우리 자신이 주의 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진실한 자’라고 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초등학교에서 중,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마치는 것처럼, 위에서 말한 믿음의 세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수학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자 자기가 지금 어느 과정을 밟고 있는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세상의 수학 과정처럼 그렇게 단순치가 않습니다. 즉 이런 신앙 단계를 거치는 데 반드시 일정한 연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반과 재수의 폭이 넓어, 한참 달리다가 맨 밑바닥으로 처지는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처럼 철저한 정병(精兵) 위주의 임금은 없습니다. 하긴 마귀를 무찌르는 하늘의 군대를 길러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 하늘의 군대, 곧 주의 아내감을 키우기 위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경륜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군대를 키우기 위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특별히 제물을 받으시고 거룩함을 베푸셨으며, 신약시대에는 주님이 십자가



를 지시고 불과 같은 성령을 보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이긴자를 통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재림주를 맞이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와의 이러한 역사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땅에서 호응해야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여호와께서 크신 권능으로 당신의 사람을 세워 역사하여도 백성들이 잘 움직여 주지 않으면 일은 낭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암3:3)고 하신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은 하늘과 땅의 함수관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좋은 일이든 궂은일이든 간에, 반드시 당신의 사람을 통해 미리 알려 주시게 마련입니다.(암3:7) 그리고 이와 같은 당신의 사람을 세우기에 앞서 당신의 백성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이 있어야 당신의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내세워 역사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흔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기하지만, 이스라엘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주께서는 진작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마 21:43)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가 무슨 역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영수가 뭔데 주께서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지시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이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중에서 의의 군병을 뽑아 주께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을 하늘의 군병으로 삼아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고 또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물론 주의 권능으로 되지만, 여러분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기 일을 앞세우고 주의 일을 뒤로 미루면 주께서 서운히 생각하시고, 이것이 반복되면 주의 눈 밖에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렘5:1) 즉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를 위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예루살렘 성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호와께서는 죄인 만 사람보다 의인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요컨대 하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그릇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의 쓸모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 Chapter 04.

# 성령은 이렇게 역사한다



### 1) 성령의 기능

인간을 가리켜 흔히 ‘만물의 영장’ 이라고 해서 마치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까지도 부인, 또는 외면하는 폐단이 있는데, 이것은 이만저만한 인식 부족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일정한 여건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공기 같은 것도 그런 여건의 하나로, 만일 여호와께서 지구의 공기를 거둬 버리면 인간은 물론 파리 한 마리도 이 땅에 살 수 없게 됩니다. 저 하늘과 태양과 땅과 물, 곡식,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마련해 주신 은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긴한 이와 같

은 은총에 곁들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은총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기 일쑤인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특히 성령의 은총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찍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신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대답한 적이 있는데, 2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런 몰지각한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성령이고, 그 믿음을 키워 나가는 것도 성령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화이며,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도 역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 성령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즉 그것은 피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요16:7)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이런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한 베드로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된다는 말을 듣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간하였던 것입니다.(마 16:22) 이것은 물론 제자로서 스승의 신변을 걱정해서 한 말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소행이므로 베드로는 ‘사단’

이라고까지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수제자가 이 모양이니, 그 밖의 사람들이야 말해 뭘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직접 보고 들었으므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여느 죄인들처럼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완전히 마귀의 소유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16:12) 이와 같이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성령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자기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를 부인한 사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전도에 힘써 하루에 3천 명이나 주님에게로 인도하고, 일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의 베드로와 받은 후의 베드로는 이렇게 천양지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 2) 이긴자의 권세

바울은 자기가 맡은 직분이 모세의 것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고후3:7) 우리가 언뜻 보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던 모세의 권능은 사람들에게 안찰을 하여 성령을 부어 주는 은사보다 월등 큰 것 같지만, 모세는 파리 목숨 하나도 살릴 수 없었는데 비해 바울은 죽어 가는 못 심령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총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는 교역자라 하더라도 그를 따르는 양떼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여 주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을 부어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목사의 웅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린 영의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현실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목자와 양떼들은 영적으로 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지금부터 2천 년 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 만이라면 나와 주님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사랑을 주장한 한 도학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덕적으로 완성의 단계에 이른 성인군자와 다릅니다. 그는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의 행적에 대해 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장본인으로, 예언대로 왔다가 예언대로 가신 하늘의 존재입니다. 그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본격적으로 역사

하여 마귀를 소탕하고 여호와와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께서 죽지 않고 그냥 하늘에 올라갔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없고, 못 사람들에게 당신의 ‘피와 살’, 곧 보혜사 성령을 주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서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이를테면 주님의 분신입니다. 즉 성령이 주님이요, 주님이 성령이며, 하나님, 주님, 성령의 3자는 3위를 이루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요14:20)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백여 명의 문도들은 용기백배하여 주를 증거하였으며,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곧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하늘의 군대로,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을 따라 종군해서 마귀를 완전히 소탕하게 됩니다.(계19:14-15)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이라 당신에게 필요한 자만 귀히 보시지, 아무에게나 다 자비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만민을 다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6천 년 동안 역사하신 자취를 더듬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민을 구원하는 것보다 새 나라를 이룩하시는 것

이 급선무이며, 새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의 의로운 수가 차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에게 제일 필요한 수는 흰 세마포를 입은 주의 아내이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되는 무수한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긴자로 하여금 그 모자라는 수를 채우는 역사가 이 땅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긴자가 주의 피 권세로 보혜사 성령을 부어 의로운 자를 다듬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한다.’고 하였습니다.(계19:8)

주께서는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 피와 살이 이긴자를 통하여 생수로 내려, 못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계21:6-7)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것이 이 단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온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교회를 옆에 두고 멀리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신령한 하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는 여러분에게 내려 주는 이 은총의 강도를 차츰 늘여 왔으며, 또 앞으로도 늘여 갈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난 날의 자취를 더듬어 보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처음에 말씀만 전하다가 얼마 지나서 안수를 시작하고, 그 후 또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눈 안찰을 시작하였으며, 다시 때를 기다렸다가 생수의 축복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여기서도 여러분은 은총을 베푸는 과정부터가 과거의 성령의 역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늘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 3) 성령과 악령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요컨대, 예수의 인격을 자기 안에 지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자기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따르는 애로가 여간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가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천하만국을 넘겨받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눅4:5) 다시 말해서 세상은 마귀의 것입니다. 언제부터? 에덴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여호와께서 먹지 말라고 당부한 선악과를 먹어 마귀의 독소가 그들의 몸에 침투하게 된 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천하를 손아귀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찾으려는 것이 바로 여호와 크신 뜻이자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 천하만국을 넘겨준 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마귀의 괴수인 용입니다.(계12:9) 그러므로 주님을 상대한 자는 마귀의 괴수가 아니라 그 부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에게 보좌를 내어주고, 주님은 이긴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듯이,(계2:17, 27참조) 용은 자기 부하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계13:2)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는 최고의 사랑인 동시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최대의 무기를 마련하기 위해 예정된 교묘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씻어 당신의 군대로 만드는데 주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파괴자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건설은 어렵지만, 파괴는 쉽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당해내지는 못하더라도, 능히 적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땅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때 길 예비자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빈틈없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차지한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려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단상에서 설교하실 때 커다란 양피지의 성경을 펴고 읽어 가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족으로 된 성경, 그러니까 구약에는 주님에 대해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대목이 많아 주께서 전하는 말씀을 밀받침해 주었지만, 듣는 자들의 심령이 어려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입이 아프도록 미리 증거해 주었는데도 사람들은 거의 다 반신반의하면서 주님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주님의 주위에 모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세례 요한보다 훨씬 깊이가 있기는 했지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100%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부활 후 승천하기 위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따른 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마26:32, 28:7) 그러니 주님의 고충은 어떠했겠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탄식이 주님의 입에서 나올 만도 합니다.(마 23:37) 세상이 마귀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어렵게 마련입니다.

주께서 고기와 떡을 만들어 먹여주었을 때에는 5천 명이나 모여들었지만, 주님이 부활 하신 후 갈릴리에 모인 무리는 5백 명 정도이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수는 불과 120 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길 예비자를 앞세운 하나님의 아

들도 이 땅에서 도를 전파하는데 애로가 이처럼 많았거늘, 기반이 전혀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멸시와 천대 가운데 이끌어 나가는 나중 이긴자의 고충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 4) 해독제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깊이 깨달으면 거기에는 과학적인 정확성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힘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 지구의 나이가 6천 년밖에 되지 않으니 과학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속단한 나머지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성경을 잘못 풀이하는 데서 오는 폐단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인 견해에 어긋나지 않을뿐더러, 이를 밀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다음, 날짜와 연한을 정하기까지(창1:14) 얼마나 오랜 시일이 지났는지 알 수 없으며,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든 후에 범죄에 빠지기까지 또 얼마나 시일이 경과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인이 쫓겨났을 때 지구상에는 이미 인간이 살고 있었으며, 이것만 보아도 지구의 나이를 6천년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두고 보더라도 과학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정신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과 주님의

로부터 오는 것입니다.(요15:26)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합니다.(행8:17, 19:6 참조) 그 손길을 거쳐서 성령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을 받기는 했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에도 숨은 인과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과학적인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았거나 삿제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원인을 찾아내어 시정할 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너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계2:5)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은 자주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 때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성령을 부어 주었고, 오늘날 이진자를 통하여 이 땅에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사55:6)는 말씀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항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속죄의 제물로 말미암아 누구나 주님과 직접 영적으로 교류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성령도 직접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은 왜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일리가 있

는 말입니다. 또 성경에는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행2:28)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또 설사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크게 힘을 못 쓴다는 것은 여러분이 체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선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습니다. 이긴자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보혈로 이루신 생수입니다.(계21:6-7)

성령의 강한 역사는 주께서 세우신 당신의 특정한 종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입증하는 바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못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크게 불을 붙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별로 이렇다 할 하늘의 은총이 베풀어지지 않고 있다가, 오늘날에야 비로소 이 땅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나마 이것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는 눈을 갖고, 듣는 귀가 열린’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 저항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주께서 여러분을 이 마지막 역사에 불러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이 역사를 안 이상,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늘의 군대는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즉 하늘의 군대가 입는 빛나는

세마포는 ‘입게 하는 것’입니다.(계19:8)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작업이 현재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는 동시에 성령을 부어 주고 생수 축복을 하는 일 등이 곧 그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반열에 세우고 안 세우는 것은 주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런데 주께, ‘이분은 이러저러합니다.’ 하고 상신할 재료는 여러분이 나한테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옛날처럼 순교를 하지 않고도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떨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미리 먹지 말라고 당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여호와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죄가 생기고, 그 나쁜 피가 후손들에게까지 유전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견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런 끔직한 형벌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먹지 말라는 빵을 먹었다고 해서 칼로 푹 찌르는 아버지가 세상에 있을까요? 회초리로 몇 대 때리기는 해도, 이렇게 고약한 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당부한 선악과를 좀 먹었다고 해서

에덴동산에서 숫제 내쫓고, 대대손손 죄악에 허덕이게 하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은 그 과일에 독소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과일에 독소가 들어 있지 않았던들 따먹지 말라는 당부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 속에 마귀가 독소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과일을 따먹는 순간, 그 독소가 전신에 퍼져 신령한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창3:7)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과일을 먹자마자 독소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이 더러운 몸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를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독소가 섞인 피는 대대로 전해져 오늘날 우리의 혈관에도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독소를 제거해야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 독소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물질로는 되지 않습니다. 맑은 샘물이나 값진 의약품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신 수양을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스님들처럼 산 속에 묻혀서 선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도학자들을 모셔다가 날마다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수양을 많이 하면 허물을 고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뿌리 깊은 죄는 씻기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 자기가 지은 죄를 어느 정도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피의 독소를 깨끗이 제거하려면 주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피가 해독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히9:22)는 말씀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 피를 마시라.” 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피는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지금부터 약 2천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피를 마실 수는 물론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피는 생명수 샘물을 가리킵니다. 즉 주께서 피를 흘리신 대가로 내려 주시는 생수, 곧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놓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 권세는 오늘날 이 땅에서 이긴자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긴자가 생수로 축복하고 안찰하여 심령을 씻으며, 주의 피와 살이 하늘에서 이슬 같은 은혜의 단비가 되어 내리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때를 맞아야 하고, 이런 종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받으면 수십 년 동안 애써도 되지 않던 것이 즉석에서 해결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몇 주일씩 단식을 하며 철야 기도를 해도 구원받을 자신이 없던 사람도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구원에 대한 확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환자가 용한 의사를 만나 약 몇 첩만 먹고

낮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지 않고 돌팔이 의사를 만나면 고생만 진탕 하다가 결국은 죽어 가게 마련입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파이프를 통하여 보내는 이 해독제의 농도는 여러분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잘 움직여 주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자연히 그 진액의 농도가 얇어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뛰어 주께 잘 보이면 그 진액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그 종과 여러분은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개인적인 친분이 힘을 못 씁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자 전혀 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탈바꿈이 없이는 아무도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몸에 스며든 독소를 말끔히 제거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영생의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5) 성령의 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는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느냐 하는 것부터 의심할 정도로 한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긴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

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당신 자신을 우리 앞에 나타내지 않고, 다만 성령으로 당신의 살아 계심을 입증해 주십니다. 이것은 신, 구약시대를 통틀어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인간 앞에 드러내지 않으실까요? 드러내야 하나님은 영체이므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혹시 영안이 띄어 그 모습의 일부를 보더라도 눈이 부셔서 그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출19:18, 행9:8)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전혀 받지 못했거나, 받아도 쥐꼬리 만큼밖에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게 생각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 의해 막을 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 후 세계 방방곡곡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에 와서는 저 아프리카의 산간벽지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흑인들의 두툼한 입술에서도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오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지는 않지만, 무턱대고 좋아만 할 수 없는 것이,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에게 과연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느냐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진심으로 당신을 공경하고 덕스럽게 사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어느덧 2백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급속도로 부흥된 것은 6.25동란 이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전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외국의 원조까지 곁들여, 교회는 우선 구호기관으로서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른바, ‘섰다 하면 교회’라고 할 정도로 곳곳에 교회가 들어서고, 수많은 사람들은 구호물자라도 타는 맛으로 교회에 몰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중에는 빈약한 성령 체험만으로도 죽음을 맞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숨겨간 신도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십여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양적으로는 것처럼 교회가 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일어난 신앙 붐에 비하면 영적으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만큼 믿음이 식은 셈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독교의 신앙이 어느 종교처럼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언약한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것처럼 돌아가시게 되자 실망한 제자와 문도들에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40일 동안이나 이모저모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저들로 하여금 영안을 뜨게 하여, 때로는 산지기로, 때로는 길손으로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잃었던 소망을 되찾은 무리가 약 500명쯤 되었습니다.(고전15:6) 그러나 이들 중에 오순절이 되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수는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치고는 상당히 넓은 편으로, 마가는 꽤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이 다락방에서 비로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향연이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몸이 화끈거리면서 술에 취한

사람같이 되고, 방언을 받아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들은 이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후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 성령은 기독교를 널리 세상에 전파하는 터전을 다진 봉화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제까지만 해도 몰래 숨어서 주님을 증거하던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불과 같은 성령은 인간의 혼을 새롭게 하는 동시에 육체에도 큰 자극을 줍니다. 즉 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감각적으로도 강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하늘의 것이 와서 닿았다는 자의식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아 얼굴이 술 취한 사람처럼 별절게 상기되었다는 것으로도 당시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행2:13\)](#)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상례였으므로 우선 육신에 열기로 큰 자극을 주지 않으면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증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때의 사회 여건과 인간의 지능에 알맞게 움직이십니다.

오늘에 와서도 불과 같은 성령이 내리기는 하지만, 하늘에서는 생수의 권능에 더욱 치중하고 계십니다. 이미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증거할 필요성보다도 죄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주 앞에 서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실까요? 당신의 일(경륜)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물

론 성령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마귀도 물론 가만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힘껏 도전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귀의 도전을 성경에서 많이 보아 왔으며, 또 실제로 여러 차례 체험했을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눅16:16)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선지자를 내세워 직접 역사하시던 시대는 신약시대에 와서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천 년간 주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역사하시다가, 앞으로 천 년이 지나 마귀가 멸망되고 하늘나라가 임하면 그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전15:25)

세례 요한을 길잡이로 하여 주께서 오신 후로는 영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모세의 율법과는 정반대되는 설교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마10:39) 즉 주를 위해 육이 죽으면 영이 살고, 육이 살고자 하면 영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3:6) 주님은 이와 같이 영과 육을 명백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출21:24) 하나님의 백성은 남에게 이마를 얻어맞으면 뒤통수라도 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육적으로 싸우는 시대의 율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육이 죽는 한이 있어도 영은 살려야 합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행7:60) 하고 여 유를 보인 것도 그 한 실례입니다.

## 6) 이긴자의 소명

그런데 불과 같은 성령이 초대교회 때 강하게 역사하여 곳곳에 교회가 섬으로 기독교의 기반이 잡히기는 하였으나, 해를 거듭하여 10년, 20년 지나는 동안에 어느새 그 열기가 차츰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계2:4)고 책망하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당시의 여러 교회 가운데서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만일 이긴자가 나타나면 불과 같은 성령이 아니라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등, 도합 일곱 가지 특권을 주어 역사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께서 성령의 역사가 시들어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새 것을 원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성령의 역사는 이전과 강도가 달라야 합니다. 이긴자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는 이런 강한 성령의 역사를 내리시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땅에서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한사코 희망합니다. 하늘에서 원하여도 땅에서 호응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이긴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오늘에 와서야 이 땅에서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으며, 지금까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각자 받은 바 은총으로 산 증인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도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손가락질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리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을 또 내려 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매스컴(통신)이 발달된 시대에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다면 국내는 물론, 온 세계에 삼시간에 알려져서 만백성이 다 호응할 게 아니냐고 말입니다. 영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치가 않습니다. 가로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렇게 큰 권능을 행하였는데도, 딴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주를 반신반의했다는 사실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경륜을 이루실 때에는 반드시 두 종을 택해 세웠던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종과 일을 마무리 짓는 종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에 부름을 받은 후로, 많은 신앙체험을 통하



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긴자가 소명을 받아 하는 역사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여기 모인 여러분 이외에는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같이하면 알고, 같이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안타까워할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고, 올 만한 사람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모여서 형식적으로 북적거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 세우는 때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7) 생수의 위력

우리는 주님 당시에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너무나 몰라 준 데 대하여 때로는 안타깝게 여기기도 합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 모시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사실 저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육적인 생각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께서 돌아가시자 실망하여 다시 고기잡이나 하려고 생각한 것으로도 잘 알 수 있습

니다. 사도들의 믿음이란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불의 성령을 받은 후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게 되자 목숨을 내걸고 주의 도를 전파하여 일대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때의 성령은 이 불의 성령보다도 능력이 더 강합니다. 그것은 불, 이슬, 생수의 성령으로, 내가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직접 받고 있으므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행2:3, 속14:8 참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땅의 정세에 따라, 좀 더 상세히 말하면, 마귀의 전력(戰力)에 따라, 이를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모두가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 기능에 이처럼 차이가 있는 것은 세상의 무기가 발달하는데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오늘날에도 사도시대와 같은 불의 성령 하나만으로 역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마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이미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는 이상 중에 하나님과 직접 일문일답을 하였으며, 지팡이 하나로 바닷물을 갈라서 길을 만드는가 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는 등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리켜,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민12:6-8)**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대우

를 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육적으로 매우 희한한 권능을 행하였지만, 영적으로는 거의 무능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말 할 것 없이 모세가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도 마귀한 마리로 내쫓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모세는 자기와 똑같은 흥내를 내어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술객)에게 고스란히 당하기만 했던 것입니다.(출 7:10 이하참조)

그럼, 어찌하여 육적으로는 그렇게 위대한 모세가 영적으로는 전혀 맥을 쓰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시대 자체가 하나님과 마귀가 육과 육으로 대결하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되도록 이방인을 많이 잡아 죽여야만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를 거쳐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의 혼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시대가 되므로 그 방법이 달라 집니다. 주님 당시에는 주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여,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사람들과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다.(요7:39) 그래서 주께서는 미처 이 땅에서 하시지 못한 일을 이 보혜사 성령에게 미루었습니다.(요16:13 참조)

오늘날 마지막 때 와서는 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더욱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마귀가 전력을 강화하여 초대교회 당시에 내린 불의 성령만으로는 물리치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악령이 움직이는 세력이 더욱 증가하므로 성령의 역사도 이에 준하여 강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럼 그 적절한 조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뺏뺏이 굳어 버리고 시퍼렇게 멍든 시체에 내가 입김을 불어넣은 생수를 바르고, 여러분이 몇 사람 가서 예배를 보면 아름답게 변하고 노글노글해집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총동원되어 철야로 기도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이며, 여러분이 무슨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체가 변하는 것이 신앙과 무슨 큰 관계가 있는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정한 시체가 정결함을 입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사실은 죄를 씻는 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귀중함을 확실히 알게 하여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려는 뜻이 거기 깃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람의 입에서 성경 66권에 가려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였지만,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비로소 이 단상을 통해 해명되고 있습니다.

다. 모두가 주께서 보내신 다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이영수는 부인하여도, 이영수를 거쳐 나간 이 말씀과 은총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령을 거스르려 함이 있으시면 주의 말씀과 은총을 거스르려 하시지 마십시오.



Part 03.

# 역사의 증인들



5.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 6. 어린 양 이삭 · 7. 승리자 야곱 · 8. 총리 요셉  
· 9. 장사(壯士) 삼손 · 10. 승천한 엘리야 · 11. 영화(榮華)의 심벌 솔로몬

## Chapter 05.

#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 1)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조상을 세웠는가?

오늘부터 약 4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아브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부친 데라는 나이 70세 이후에 아브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75세 때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12:2-3)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직접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이며, 이리하여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람이 75세가 되기까지의 생활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役事)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람으로 하여금 멋대로 살게 내버려두셨다가 75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영특하고 활달하며 의지가 강하여, 여호와께서 미리 점을 찍어놓고 당신의 품에서 길러 왔던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후, 원시생활을 하던 인류는 인지(人智)가 발달하지 못하고 미개하기 짝이 없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성이 양순한 노아를 내세워 그 자손들에게 은총을 입혀, 당신의 경륜을 펴 나가기 위해 홍수로 일대 숙청을 했으나, 그 후손들도 여호와를 멀리하자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서 아브람에 이르는 동안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없는, 무법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누구나 성격이 거칠어 의인(義人)이라고 해봐야 좀 선량하다는 정도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차츰 개화되자,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언약을 주어 역사하실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뽑힘을 받은 인물이 바로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은밀히 아브람을 특별한 은총 가운데 기르셨습니다. 아브람 자신은 자기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뻗어 있다는 것을 알 리가 만무합니다. 다만 그는 날로 성품이 선량해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75세 때, 이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이 가산을 정리하고 아내 사래와 조카 롯을 데리고 여호와와의 지시대로 하란을 떠나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창12:7)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람은 하나님을 위해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후 세겜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여기 하나의 두통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절세의 미인이라 낯선 타국에 가서 아브람 자신이 무사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필경 사래가 아니라, 남편인 아브람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 뻔했습니다. 즉 아브람은 미인을 아내로 거느린 탓(?)으로 목이 날아가고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리한 끝에 아브람과 사래는 남매로 행세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도착하자 사래는 얼굴값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녀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자, 대뜸 바로의 신하들의 귀에도 들어가 사래는 궁중에 불러갔습니다.

바로는 사래에게 훌쩍 빠져, 그 오라비 아브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소와 양 등 많은 가축과 노비까지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가 사래를 손에 넣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바로에게 나타나 남의 유부녀를 겁탈하는 비행을 꾸짖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깜짝 놀라 아브람을 불러, 자기를 감쪽같이 속인 소행을 책망하고, 급히 애굽 땅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뒤에서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사래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억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아브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한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람은 아내와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 전에 제단을 쌓은 세겜 땅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창13:15-16)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숲에 장막을 옮기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 2)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아브람 당시는 이른바 부족국가 시대로 몇몇 부족들이 모여 조무래기 나라를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한 나라의 인구가 많아야 몇 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왕국들은 서로

동맹을 맺어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 반목하던 끝에 싸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성한 나라는 그돌라오멜의 나라였습니다. 그돌라오멜은 주위 여러 작은 왕국들을 자기 산하에 거느리고 12년 동안 군림해 왔습니다. 그 지역은 싯딤 골짜기, 곧 요단강 서부 일대로, 기후가 온화하고 땅이 기름질 뿐더러 소금도 많이 나며 백성들은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아 오던 여러 왕국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섯 나라가 합세하여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국을 상대로 싯딤 골짜기에서 크게 싸우다가 패하여 도망치게 되었는데, 이 바람에 소돔에 살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잡혀가고, 재물까지 약탈당했습니다. 아브람은 마므레에서 지방 유지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사병(私兵) 318명을 동원하여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국을 밤중에 습격하고, 롯을 비롯해서 잡혀간 모든 백성들과 빼앗긴 재물을 되찾아 왔습니다. 이들 사병은 본래 도적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야간 전투에 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특공대가 승리를 거두게 된 배후에도 물론 여호와와의 입김이 작용하였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을 비롯한 그 밖의 많은 동맹국 왕들이 아브람의 개선을 반갑게 맞아 주었는데, 이들 왕들 중의 한 사람인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아브람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는 일국의 임금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아브람에게 하나

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였으며,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습니다.(창14:20)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적의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난 자기 백성만 돌려주고 모든 전리품(戰利品)은 다 가지라고 말하자, 아브람은 여호와를 힘입어 싸움에 이겼는데 소돔 왕 덕분에 많은 전리품을 차지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을까 염려한 나머지 이를 사양하고, 실오라기 하나도 사사로이 취하지 않았습니다.(창14:23)

위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아브람을 환영하고 축복해 준 멜기세덱은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아브람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일찍 믿음의 조상으로 점을 찍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약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인물입니다. 그런 아브람에게 축복을 하자 아브람이 그에게 십일조를 바쳤다면, 그는 당연히 아브람보다 더 위대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살렘 왕과 제사장을 겸한 자연인(自然人) 멜기세덱에 그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이상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시110:4) 여기서 말하는 “너”는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을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이 미리 내다보고 한 말입니

다. 왕이요, 제사장으로서는 아브람으로부터 십일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바로 주님을 상징하며, 이 왕은 ‘만왕의 왕’인 주님을 가리키고, 제사장도 ‘영원한 제사장’인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주님께서 먹고 마시라고 하신 당신의 ‘살과 피’, 곧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에게 축복한 멜기세덱은 구세주인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생전(生前)에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해야 알아듣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이 있었다고 증거해도 옥설을 퍼붓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판인데, (요8:59) 어떻게 그보다 더 깊은 말씀을 터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이런 말을 발설했다라면 아마도 주님은 미친놈으로 몰렸을 것입니다. 이런 애로 때문에 주님은 땅에 계실 때 하고 싶어도 못하신 말씀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승천하신 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못 다한 말씀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7:1-3) 즉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하여, 그가 주의 그림자, 곧 상징

적인 인물임을 지적하고, 이어서 이 사람이 지극히 높은 분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특히 오늘에 와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멜기세덱이란 요컨대 주님의 대명사(代名詞)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굳이 주님에게 멜기세덱이라는 대명사를 붙여 그 그림자로 상징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네 글자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의로운 자들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기 위해’(계19:14)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들이 곧 ‘어린 양의 아내’(계21:9)요, ‘하늘의 군대’(계19:14)이며, 그 수는 14만 4천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 구약시대의 순교자와 마지막 때 인침을 받은 자가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계20:4, 7:3 참조) 주께서 피를 흘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수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마귀가 발등상 되어(시 110:1) 새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가리켜 “주님과 방불하다.”는 말씀 그대로, 그 반열에 참여하는 하늘의 군대들은 주님과 방불하게 되어, 찬송가에도 있는 바와 같이, ‘그 손의 못 자국으로’ 주님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아내로, 하늘에서는 엄청난 권세

를 차지합니다.(계20:6)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죄로 물든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렘5:1)

오늘의 이 역사는 이런 주의 아내감을 씻어 채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자가 필요하며, 그에게 감춰진 만나와 흰 돌을 주는 것은(계17:17)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여호와의 감춰진 말씀이 터져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흰 돌을 받은 자가 나타나면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감춰진 말씀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가 동서로 흐르는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속14:8)

### 3) 하나님의 첫 언약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한히 자비하셔서 언제나 우리 죄인들을 쓰다듬어 주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데서 오는 일종의 착각입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진노의 하나님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현실적이십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66권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부터 6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자취를 더듬어보면 저간의 소식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많은 성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새 나라를 이



룩하려는 당신의 뜻을 펴시는데 많은 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이라는 하늘의 군대만 확보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당신의 선민을 택하고 선지자와 사사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역사하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 옛날에 인간이 먹고 마시며 자손을 번식시키는 것이 살아가는 목적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던 단계를 벗어나 차츰 지각이 발달되자, 여호와께서는 새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일찌감치 내정해 놓고, 그를 살피며 보호하는 가운데,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나타나 반짝이는 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번식할 것이다.” (창15:5)

아브람은 여호와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아내 사래가 임신하려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아브람을 가상히 보시고 의롭게 여겼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나온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창 15:4)고 말씀하신 후로, 아내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겠지 하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아내 사래의 몸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브람은 낙

심하여 수심에 잠겼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바라보던 사래는 남편에 대하여 여간 미안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는 남편에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을 모양이니,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식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브람은 사랑하는 아내의 가혹한 청을 받아들여 얼마 후에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람이 85세 때의 일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召命)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나이 86세에 바라던 자식을 두게 되었으니, 아브람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브람은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아내 사래와는 차츰 거리가 멀어졌고, 하갈을 극진히 사랑하는 한편, 하갈은 하갈대로 주인의 아기를 배게 되면서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즉 자기도 이제는 보잘것없는 하녀가 아니라,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자손을 뱃속에 품은 어엿한 아내임을 자부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래를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딱하게 된 것은 사래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하녀에게까지 괘시를 받게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래는 남편에게 항의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해 왔는데, 이제 와서 괘시하기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워낙 애처가였던 아브람은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아내 사래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여종이니 맘대로 다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래가 하갈에

게 양값음을 하게 되자, 하갈은 견디다 못해 본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집에서 몰래 도망쳤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아브람의 자식을 잉태한 하갈을 외면할 수 없어, 천사를 내려 보내 하갈에게 돌아가서 여주인을 섬기라고 전하고, 하갈이 낳을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천사는 세레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을 예고하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지시하고, 또한 마리아에게 장차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고 일러준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이 천사장은 하늘에서 특별한 축복을 내릴 것을 알려주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 민족의 조상으로,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래가 낳은 이스라엘 민족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민족은 씨가 같고 배가 다른 사이이며, 근 4천년 동안 앙숙으로 지낸 것입니다.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기르는 한편,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너무나 끔찍이 아껴, 사래는 더욱 큰 설움과 고독을 느끼는 가운데 13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것을 언약하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치라고 지시하시는 동시에,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割禮)를 받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황송하여 엎드려 하나님의 분부를 공손히 받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정식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자손들을 번식케 하시겠다고 하니, 감사와 감격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이상 중에 할례 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므로 꼭 준수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17:14)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지시대로 99세에, 13세 된 아들 이스마엘을 비롯하여 온 집안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았으며, 이 율례는 바울이 폐지할 때까지 2천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첫째 할례를 받고, 둘째 율법을 지키며, 셋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3대 요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육적으로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이와는 다른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3대 요소인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첫째 십자가의 권능을 믿고, 다음은 주의 피로 인침(성령)을 받고, 마지막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3대 요건은 아브라함, 모세, 아론, 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혼자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출생한 지 8일 만에 반드시 양피(陽皮)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바울이 할례를 폐지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역대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멧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대제사장, 곧 주님이 산 제물이 되어 단번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했으나, 신약시대에는 자유의 율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즉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은혜(성령)를 받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이 필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자유의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치 갓 쓰고 구두를 신은 것과 같은 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할 일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셔서 새 하늘나라를 이루시려면 땅 위에 일정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여건이 곧 마귀의 소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땅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마귀가 발등상 되기까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여건을 만들 자가 필요합니다. 이 마귀를 발등상 시키기 위한 군대의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 군대의 수가 차

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자란 이를테면 이 하늘군대를 완성해야 할 존재이며 또한 앞으로 이들의 참모장 격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적과 싸울 때 무장을 갖추지 않고 알몸으로 적진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그를 미친놈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일정한 무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마귀를 이긴다고 외쳐 봐야 마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와는 달리 지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런 중무장을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 군대도 일선에 나가려면 적어도 일정 기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군도 일정한 훈련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특이합니다. 즉 하늘의 군대가 되려면 반드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주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래에 와서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란한지 아십니까? 온 세상의 주를 모신 이긴자가 나타나면, 온 세상의 이목(耳目)이 쏠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뉴스의 초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용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다른 데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만은 그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주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정기(精氣)가 얼마나 깃들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넉넉잡고 4주 동안만 나와서 듣고,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데가 있으면 항의하십시오.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 58:12) 이 말씀은 당시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역사에서도 바로 같은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할 때, 이 역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만 주십시오. 남을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상 중에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고 전해라.”(겔3:11) 전해도 듣지 않는 것은 본인의 탓이지만, 전하지 않는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혼자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 4)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일어난 큰 사건의 하나이므로 널리 알려져 영화로도 상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

다. 이 두 성읍의 멸망은 저 노아의 대홍수 이후 두 번째로 나타난 여호와와의 진노로,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와의 또 다른 일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과는 정반대인 진노의 하나님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 밖에 났을 때에는 거기 따르는 응분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당황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설사 이 성읍이 죄로 물들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의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면,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도 내리려던 진노의 형벌을 보류하시려니 싶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즉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취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간곡히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는 소돔 성중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계속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이 의인의 수는 45명으로 줄었다가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들을 보아 죄인들을 멸하지 않겠노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나, 실상 의인은 10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대화에서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의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여호와를 성실히 섬기는 선량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의인은 못 됩니다.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전이므로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시14:30)라고 말한 것은 이를 가리킵니다.

의인이란 요컨대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의 편에서 싸울 수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사실 구약시대는 이런 독신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90세가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결국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 모양이니, 딴 사람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구약시대의 의인은 여호와께서 바라는 진실한 의인은 못 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주의 피 권세로 말미암아 주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롬5:19)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형적(典型的)인 의인으로 ‘감람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온 세상의 주를 모신 자’(숙4:14)라고 했으며,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이긴자란 바로 이 감람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긴자란 주의 피로 깨끗이 씻어 세운 의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어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그 일가를 구하기로 하셨습니다. 롯은 불법을 행하는 자나 음탕한 자들의 행실로 인해 괴로워한 의로운 사람이기도 했으나,(벧후 2:8) 이보다도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롯과 그 일가로 하여금 몸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었습니다. 롯은 낯선 사람(천사) 둘이 나타나자 엎드려 절하고, 집에 들어가 발을 씻고 폭 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은 두 천사는 처음에 성문 밖에서 밤을 새려고 하다가 롯의 간청에 못 이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은 이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낯선 이방인이 성문밖에 어른거리기만 하면 문지기가 곧 문 안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롯이 웬 낯선 사람들을 공손히 맞아들였다는 소식이 문 안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저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인즉 어떤 수상한 놈들이 성안에 들어와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롯에게 물려가서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저들을 손보겠다고 버르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겁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조금이라도 화가 미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롯은 다급한 나머지, 정혼만 하고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은 자기 딸을 대신 제공할 터이니 이분들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호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롯에게 대들며 대문을 마구 부수려고 하므로 두 천사가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

어서 저들은 문을 찾느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동틀 때 천사는 롯에게, 소돔성이 죄악에 빠져 여호와와의 진노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으니 가족들과 함께 피하라고 일렀습니다. 롯이 꾸물거리므로 천사는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이를테면 강권을 발동한 셈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호와께서 베푼 은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평소의 움직임이 착하여 공흠을 베풀려는 자에게는 억지로라도 공흠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천사는 롯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산으로 도망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롯은 근력이 달려 가까운 성으로 피신하기를 원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롯은 힘껏 뛰느라 아내가 뒤에 처진 것도 돌아보지 않고 가다가, 성에 이르러 비로소 아내가 미처 도착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집에 두고 온 물건들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 되돌아가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래 소돔 일대에는 암염(巖鹽)과 역청(콜타르)과 유황이 많았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온통 흔들자 땅속에서 내뿜는 용암과 함께 이것들이 한데 엉겨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하늘에서 마치 유황불의 비를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금기가 깃든 이 ‘비’가 롯의 아내를 덮쳐 소금 기둥으로 굳어 버린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는 먹고사는 데 필요한

일용품이 소중하다고 여긴 데서 비롯된 재앙이라고 하겠습니다.

## 5)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기 드문 미인이요, 내조자로서 오랫동안 동고동락(同苦同樂)해 온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정상 있을 법한 일이기는 합시다마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의아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일찍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직접 간접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을 받아 왔으며, 아내 사라만 하더라도 한평생 영화를 누리다가 127세라는 장수를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죽음을 그렇게 애통하게 여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찮은 우리네도 영생을 믿으므로 혈육이나 측근이 죽었다고 해서 울고불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알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비탄에 잠기다니, 도무지 알고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것처럼 슬퍼했을까요? 그는 남달리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영의 세계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 영을 모르다니?” 하고 의문을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데서 오는 충격이었습니다. 죽으면 그만,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구나 하는 절망감은 믿음 가운데서 얻게 마련인 소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신앙관은 빈약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 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한평생 편안히 잘 살면 된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잘못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육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역대 하나님의 종들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수준을 별로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치에 대해서는 성경에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창20:7) 그런데 하늘나라의 서열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 (고전12:28)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선지자보다 서열이 앞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 세우시고, 영적으로는 선지자의 위치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요10:8)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주님의 피 권세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막히며, 따라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주의 보혈의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리로다.”(시 16:10-11)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많은 선지자나 성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 구약시대 성도들의 무덤이 열려 승천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마27:52) 주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마19:30)는 말씀은 이와 같이 성도들의 서열에 변동이 있을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한 자의 서열이 나중 따르는 자보다 뒤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행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요14:12)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그 사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분은 주께서 못하신 일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모세의 그것보다 더 크게 본 것도(고후3:7)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죽어 가는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나 교사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나 사사를 통하여 은총을 받은 사람

보다 훨씬 앞서기 마련입니다.

## Chapter 06.

# 어린 양 이삭



### 1) 믿음과 순종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나 예고한 말씀 그대로 소돔, 고모라의 두 성을 멸하는 것을 목격하고, 악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 여호와를 더욱 두렵게 섬겼습니다. 또한 나이가 이미 백 세나 된 자기에게 역시 예언 그대로 아들을 낳게 하신 여호와와 크신 권능과 특별한 은총에 감격하였습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애지중지하며 고이 기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젖을 떼는 날을 기념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자리에서 여종 하갈의 소생인 열다섯 난 이스마엘이 시기하여 이삭을 조롱하므로, 사라가 하녀의 자식으로 감히 무슨 건방진 수작이냐고 아니꼽게 생각하여,



남편 아브라함에게 당장 그들 모자(母子)를 내쫓으라고 성화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서는 비록 여종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어엿한 자기의 핏줄이므로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해 심히 번민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사라를 두둔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들도 네 씨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창21:12-30)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눈을 피해 이튿날 새벽에 떡과 물을 주고 하갈로 하여금 정든 집을 떠나게 했으며,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애굽인 아내를 맞아서 자손을 두었으니, 이들의 후손이 곧 오늘날 석유 파동으로 유명한 아랍 국가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로 거치는 자를 제거하여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점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으므로, 이삭은 부친의 사랑을 이스마엘보다 백 배나 더 받아 귀염둥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당신에게 번제(燔祭)물로 드리라고 일렀습니다.(창22:2)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절초풍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은혜 체험에 의해 믿음이 독실해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백 세에 얻은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이튿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이삭에게 목욕을 시

키고 새 옷을 갈아입힌 후, 하인 두 사람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 먼 길을 가면서 마음의 착잡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도, 한편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손으로 하여금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번성케 하리라던 언약을 상기하였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대가 끊기는데, 그렇다면 여호와와의 언약은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이삭을 처참하게 불살라 죽이실까? 그럴 리가 없겠지.’ 아브라함은 이 생각 저 생각이 수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이삭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시치미를 떼고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두셨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보여 주신 장소에 단을 쌓고 장작을 엮은 다음, 아들을 결박하여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여느 자식들 같으면 아버지에게 항의하여 도망칠 테지만,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묵묵히 몸을 내맡겼습니다. 과연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딱 감고 칼을 들어 아들을 찌르려는 순간, 천사가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실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22:12) 하나님의 사

자가 말했습니다.

## 2) 주님의 그림자로서의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신앙 척도를 시험하신 데 그치지 않으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의 역할을 하여 일단 단상에 제물로 오른 이삭은 바로 주님의 그림자로서,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보내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라고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말하자면 감람나무가 많아 감람산이라고 불렀는데,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대하3:1\)](#) 이 감람산 중턱에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주 받은 바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갈3:13\)](#) 죄인이 달리는 형틀을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저주받은 자’요 ‘인자’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8:5\)](#)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한 대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또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사53장 참조\)](#) 주께서 이와 같이 천

사보다 못한 존재로 속죄의 제물이 되지 않으면 죄에 빠진, 저  
주받은 인간을 구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주님의 얼굴은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닮았으나, 진정한 주님의 얼굴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하  
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마17:2) 감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  
것은 주께서 땅에 계실 때 평소에 각별히 가까이한 세 사람의 제  
자, 베드로와 야고보 및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를 상대로 이야기를 나누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 세  
제자는 이상 중에 잠깐 눈부신 주님을 보았고, 또한 구약에 나오  
는 모습 그대로의 지팡이를 짚은 모세와 약대 털옷에 가죽 띠를  
두른 엘리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된 주의 피는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죽음은 이른  
바 많은 성현(聖賢)들의 죽음처럼 흠으로 돌아가 버리고, 생전의  
가르침이 우리의 정신적인 유산으로 남아 있어 수시로 우리를 일  
깨워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께서 흘려주신 피는 산  
제물이 되어 오늘날 우리 죄를 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실(眞實)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  
으면 짐승(송아지, 양, 비둘기)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사함을 받  
았지만, 이들 제물 자체의 피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사  
는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 산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저지른 죄를 완전히 씻어 소멸시키는 길이 열렸으며, 따라서 구약시대처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께서 산 제물이 되었으니 아무나 교회에 나가 앉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6:53) 주님이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었다고 해서 교회 문을 드나들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물론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과 피는 무엇을 가리키며, 또 어떻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단 말입니까? 이 살과 피가 문자 그대로 주님의 육적인 살과 피가 아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천 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의 살과 피를 지금 먹고 마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살과 피는 죄를 씻는 생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눅13:1) 따라서 이 생수를 받는 것이 다름 아닌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오늘날 이긴자를 통해 불과 생수와 이슬로 내리고 있습니다.(계21:6-7)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는 그대로이며, 이와 같은 하늘의 은총은 아무 때나 그리고 어디서나 내리

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잘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초등학교 수준밖에 가르칠 수 없는 선생에게 가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을 졸업한 학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키워 나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목자의 권능과 영력(靈力)이 양떼를 어느 단계까지 인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양(量)보다 질(質)을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시들한 만 명보다 믿음이 독실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 Chapter 07.

# 승리자 야곱



### 1) 12지파의 형성 과정

인류의 역사는,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체계를 갖고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믿음의 조상을 내세우시고,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형성케 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따로 선정하시고, 율례와 법도를 마련하셔서 그 백성들의 언동을 규제하시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주께서 12사도를 세워 하늘의 법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 후로 교회라는 조직체를 통하여 오늘에 이르

기까지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대로 앞으로 형성될 영적 이스라엘의 치리(治理)도 12지파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계7:5-8)

여기서 잠깐 육적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그랬듯이, 아들 야곱도 여호와와의 특별한 축복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즉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미 늙었고 잉태하지 못하였으나, 이삭의 간구가 상달 되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태속에서 서로 싸우므로 견딜 수가 없어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이상 중에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창25:23)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우가 형을 물리치고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아 크게 번성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리브가는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형은 에서요, 아우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란 히브리어로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이며, 이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서는 성격이 우락부락하여 사냥을 즐기고 야곱은 천성이 온순하여 가사를 돌보았으므로, 에서는 자연히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몹시 시장한 김에 마침 야곱이 먹으려던 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농담 삼아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창25:31)고 했더니, 에서 는 시장기를 채우려는 생각이 앞서 장자의 명분을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여호와와의 축복이 담긴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중대한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야곱은 이렇게 해서 넘겨받은 장자의 명분을 아주 자기 것으로 완전히 굳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머니와 짜고 눈이 어두워진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까지 형 에서에게 주려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즉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라. 네가 형제들의 주(主)가 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창27:27-29)는 이삭의 축복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장자인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간계이든, 속임수이든 일단 이와 같이 축복을 따내면 그만이며, 결코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고, 야곱의 소행이 하도 괘씸하여 야곱을 죽여 버리려고 했으나,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고 있는 몸이라 이미 형 에서는 그의 적수(敵手)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다시 야곱을 불러,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을 취하도록 일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겐 혈통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어 들을 베고 누워 자다가 꿈에 본즉, 웬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서 야곱에게 이렇게 언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28:13-15)

그는 잠에서 깨어나 자기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진’임을 알고 거기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는 것에서 십분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아뢰었습니다.(창28:22)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 중에서 눈에 충기가 없는 언니 레아보다 얼굴이 한결 아름다운 라헬에게 마음이 쏠렸습니다. 그는 7년이나 봉사한 끝에, 동생을 먼저 시집보낼 수 없다는 외삼촌의 말에 따라 결국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창29:18-26 참조) 다시 7년 동안 더 봉사하기로 하고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야곱은 두 자매를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전처인 레아는 아들을 넷(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이나 낳았으나 후처인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질투심에

불타 야곱에게, 왜 언니만 사랑하느냐, 나도 아이를 낳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고 으박질렀습니다. 야곱이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대답하자, 라헬은 야곱을 자기의 몸종 빌하와 동침케 하여, 아들 둘(단, 납달리)을 낳게 되었고, 라헬은 자기가 언니와 경쟁하여 분풀이를 했노라고 자못 으스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기 시녀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 이들 사이에 또 아들 둘(갓, 아셀)을 얻게 했습니다.

이후에 레아는 다시 아들 둘을 낳았는데 다섯째가 잇사갈이요, 여섯째는 스블론입니다. 이어서 라헬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가 유명한 요셉(‘여호와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간 후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아(창35:17-18) 도합 12지파의 시조가 여호와와 뜻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즉 야곱이 거느리게 된 네 아내 중에서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블론이고,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이며,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 도합 12명이 그들입니다.

## 2) 이스라엘의 유래

우리가 야곱의 행적(行績)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은혜를 받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를 함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갖은 간계를 다 부려 형 에서에게 내릴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배고파 허덕이는 에서의 허(虛)를 찢러 팔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슬쩍 앗아가는다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에서에게 주려는 그의 축복을 가로챌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세상에 이런 후레자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급한 사람은, 그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의와 불법을 권장한다 말이나고 항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로 볼 때에는 지당한 말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법도와 일반 성도의 도덕 사이에 서로 부합되지 않는 일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풀이하면 실망과 의혹이 앞서고 때로는 자기 나름의 의분 같은 것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은 앞에서도 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창25:23 참조)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큼 귀중히 여겼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불리 야곱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해당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경우는 주님 당시의 극성스러운 중풍 환자라도 다른 것입니다. 즉 주께서 병을 고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

을 입증하실 때, 주위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 붐비므로, 어떤 중풍환자는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려와 축복 받고 병을 고쳤습니다.(막2:4) 그가 남의 집 지붕을 뚫은 것은 분명히 파괴 행위이지만, 주께서는 오히려 그의 극성을 너그럽게 보아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야곱만큼 하나님 제일주의로 생활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형 에서와 화해하러 가는 도중에, 압복 강가에서 이상 중에 천사와 씨름하여 환도뼈가 휘도록 안간힘을 다해 이겼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창32:25) 여기에도 우리는 야곱의 ‘극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겨뤘다 하여 이긴자, 곧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창33:28)

야곱의 특수한 성격의 하나는 ‘적극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네 사람의 처, 첩을 통하여 아들 열둘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야곱의 경우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이 많은 처첩을 거느리는 것을 묵인했을 뿐더러 때로는 강요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런 강요된 케이스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크게 들어 쓰신 일꾼은 거의 다 많은 처들을 거

느렸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분은 이런 점을 들어 기독교를 공박하고 하나님을 등지는가 하면, 한편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곡해하여 자기가 저지른 음란죄를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종의 치외법권(治外法權)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바울의 말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고전2:15)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만한 특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느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서 법도에 매어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나 나나 마찬가지로 아니냐?’는 인식을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런 점은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대통령도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과는 판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첩을 많이 거느리는 데는 하나의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인정된 일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물론이고 처첩을 거느린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미리 그런 육적인 축복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왕상3:13)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반드시 어떤 언약을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가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한 짓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견책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자기의 정욕에 못 이겨 우리아의 아내

를 취했을 때 다윗의 소행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아들을 잃어야 하는 하나님의 견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삼하11:27 참조\)](#)

한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인을 멀리하고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분부나 자의에 의해 그렇게 되는데, 전자의 예로서 예레미야를, 후자의 예로는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당시의 환경과 여건이 아내를 거느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Chapter 08.

### 총리 요셉



#### 1) 그는 하나님이 키웠다.

12지파를 이룬 야곱의 아들들은 장성하여 각각 자기 분깃을 차지하고 개성대로 치리해 나갔습니다. 이들 열두 아들 중에서 야곱이 제일 아낀 것은 늘그막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들의 됃됨이와 행동거지(行動舉止)를 유심히 살펴볼 때, 요셉이 제일 총명하고 또 성품이 선량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마음속으로 요셉을 자기 유업을 이을 후계자로서 점찍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창37:3)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은 은근히 요셉을 백안시(白眼視)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17세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저들의 비행을 부친에게 고해바치자, 저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여 언동이 자못



거칠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기가 꾸 꿈까지 동원하여 형들의 기세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내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아 글썤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중심으로 뱅 둘러서서 절을 하지 않겠어요.”(창37:6-7)

이런 맹랑한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들은 이구동성으로 요셉에게 대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세상에 그 따위 꿈이 어디 있던 말이냐? 그래 네가 우리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단 말이냐?”

이것은 요컨대, ‘그건 엉터리 꿈이다. 도대체 아우가 형들을 다스리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항의 겸 위협이기도 하였습니다. 며칠 지나 요셉은 또 다른 꿈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아, 저 해와 달과 열한 별들까지도 나한테 절하던 걸요.”(창37:9)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도 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했으나, 아버지 야곱은 그의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겨 두었던 것입니다.(창37:11)

하루는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을 잘 기르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일렀습니다. 이때 이들은 이미 거처를 도단으로 옮긴 후였습니다. 요셉이 길을 물어 도단에 이르자, 형들은 요셉이 찾아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쑥덕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신령한 꿈을 꾸다는 녀석이 오는군 그래.”

“이 기회에 아주 없애 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목을 비틀

어 구덩이에 던지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그만  
아냐?”

이때 말형 르우벤이 말렸습니다.

“피까지 흘릴 거야 뭐 있냐. 그냥 구덩이 속에 던져 넣은 정도로 그치는  
게 좋겠다.”

르우벤은 요셉을 저들의 손에서 건져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흙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윽고 유다(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가 형제들에게 이  
렇게 제의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의 피를 흘려서 유익할 게 무어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  
아 버리자.”

이리하여 요셉은 이방인에게 은 20냥에 팔렸다가, 다시 애굽에  
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행적을 이렇게 죽 적어놓고 보면 이런 이야기는 당시에  
흔히 있을 수 있던 가정불화의 한 토막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배후에 여호와와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을 감안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즉 요셉은 여호와와의 섭리 가운  
데 인형처럼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방  
법의 일부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수난(受難)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는 ‘형통  
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창39:2) 그러니 누가 감히 요셉을 건드  
릴 수 있겠습니까?

한편 요셉을 종으로 사간 주인 보디발은 처음에는 요셉에게 잔심부름이나 시키고 별로 탄 일은 맡기지 않았으나, 요셉이 남달리 총명한데다가 자기를 극진히 섬기므로, 집안일을 아주 다 맡기다시피 하였습니다. 요셉은 주인으로부터 그만큼 두터운 신임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 보디발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그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창39:5)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보디발은 여호와의 신이 같이하는 요셉을 가까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시험이 또 닥쳐왔습니다. 요셉의 얼굴이 준수하고 아담하여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하루는 그녀가 요셉의 옷깃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당황하여 윗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뛰쳐나왔더니, 여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이번에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뒤집어씌우고는, 그 옷을 증거물로 삼아 남편에게 고해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노발대발하여 당장 요셉을 묶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그의 신은 옥중에서도 요셉과 같이하여 요셉은 여러 죄수들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자연히 많은 죄수들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 중에는 이른바 정치범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

해서 애굽 왕(바로)을 가까이 모시다가 반역을 꾀했거나, 모략을 당하여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살인이나 절도 같은 죄로 감옥에 끌려온 이른바 흉악범보다 이들을 더 가까이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궁중의 여러 가지 법도며 풍습 같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은 요셉에게 학교나 다름없는 구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여호와께서 장차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용하기 위한 정지작업(整地作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요셉의 환경을 바꿔가면서 이와 같이 연단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하늘에서는 요셉이 바로에게 선(線)이 닿도록 주선하였습니다. 즉 바로의 측근에서 일하던 두 관원장(官員長)이 잘못을 저질러 요셉이 갇힌 감옥으로 들어와서 요셉과 가까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므로 요셉이 까닭을 물었더니, 웬 꿈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풀어 사흘 후에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옥에서 풀려날 것을 알아맞힌 것이 계기가 되어, 이 관원장의 주선으로 왕의 괴상한 꿈을 풀이하기 위해 바로와 접선이 되었습니다.(창40:8-참조) 이것은 물론 요셉을 야곱의 열두 지파 중에서 제일 큰 인물로 들어 쓰기 위해 여호와께서 왕의 측근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쓰시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일을 두고 연단에 연단을 거듭한 후에 비로소 등용하게 마련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원리는 고금을 통하여 시종일관(始終一貫)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경우를 두고 보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옥에서 데려다가 해몽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창41:16) 즉 왕의 꿈을 푸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기 해몽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의 신이 자기 안에 거하여 신령한 해몽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으로 판단하면 무의식중에 여호와의 일을 가로막기 쉬우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모세를 비난한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들 판에는 당연한 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하늘의 일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세에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세 덕분에 하늘에서 귀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세를 비난했을 때 하늘의 은혜줄이 끊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죄로 여호와의 벌을 받아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아론이 보고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민12:12) 아론이 기도

해 봤자 응답이 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여느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이런 하늘의 이치를 잘 모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도 우습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도 하루 세끼 밥 먹고사는 사람으로, 언뜻 보면 조금도 별스럽지 않습니다. 학식으로 치면 당대의 학자를 따를 수 없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고결한 사람은 오히려 산 속에 묻힌 고승(高僧)들 중에 많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군자(聖人君子) 하고도 다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바탕이 선한데다가 땅에서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성령과는 인연이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크신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들어 쓰시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우선 그가 당신의 뜻대로 잘 움직여 줄 것을 원하십니다. 한편, 하나님의 종 역시 무엇보다도 이 뜻에 충실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소임을 다하느냐, 다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이러한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도 인간이라 약해질 때도 있고, 또 육의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이상 범죄에 빠질 수 없으며, 따라서 그의 말과 행동 등은 의롭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

상의 소위 도인(道人)들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지상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씨가 아무리 곱고 행실이 착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인간은 선에 엄격할수록 죄인임을 더욱 깨닫게 마련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마19:17) 또 주님 자신도 육을 갖고 계신 이상 그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세상적인 도인에 그친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도덕으로 격하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세상 모럴(도덕)을 척도로 하여 기독교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고전2:15) 기독교는 구령(救靈)의 도요, 생명의 길이므로, 모럴에 그치지 않고 이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 2)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상고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印章)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창41-42) 인장 반지란 임금의 도장으로 쓰는 반지, 즉 옥새(玉璽)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넘겨준다는 것은 왕이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이방인에게 이런

대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 세마포 옷은 ‘굵은 베옷’과 대조를 이루어, 전자는 경사스러울 때 입고, 후자는 비통할 때 입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의 아내는 빛난 세마포 옷을 입으며(계19:8) 두 증인이 마귀가 득세하는 1,260일을 예언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바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고치게 하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켰습니다. 이를테면 창씨개명(創氏改名)을 하여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신이 충만한 요셉이 이런 울무에 걸려들 리가 만무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더욱 공경하여, 두 아들의 이름까지도 신앙과 관련시켜 지었습니다. 즉 장자는 하나님께 자기의 고난과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잊게 했다고 해서 ‘므낫세’라고 부르고, 차남은 하나님이 자기가 수고한 땅에서 영화를 누리게 했다고 해서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애굽 총리로서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고국 형제들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에 이르러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모해(謀害)로 말미암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갓은 시련을 겪은 끝에, 드디어 총리의 중책을 맡은 뒤로 7년이 지났습니다. 때마침 온 땅에 흉년이 들어, 가나안에 살고 있



던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애굽 정부에서 모아둔 비축미(쌀)를 사 오도록 일렸습니다. 그리하여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 열 명이 나귀에 돈과 금은보화를 싣고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인 아우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줄은 전혀 모르고 요셉의 형들의 말대로 짐승이 잡아먹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창37:33 참조)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아우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형들을 대뜸 알아보고, 17세 소년 시절에 꾸 꿈, 밭에서 형들과 추수할 때 자기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엎드려 절하던 것을 상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20여년 만에 형제간에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우는 애굽을 주름잡는 재상이요, 형들은 식량을 구하러 와서 그 앞에 고개 숙인 이방인으로서, 아우 요셉은 남의 눈이 아니면 한바탕 얼싸안고 영영 울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일국의 총리로서 위신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여 짐짓 시치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웬 사람들인고?”

“네, 가나안에서 청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보아하니 정탐꾼 같은데.”

요셉은 판전을 부렸습니다. 저들은 당황하여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올시다. 저희들은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한 걸. 얼굴들이 비슷비슷하군 그래.”

“저희들은 모두 열두 형제로,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남아 있고, 또 동생 하나는 온데간데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온데간데없어진’ 동생은 물론 요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으로 사뭇 울먹이던 요셉은 특히 아버지 야곱의 소식을 듣고 복받치는 눈물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체 내색을 하지 않고 여전히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면서, 친동생 베냐민을 불러들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처럼 궁지에 몰리자 저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한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아서 싸지. 같은 핏줄인 아우를 생매장해 버리려다가 이방인에게 아주 팔아 넘겼으니.”

“그때 요셉이 얼마나 우리에게 애걸했는지 몰라. 그런데 어찌자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내가 뭐랬어. 죄 짓지 말라고 하잖았어?”

르우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 자기네 말을 알아듣지 못할 줄 알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말을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기이한 상봉 앞에 어리둥절하고, 또 형들을 측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복받치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어 잠시 몸을 피해 실컷 울고 나서 그들 앞에 나타나, 시므온을 볼모로 삼아 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라고 일렀습니다.

이리하여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배가 같은) 베냐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함께 온 형들과 베냐민을 총리 관저에 안내하여 진수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저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나서, 친동생에게 말을 건네었습니다.

“네가 베냐민이냐?”

“네”

“하나님께서 네게 특별히 축복을 베푸시기 바란다!”

요셉은 목이 메어 안방에 들어가 마냥 울고 나서, 다시 나타나 이들과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총리의 관저에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자리를 같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좌석을 두루 살펴보니 맏형 르우벤에서 시작하여 나이 순서대로 앉아 있을 뿐 아니라, 막내 베냐민 앞에는 음식이 다섯 곱절이나 더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집안 사정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한편 요셉은 늙은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나머지 하나의 간계를 생각해 냈습니다. 즉 아무래도 형제들에게 그냥 말로만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일러서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형제들의 나귀에 양식을 잔뜩 실어 보내게 하고는 베냐민이 몰고 온 나귀 등에 실은 쌀자루 속에 자기가 애용하던 은잔을 슬쩍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이것을 트집 잡아 인질(人質)로 베냐민을 잡아 두고 아버지를 꼭 데려오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꾸민 각본(脚本)대로 베냐민이 인질로 잡히

자, 다른 형제들은 걱정이 태산 같아 요셉 앞에 하소연 했습니다. 된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요셉을 잃은 후에 아버님은 크게 상심하다가 막내인 베냐민에게 정을 붙이며 그럭저럭 여생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베냐민이 애굽 땅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보나마나 기절해 버릴 것이 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베냐민 대신 자기를 인질로 잡아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요셉은 복받쳐 오르는 핏줄의 정을 감당할 길이 없어, 주위에 늘어선 측근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비로소 자기 정체를 밝혔습니다.

“내가 바로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이오. 아버님이 그저 살아 계시다니.”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크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직 5년은 흉년이 더 계속될 테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남기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요. 어서 아버님께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오.”(창45:2-13)

이 이야기가 궁중에 알려지고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왕은 옷과 나귀를 보내어 야곱 일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한편 야곱은 이미 짐승의 밥이 된 지 오랜 것으로 알고 있던 요셉의 소식을 전해 듣고, 하도 꿈같은 이야기라 몇 번이나 까무러

쳐 정신을 잃었다가 소생하여,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다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 지시하였습니다.

“내가 거기(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창46:3-4)

야곱은 한 가족 70명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서 아들 요셉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로 20여년 만에 이루어진 부자(父子)간의 상봉(相逢)이었습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창46:30) 이 말 한마디가 당시의 야곱의 모든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3) 선지자의 최후

아들 요셉과 그야말로 극적으로 만나게 된 야곱 일가는 바로의 주선에 따라 고센 땅에 집단 이주하여, 그 혈통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생업을 얻고 번성했습니다. 이리하여 야곱은 애굽 땅에 거한 지 17년이 지나, 그러니까 그의 나이 147세에 병들어 죽게 되자, 요셉을 불러 자기가 죽으면 조상들의 뼈가 묻힌 가나안 땅에 묻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올 것이다.”(창46:4)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

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을 데리고 부친 야곱(이스라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다음 축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들의 머리에 아버지의 축복의 손길이 얹힌 것을 보더니, 당황하여 “아버지, 그게 웬 일이십니까? 이 아이가 장남이니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고 축복해 주십시오.”하고 말했습니다. 오른손에 더 강한 축복이 나가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형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의 장남과 차남, 그러니까 큰 손자와 작은 손자를 잘못 알고 헛짚은 것이 아니라, 축복이 가는 경중(輕重)에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아우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더 크게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아이를 통해서도 한 족속이 이루어져 크게 번성되겠지만, 아우 쪽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한 야곱 자신도 차남(次男)이지만, 그 후로도 하나님의 큰 종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차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은 대를 이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한다.’(창9:27)는 노아의 축복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백인(白人)들에게 그대로 응해져 번성을 거듭해 왔으

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창27:29) 하고 야곱에게 준 이삭의 축복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열두 아들을 한 자리에 불러 앉히고, 각자의 믿음과 공로와 개성에 알맞게 축복했습니다. 이때 제일 축복을 크게 받은 것이 요셉이고, 그 다음은 유다였습니다. 요셉은 갖은 시련을 극복하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형제들 중에서 공로가 제일 크고, 유다는 우애(友愛)가 두터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 애굽에 팔아넘길 것을 주장했으며, 야곱의 사랑하는 막내아들 베냐민 대신 자기를 희생시키라고 나서는 등 야곱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 열두 형제 중에서 유난히 야곱의 눈에 들어, 받은 축복도 푸짐하기가 비슷했습니다. 즉 요셉은 하늘의 복이 한 없이 내려 “샘 곁의 무성한 나뭇가지가 되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牧者)가 그 후손 중에서 난다.”(창49:22-24 참조)고 했으며, 유다는 “암사자와 같이 역세어 흘(笏)이 떠나지 않고 치리자(治理者)가 되며 … 메시아가 그 후손 중에서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창49:9-10 참조)

야곱이 유언으로 남긴 이 축복에서 미루어 보더라도 이들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권력다툼을 한 것도 수긍할 만합니다. 후일에 일어난 일 중에서 예를 들자면, 다윗은 말하기를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였다.”(시78:67-68)고 하면서, 자신이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유다 지파에 속한 솔로몬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받

아서 이스라엘이 두 조각으로 동강이 날 적에 솔로몬을 대적한 자는 다름 아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시체를 되도록 오래 보존하기 위해, 의사를 총동원하다시피 하여 값진 향료(香料)를 써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데만 무려 40일이나 걸렸으며,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시체를 안장하는 데 자그마치 70일이나 걸렸습니다.(창 50:1 참조) 일국의 국무총리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럴 만도 하지만, 참으로 호화로운 장례(葬禮)라고 하겠습니다. 그 후 요셉도 나이 110세에 죽었으며, 최고의 방부제가 든 석관(石棺)에 넣어 장례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정한 지역(고센)을 차지하여, 이방인의 피를 섞지 않고 크게 번성하면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기세를 떨쳐 오히려 애굽 민족에게 위협이 되자,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애굽에 거주한 이스라엘 민족은 약 300만이요, 장정만 해도 60만이나 되었습니다. 야곱이 권속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와 비교해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은총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로마 시대의 애굽 인구가 700만이었다고 하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번식하고 창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것도 당연합니다.

이들은 애굽의 각 분야, 즉 정부의 관리를 비롯해서 벽돌 굽기



와 농사에 종사하여 언제나 애굽인들을 한 걸음 앞질렀으나, 탄압이 심하게 되자 매사에 기를 펴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일대 수난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입을 모아 울부짖은 호소가 하늘에 상달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세워 이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셨던 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잘못과 또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우상 숭배)으로 저들은 오랜 신고 끝에 여호수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으며, 여기서 열두 지파는 각각 분깃을 부여받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도자(領導者)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업신여기고 자주 침범하므로, 여호와께서는 이를 막기 위해 약 300년 동안 사사를 내세우고 당신의 백성을 치리하게 했습니다.

이 사사들은 그때그때 각 지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옷니엘, 에브라임 지파의 드보라, 납달리 지파의 바락,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 단 지파의 삼손 등—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를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국난을 이겨내는 데 공이 컸으나, 지역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국가를 이루어 유목민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것이, 통일된 민족국가를 세우는 데 하나의 저해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王朝)를 세워 초대 임금으로 세운 것이

사울이고, 사울이 범죄에 빠져 그 뒤를 계승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셋째 임금으로 등극했으나, 이방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르호보암 대에 와서 축복을 거두어, **(왕상12:28)** 이스라엘은 남, 북 왕조로 갈리게 되었으며,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따로 세워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람을 세울 때마다 미리 위기(危機)를 조성해 놓고, 백성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순종치 않으면 벌을 내리곤 했으며, 여기 동원된 것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 변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애굽, 블레셋, 바벨론, 바사(페르시아), 및 로마 제국 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 **(삿13:1)**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축복과 형벌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누누이 당부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상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믿음이 돈독한 수많은 우리의 선인(先人)들은 꿈꾸기만 하고 때를 만나지 못하여 불우한 가운데 온갖 고난을 기꺼이 당하며, 일편단심 주를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때를 만나 순교하지 않고서도 그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 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솔선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역사가 잘되고 못 되는 것은 먼저 부름을 받은 여러분의 손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Chapter 09.

# 장사(壯士) 삼손



### 1) 여호와와의 손길

신, 구약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람을 내세워 택한 백성을 다스리시는 모습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삼손의 행적을 더듬어보고 그 배후에 가려 있는 여호와의 섭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내세워 당신의 백성을 치리하시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보내어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정치, 곧 신정(神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릴 수는 없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다스린다.”(삿8:23)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낸 사사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임금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저들이 죄를 범하자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 주어 곤욕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삿6:1) 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여호와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내세워 미디안에 쳐들어가게 했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이 거느린 장사 3만여 명을 300명으로 줄여서 출정하도록 한 것은 이들이 자기 힘으로 미디안 사람을 쳐부셨다고 자궁하여 여호와의 권능을 저버리지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삿7:2)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실 때에는 언제나 저들이 당신을 공경하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 축복을 내리시고, 반대로 당신을 멀리하여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가면 채찍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에게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에 파시매 …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삿10:6-8)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러 차례 거듭되었습니다.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회개했다가는 죄를 짓고, 이것이 그들이고 또 인간입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회개하여 모든 이방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삿10:16)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측은히 여겨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기로 작

정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참된 회개는 “내가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입으로만 뇌까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회개한 증거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란 마음속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에게 사과하면 되는 것으로 알기 쉽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즉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표시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워낙 연약하여 주님에게 자주 범죄하며, 따라서 누구를 막론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회개가 없을 수 없지만, 자기 뉘우침에는 회개한 줄 알고 있는데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우상을 섬긴 죄로 말미암아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받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증거로 우상을 모조리 치워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이 이방인에게 무참히 당하는 것을 측은하게 여긴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간 블레셋에 붙이셨다가 저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택한 종이 삼손입니다. 그는 단 지파에 속하는 마노아의 아들로, 그의 어머니는 본래 자식을 낳지 못해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장차 하나님의 일꾼이 될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머리를 깎지 말라

고 당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삿13:5) 여기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자이며, 머리를 깎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한 것은 그 머리에 하나님의 정기가 깃들어 크게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이 큰 보배였습니다.

삼손은 천사의 예고대로, 이삭이나 세레 요한처럼,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맨주먹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다루듯 하는가하면, 당나귀의 뼈다귀로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 천 명을 때려눕히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호와께서 삼손과 같이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의 기도에 여호와께서는 즉시 응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삼손이 목이 몹시 말라 하나님께 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우묵한 곳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삿15:19)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을 눈의 가시처럼 미워하는 한편,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을 없애 버리려고 버르는 것이었습니다.

## 2) 삼손과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요새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하므로,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화면에 나타난 아슬아슬한

사건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하기 때문이지, 결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깊은 감동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사랑한 블레셋 여자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동족인 블레셋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 삼손을 꼬였습니다. 즉 돈(은 1천1백 냥)에 팔려, 삼손의 초인적인 힘의 출처를 알아내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해바치는 음모에 앞장섰던 것입니다.(삿16:6) 그리하여 들릴라는 삼손에게 어디서 그런 큰 힘이 나오느냐고 은밀히 물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세 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싱싱한 칠평쿨로 온몸을 동여매면 자기는 힘을 못 쓴다고 속였다가 금방 그 거짓말이 드러나고, 다음에는 새 밧줄로 전신을 결박하면 힘을 못 쓰게 된다고 했다가 또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 나고, 나중에는 자기의 머리칼을 위선에 섞어 짜면 맥을 못 쓰게 된다고 했다가 또다시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들릴라가 크게 화를 내고 토라지는 바람에 삼손은 한참 망설이다가, 그만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즉 내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이 빠져 꼼짝 못하게 된다고 사실대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의 큰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와의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발설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주로 살지 않고 자기 본위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재운 다음 그의 머리칼을 밀어 버렸더니, 하나님의 신은 삼손에게서 떠나고 삼손은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이 이



방 기생을 건드려도 묵인했던 여호와께서(삿16:1) 당신의 감춰진 언약을 이방 여인에게 알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큰 지장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손은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한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삿16:23)고 손뼉을 칠 만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으레 마귀가 가까이하게 마련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노리갯감으로 삼았습니다.(삿16:25) 당나귀 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천 명씩 무더기로 때려눕히던 장사가 하루아침에 손발이 묶여 저들이 두 눈을 빼가도 꿈쩍 못하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손의 비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신도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고, 조만간 손을 쓰셔야 했습니다. 잠자코 계시면 무능한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옥에 갇힌 삼손을 큰 공회당에 끌어내어 꼭두각시 다루듯이 창피를 주자 삼손은 울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블레셋의 모든 방백(方伯)들과 남녀 합쳐서 지붕에만 3천 명 가량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큰 돌기둥에 몸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삼손이로소이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어 마지막으

로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회랑을 풍비박산을 내어 저의 두 눈을 빼간 저들과 함께 저도 그 자리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기도를 마치자 삼손에게 힘이 솟아나 돌기둥이 쓰러지고 지붕이 내려앉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 무더기로 매장되고 말았습니다.(삿16:30)

## Chapter 10.

# 승천한 엘리야



### 1) 그는 왜 족보가 없는가?

엘리야에 대해서는 성경에 꽤 길게 언급되어 있지만, 그 족보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에녹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역사하다가 승천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디셉에서 태어나 길르앗에서 자랐으며, 장성한 후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같이하심을 처음으로 보여준 희한한 권능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한 일이었습니다.(왕상17장, 눅4:25) 그래서 곡식들은 다 말라 버리고 먹을 물도 구하기 힘들 지경이었으니, 그 참상이 어떠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내세워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셨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그 냇

물을 마실 것을 지시하시고, 양식은 까마귀를 시켜 날라 주겠다고 이르셨습니다. 이윽고 그릇 시내가 말라 버리자 여호와께서는 사르밧에 가서 어떤 과부의 신세를 지도록 다시 지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시대로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어떤 과부를 만나, 떡을 한 조각 달라고 청했더니,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자기에게 남은 식량이라고는 다만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뿐이며, 아들과 함께 이것을 마저 먹어 치우고 이제 죽을 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긴 3년 반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으니, 굶어 죽는 사람은 이 가없는 모자(母子)외에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여호와와 능력이 자신과 같이하심을 믿고,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자기에게 주면 여호와께서 다시 비를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할 테니, 염려 말라고 일렀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친 과부에게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언동이 무지한 과부의 눈에도 어딘가 믿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했지만, 죽음을 각오한 마당이고 보니, 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엘리야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같이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과부가 손님을 푸대접하여 당신의 뜻을 펴 나가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기사(奇事)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틀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 버리자, 엘리야가 아이에게 세 번 기운을 불어넣은 다음 “이 아이의 혼을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가 금세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왕상17:21-22)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깨닫고 더욱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 다시 여호와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와를 공경하면서도 이방 신을 섬기는 이세벨의 간청에 못 이겨 바알 신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내세워 이 적대 세력을 무찌를 심산이었습니다.

당시에 엘리야는 나라에 기근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이미 수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사람을 시켜 방방곡곡을 뒤졌으나 엘리야는 이방에서 과부에 집에 숨어 있었으므로 아무도 거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마치 원수끼리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신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의 그의 심정은 마치 모세가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애굽의 바로에게 갈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때마침, 아합 왕과 좌우로 갈라져 짐승이 먹을 물을 찾고 있는 믿음이 독실한 대신 오바댜를 만나 아합 왕과의 면

회를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아합 왕과 엘리야, 두 적수(敵手)는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네놈이 비를 막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엘리야냐?”

왕은 대뜸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당신이 바알 신을 섬기기 때문이오.”

엘리야도 거침없이 한 마디 응수했습니다. 여호와와의 힘을 믿고 있었으므로 네까짓 놈이 왕이면 다냐는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으로서는 엘리야의 이 말이 뜻밖일 뿐만 아니라 실로 웃기는 소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자신도 판에는 여호와를 극진히 섬기는 것으로 자부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아내 이세벨의 간청에 못 이겨 바알 신을 겸하여 섬기기는 했지만, 여호와와의 대한 그의 공경심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큰 기갈이 있게 된 원인이 아합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합 왕의 큰 불찰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여호와를 공경하다니,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와 같이 본의 아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면서,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

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마음이 전혀 거리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하나를 택할 것을 역설하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불러 피차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려 불로 응답하고 안 하는 것으로 그 제사의 참된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아슬아슬 승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드리는 제사에 불의 응답이 없으면 즉석에서 목이 달아나는 판국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살아 계신 여호와와 능력이 사람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모여 목이 터져라고 바알 신을 불러대도 아무 대꾸도 없었으나, 엘리야가 혼자서 드리는 번제에는 여호와께서 즉시 불을 내려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왕상 18:38)

## 2) 불수레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배격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당신이 유일한 신이심을 못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합 왕과 엘리야의 승패(勝敗)는 끝났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는 자칭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이고, 갈멜산에서 땅에 꿰어 엮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를 내려 주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한편 이세벨은 남편인 아합 왕으로부터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는 말을 전해 듣고 노발대발하여 즉시 사자(使者)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제법 도도하게, 내일 목숨을 앗아가겠으니 그런 줄 알라고 사전에 통고했습니다.

엘리야는 얼른 몸을 피해 호렙산(시내산)으로 도망쳐 가다가 기진맥진하여 여호와께 차라리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와 비슷한 간구를 한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민11:15) 주의 종이란 때로는 이런 곤경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결코 이러한 당신의 종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잠깐 눈을 붙이자 여호와께서는 천사를 시켜 떡과 물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한 토굴에서 쉬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자 여호와께서는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뒤흔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왕상19:12)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종을 아끼고 옹호해 주십니다. 이 지진은 여호와께서 궁지에 몰려 약해진 당신의 종의 심정을 동정하시는 표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엘리야를 그냥 방치하면 더욱 약해질 터이므로 “엘



리사에게 뒷일을 물려주라.”(왕상19:16)고 지시하셨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후계자에게 배턴을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여호와와의 뜻이셨습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나중에 나타날 두 감람나무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인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당신이 이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는 광경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마17:1)

하나님께서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말4:5-6)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 예비자로서 엘리야가 온다는 성경 구절만 알고 있었을 뿐, 정작 그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져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지 43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으니 말입니다. 이 430년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과도기요, 여호와께서 하늘 문을 아주 닫아 버리고 백성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암흑기’였으므로,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어리석어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는데, 이런 공백 기간이 있었으니, 엘리야

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한’(마17:12) 것도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임의로 대했다.’는 말은 죽여 버렸다는 뜻입니다.

만일 성경 말씀 그대로 엘리야가 길 예비자로 오지 않았는데, 누가 나타나 내가 구세주라고 외친다면 우선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감람나무가 역사한다는 것이 기록되고, 주께서 두 감람나무의 그림자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 주신 이상, 반드시 모세와 같은 권능을 행사한 이가 나타난 후에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주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양떼들은 ‘양의 문’인 주를 통해 꼴을 먹게 마련입니다.(요10:9) 그런데 한편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긴자가 나타나며, 주께서는 이 이긴자에게 권세를 맡겨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계2:26-27)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 깊은 진리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요14:26)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여러분의 눈과 귀로 분명히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이웃의 교회들을 지나 떠나면 이 꼭대기까지

찾아온 것은 여러분이 이것이 무슨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진리 가운데 서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와 지시에 따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한 후로 엘리사는 줄곧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하늘의 법도를 배우는 동시에, 영의 영도자로서 손색이 없도록 성품을 길렀습니다. 세대교체가 매우 순조롭게 된 것입니다.

한편 엘리야는 자기가 키운 엘리사에게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갖춰지자 자기 갈 길을 마련했습니다. ‘자기 길’이란, 여호와와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가 계시로 미리 보여 주셨으므로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엘리사를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되도록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러한 심정을 알 턱이 없는 엘리사는 여전히 스승을 가까이 모시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승천을 앞두고 엘리사에게 소원이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엘리야의 갑절이나 되는 영력(靈力)이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왕하2:9)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이 정도의 영력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 닥쳐 엘리야를 휘몰아 하늘에 오르자 엘리사는 어리둥절하여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엘리사

가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 물을 쳐서 길을 내어 건너가자 사람들은 엘리야의 영력이 엘리사에게 옮겨온 것을 알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맞아들였습니다. 엘리야의 옷은 승천할 때 벗어두었던 것입니다. 이때 육은 홀연히 영체로 변합니다.

이런 승천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걸쳐 방송국의 전파가 퍼지고 있지만, 그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성령은 멀리 여호와로부터 엄청난 속도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나,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KBS에서 아무개의 뉴스 해설은 몇 시에 어느 채널을 통해 나간다고 미리 예고하여 사람들이 듣게 하듯이, 여호와의 성령은 아무한테나 직접 연결이 되지 않고, 너희가 이러저러한 여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미리 가르쳐 주시고 나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빛으로 비유하여, “빛이 어둠 속에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이 빛은 육적인 햇살보다도 더 빠른 속도입니다. 빛은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인데, 멀리 있는 별에서 출발한 빛은 아직도 우리 지구에 닿지 못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은 이 우주 밖 삼층천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아니 그보다도 더 빨리 지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

로 우리는 그 속도를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와의 권능에 의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께서 행사하시는 여러 가지 능력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만일 모세가 여호와를 정면으로 보았다면 그 강렬한 광채로 인하여 죽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와의 뒷모습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주의 빛을 보고서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와 땅의 차이를 단편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못 보는 것이 없고, 어디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즐거움이나 지옥의 괴로움도 우리보다 몇 백 곱절이나 강하게 느끼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땅의 뉴스를 들으려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것처럼, 하늘의 뉴스를 들으려면 이영수의 입을 통해야 합니다. 이영수가 라디오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뉴스를 모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어봐야 마음이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역사 가운데 접어든 것 자체가 큰 은총임을 알아야 합니다.

## Chapter 11.

# 영화(榮華)의 심벌 솔로몬



### 1) 하나님의 종과 언약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본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 제일주의(第一主義)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시기 때문에 그 간구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자 하나님의 신은 모세에게서 떠났으며,(민20:10-12) 삼손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저버리자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 끊겼습니다. 역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린 종도 없습니다. 그는 인구 조사(삼하24:1)나 우리아의 아내와의 간음(삼하11:4)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했으며, 그 잘못을 크게 뉘우쳐 회개의 눈물이 병에 가득 담길 정도였습니다.(시56:8) 그러므

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당시의 법도와 명령을 아버지 다윗처럼 지킬 것을 당부하셨고, 그렇게 하면 솔로몬도 길이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왕상3:14)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고 나서 아들 솔로몬에게 대를 물려주자, 여호와와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므로 산당(山堂)에서 번제(燔祭)를 드렸더니,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주십사 하고 요구하니, 하나님께서 이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솔로몬이 장수나 재물 같은 세속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일국의 국왕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무난히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사명감부터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남달리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었으며, 이 소문을 듣고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모여들게 되었습니다.(왕상4:34) 유명한 시바의 여왕이 금은보화 등 많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것도 이 때 일입니다.(왕상10:1)

하나님의 역사에서 솔로몬의 업적은 훌륭한 성전을 지은 데 있습니다. 18만의 인원을 동원하여 7년이나 걸려서 준공을 보게 된 이 성전은 당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지은 것으로 한 주일에 걸친 준공식을 겸한 화목제(和睦祭)에 소 2만 2천 마리와 양을 12만 마리나 드렸다는 사실만 보더라도(왕상8:63) 얼마나 성대한 축제였던가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여호와께서

는 흡족히 여기시고 이상 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왕상6:12-13)

그런데 이와 같이 여호와를 기쁘게 해 드린 솔로몬도 여자 때문에 여호와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으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한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열왕 중에서도 으뜸가는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용납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여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지게 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 2)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솔로몬

솔로몬으로 말하면 역대 임금 가운데 영화의 극치에 이른 사람으로, 왕비가 700명이요, 후궁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쯤 되었으니, 말썽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폐단은 이들 이방의 미녀들이 늙은 솔로몬에게 졸라 자기 나라 신(神)을 섬기게 된 일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왕상11:4)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압 후비(后妃)의 간청을 들어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山堂)을 지었더니(왕상11:7) 이번에는 암몬 후비가 샘을 내어 솔로몬에게 즐라 그 가증한 물록을 섬기기 위해 역시 산당을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방 후비들도 질세라 앞을 다투어 왕에게 즐라대므로, 누구 말은 듣고 누구 말은 안 들을 수 없어 또 그렇게 해주고, 이래서 저들은 각자 이스라엘의 궁중에서 자기네 신들에게 버젓이 분향을 하고 제사 드리며 법석을 떨었던 것입니다.(왕상11:8)

이 무슨 꼴불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와 제일주의로 살지 못하고 사사로운 정에 쏠리면, 사단이 틈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남달리 지혜로운 솔로몬이 눈앞에서 야양을 떠는 아내의 감언(甘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를 멀리한 것은 삼손과 들릴라의 경우처럼 큰 실수였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자기 나름의 계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즉 이방 신을 형식상 섬김으로써 이방인들의 환심을 사고 인기를 얻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임금의 위신을 높여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의 오산인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무엇보다도 싫어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이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臣僕)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를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뺨(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왕상11:9-13)

솔로몬은 돌아가신 부왕 다윗의 덕에 자기 당대에 자기 나라를 잃지 않고, 아들 대에 와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남겨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 큰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 정도로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솔로몬이 진작 깨닫고, 자기를 결길로 인도하는 여인을 제거해 주실 것을 하나님에게 간구했던들 국면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끝까지 여자의 꼬임에 빠져 여호와의 기대를 어김으로써 그는 그만 일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께 이러저러하다고 고할 주제가 됩니까? 또 고한들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솔로몬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게 해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성전은 일종의 폐가(廢家)와 다를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 합당치 않은 일에 대해 인정사정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하나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 못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의 어머니도 앓아 계십니다마는, 나는 친어머니의 말도 때로는 매정하게 묵살해 버립니다. 나는 세상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인간에게 칭찬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도,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눅16:15)고 말씀하셨습니다.



## Part 04.

# 진리의 샘



12. 구원에 대하여 · 13. 지(知)와 덕(德) · 14. 이것이 기독교이다 · 15. 음녀(淫女)에 대하여 · 16. 자고(自高)하지 말라 · 17. 교회의 일꾼 · 18. 천년왕국에 대하여 · 19. 우리에게는 전진이 있을 뿐이다 · 20. 이긴자와 '이한 닛' · 21. 인간의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지 말라 · 22. 은혜에 대하여 · 23. 이긴자와 영적 이스라엘

## Chapter 12.

# 구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인간과 교류하신 후로,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형성하여 조직적으로 역사하였으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주의 피로 씻음을 받은 이긴자가 나타나 영적인 12지파를 형성하여(계7:4) 주께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땅의 여건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군대, 곧 14만 4천의 의(義)의 수를 채우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상의 군대 편성을 방불케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복잡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실까요? 여호와와 적수(敵手)인 마귀의 세력을 소탕하려면 그만큼 전력을 가다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하늘의 군대는 마귀를 온전히 무찌를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신, 구약시대를 통틀어 예수의 증

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로, 이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계20:4) 이긴자, 곧 빛나는 세마포를 입게 하는 역사를 담당한 자가 주님의 피 권세에 의해 채우게 되는 하늘의 군대란 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정결한 자들입니다.

한편 여호와와의 적수인 마귀의 편에서도 자기의 진영을 정비하고 대항합니다. 즉 이들 악령의 세력은 위로는 용을 위시하여 짐승, 음녀, 그 줄개인 무수한 사단의 무리들이 역시 조직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각 적수끼리 싸우게 마련입니다.

구약시대에 야곱을 통하여 형성된 12지파를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긴자를 통하여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12지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의 영도자는 모두가 ‘이스라엘’이라는 대명사로 지칭됩니다. 즉 육적인 야곱은 압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휘기까지 천사와 싸워 이긴 후로 여호와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후자는 주의 피로 씻음을 받아 주님의 시험을 이긴 후로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긴자)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구약시대에는 다윗이고,(시110편) 신약시대에는 히브리서의 저자 정도였습니다. 영생에 대해 말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차원(次元) 높은 영의 이야기를 던져봐야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도 바울 신학의 범주(範疇)를 벗어날 수 없

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평신도들이 어떻게 멜기세덱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터뜨리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할례 폐지론’을 들고 나와 외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처음에는 바울의 주장을 잠꼬대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처음으로 멜기세덱에 대하여 설명하여도 비교적 깊은 단계의 말씀을 들어온 여러분이나 겨우 이해할 정도이고, 기성교회의 일반 신도는 물론, 목회자도 무슨 소린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을 한 번 직접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맘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의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나는 다만 성경에 입각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할 뿐입니다.

육적인 12지파의 대표적인 존재인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으나, 영적인 12지파의 제사장인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땅에 계실 때 갖은 수모와 천대를 받은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 죄의 사함을 부분적으로 받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은 십자가에서 몸소 대속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모든 죄(원죄, 유전죄, 자범죄)에 대해 온전히 사함을 받는 길이 열린 것



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씻어 주셨으니, 오늘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천국행 비행기 표를 호주머니 속에 넣은 것으로 알고 마음을 툭 놓고 있는 신도들이나,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많이 보는데, 이것은 속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문을 거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문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요10:8-9)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롬8:9)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주를 주라고 부를 자가 없다.”(고전2:13, 롬10:9)고 했으니 “주여!” 하는 소리가 입 밖에 자연스럽게 나오기만 하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는 소리는 단지 혀끝에서 굴러다니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여!”라는 말을 성령의 감화 없이는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시대는 사도시대로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려면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말한 “주여!”라는 한 마디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부를 수 있었

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행19:2)고 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행2:28) 기도에 의해 성령을 받을 수 있으며,(눅11:13) 설교를 들음으로써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행11:15, 눅24:32) 이 밖에 찬송을 열심히 부를 때,(골3:16) 전도할 때(마10:20)에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으려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경험했을 테니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속하고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손길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안수하여 성령을 부어준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손길이 한 번 닿기만 하면 금세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나가고 있는 성령은 주의 피로 씻어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의 최대 관심사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큰 소망이자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긴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를 잘 믿어 구원 얻자는 것이 신앙을 갖는 목적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긴자가 나타나 역사하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 오늘날에 와서는 적어도 여러분의 소망은 이런 막연한 구원에 그칠 수 없습니다. 하긴,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려면 물론 구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이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영적인 아내가 되는,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구원(계21:2, 7:4-8)과 그 혼인잔치에 초대만 받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데 그치는 구원(계19:9)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구원을 얻되 전자의 경우, 즉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구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큰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고 빼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뜻이기도 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멜기세덱의 반열에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계7:4, 20:4 참조) 오늘날 우리는 다행히 그런 여호와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이며, 또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려는 소망을 갖게 되려면 여호와께서 이런 큰 은총을 베풀 때 그 안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구원

시키되,(요6:40) 이 멸기세대의 반열에 설 수 있는 하늘의 군대를 편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이 군대의 수를 채우는 날에는 마귀가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싸움의 제일 어려운 고비에 부름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현재 하늘의 군대의 수를 채우는 마지막 역사가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것을 ‘작은 날의 일이라고 비웃는 자’(눅4:10)가 있다면 곧 회개하십시오. 마귀는 앞으로 이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점점 더 우는 사자와 같이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야말로 ‘마귀의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영의 무장을 튼튼히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Chapter 13.

# 지(知)와 덕(德)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위대한 사상가도 많고 유명한 과학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생을 학문 연구에 바쳐 큰 공적을 세운 박사나 교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못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남 못지않은 뛰어난 재능이 있으면서도, 겉으로 화려한 출세를 한 동료들의 그늘에서 묵묵히 학술 연구에 종사하여 한 몸을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덕망이 높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들에게 응분의 경의를 표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쓰였으면 하는 일말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릇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유용하게 쓰였을 때 비로소 크게 빛나게 마련입

니다. 그렇지 않고 그 지식이 세상 일이나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노벨상이나 그 밖의 무슨 표창감이나 될 뿐입니다.

도대체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선 “번제(燔祭)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6:6)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보물창고라,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며,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무엇이며, 선과 악이 무엇이라는 해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우주관(宇宙觀)과 인생관 및 역사관, 윤리관 등을 가지려면 우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머리로 짜낸 지식은 고작 우리가 한 세상을 사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道具)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지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참된 지식을 얻는 데 가로 거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휘방하기가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지식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대부분 쥐꼬리만 한 자기의 지식에 만족하여, 큰 지식, 곧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방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요, 세상 지식은 하나의 생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식에 대한 말씀은 그대로 덕(德)에 대해서도 해당됩니다. 즉 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의 덕과 인간의 덕이 그것입니다. 한 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생하여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몸에 배인 덕과, 인간의 힘으로 수도하거나 배워서 얻는 덕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덕이요, 후자는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는 덕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쟁이가 더 고약하다고. 이 말은 물론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에게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덕과 믿는 사람의 그것은 질적(質的)으로 다릅니다. 즉 전자가 말하는 덕은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인간적인 가치평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으며, 인간이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같은 덕이지만, 믿는 자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구원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은혜 가운데 성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의 지름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덕을 세우도록 할 지니”(롬15:2)라고 강조한 것이 바로 이런 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덕은 자기 힘으로 수도에 의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많이 받고 덜 받은 것은 그 사람의 덕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수도에 힘쓰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더구나 산 속에 깊숙이 파

묻혀 경이나 읽고 마음을 맑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범죄를 더하지 않는 것이지, 결코 원죄나 유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안찰을 해 보면 곧 드러납니다.

자범죄는 물론 원죄나 유전죄까지 씻음을 받아 구원에 이르려면 주의 피 권세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덕스럽게 보여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시는 일, 곧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뵈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그 법도 안에서 움직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같이하게 되자 자기의 죄상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전에 잘못 배운 그릇된 지식을 다 ‘똥으로 여겨’ 내버리기로 했습니다.(빌3:8)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가치기준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돌(주님)에 부딪치면 가루가 된다.”(마21:44)는 말씀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가 마음속에 주의 신을 모시면 우선 이와 같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전에는 미처 모르고 있던 죄의식(罪意識)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니, 주를 믿고 주의 피로 죄를 씻을수록 죄가



더 많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수록 자기의 연약함을 느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며, 주님을 의지할수록 은혜를 충만히 받게 마련입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롬5:20)는 말씀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 Chapter 14.

# 이것이 기독교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를 싫어합니다. 그 책임의 일부는 물론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가 더 고약하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도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롬15:2)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가 더 고약하다.”는 이 말은 한편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뭐고 하니, 이 말은 기독교를 수도의 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수도를 중요시하지만,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원죄와 유전죄 및 자범죄에 매인 인간이 그 죄를 주의 피로 씻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종지부를 찍고 눈물과 한숨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소망이나 욕구치고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환상적인 꿈이 아니라, 적어도 믿을만한 이론(말씀)과 체험의 터전 위에서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수도에 그친다면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소와 우양(牛羊)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수6:20-21)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의 일이었으며,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고,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수6:17)는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이까지 죽이고 기생 라합은 건지다니, 여호와께서 너무하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여호와의 뜻은 이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어긋나는 경우를 간혹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물론 여호와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차질이 생길까요?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크신 경륜과 기독교의 원리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시116:15)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겔33:11) 하물며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여호와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당신의 크신 뜻을 위해 작은 희생을 무릅쓴 처사라고 하겠습니까. 그 크신 뜻이란, 전에도 말했지만, 마귀의 세력을 소탕하고 복된 하늘나라를 이룩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난 6천년 동안에 움직이신 모든 역사는 오직 이 뜻을 이루기 위하신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육체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무서운 위력(偉力)을 과시하여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을 두렵게 섬기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가 될 자격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기르려고 하셨으며, 이 경우에 다소의 희생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호와의 부득이한 일이며, 여호와의 본의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렘22:3)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뜻을 모르면 구약에 나오는 무자비한 많은 살육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사정을 도외시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 행적을 헤아리면 기독교 자체를 곡해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상가나 학자들이 기독교를 외면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이런 데 있는 것으로 보아도 저간의 소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도 죄를 저지르면 가차 없이 벌을 내렸으며, 이방인은 마귀의 편에 선 자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서슴지 않고 처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생 라합의 구제에 있습니다. 즉 성내의 어린이까지도 무참히 죽였는데,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의 사자(使者)를 숨겨 여호와와 역사에 동참했다고 해서 살려 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와 역사에서 죄의 유무(有無)나 다소(多少)보다도 여호와와 뜻에 얼마나 이바지했느냐가 더 중요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는 것입니다.” (욘22:30)

만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중이나 도인(道人)들이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속세를 떠나 인적이 끊긴 한적한 데서 그야말로 눈길이나 마음이나 죄에서 멀리 떠나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원의 길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복음은 세계만방에 널리 퍼져, 주를 믿노라하는 자가 너무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가 들어서고 찬송가 소리가 하늘을 진동할 지경이지만, 여호와께서 필요로 하는 하늘의 군대를 별로 찾아볼 수 없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마지막 때 천군의 대열, 곧 멜기세덱의 반차에 서려면 이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가 베풀어지는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몫을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단

정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겔14:10) 이 경우에 선지자 자신은 물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똑같은 죄과의 응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영도자는 자기 일신상의 사정보다 자기를 따르는 양떼들을 먼저 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좋은 본보기를 모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로부터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으나, 자기가 이끌어 온 양떼들을 위해 후계자를 모색해 달라고 여호와께 구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점은 그 권능에 있지 않고 바로 이런 높은 덕성(德性)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때 모세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하나님도 일단 기름을 부어 세운 이상,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당장에 물러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울이 죄를 범하자 후회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삼상15:11) 사울은 모세와는 달리 다윗이 자기 후계자로 등장하는 것을 여러 모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도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신이 몸소 기름을 부어 내세운 사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울 왕에게 격동의 악신이 내리게 하여(삼상18:10) 어느 정도의 시일을 두고 당신의 위신이 별로 손상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서히 세대교체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와의 움직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전과 같은 기분에 따라가는 어린 신앙생활에서 떠나 좀 더 무게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말씀으로 튼튼히 서야 합니다.

## Chapter 15.

# 음녀(淫女)에 대하여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貞節)이 있는 자라.”(계14:1-4) 여기 나오는 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인(自然人)으로서의 구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음녀(淫女), 즉 넓은 의미로 쓰인 음란죄의 대명사(代名詞)입니다. 만일 이 여자를 육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여자는 하늘의 군대, 곧 주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주의 아내로서의 여자요, 또 하나는 음녀로서의 여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계17:1) 이 물은 물론 비유로 사용된 것으로, 이 경우에 어디나 잘 스며드는 물의 성질을 세상에 고루 퍼진 음녀의 해독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



늘날 이 음녀가 얼마나 고루 퍼져 있는가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신문 사회면을 보면 이 음녀가 등 뒤에서 공작을 하지 않는 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음녀는 물질을 통하여 사람들을 꼬이기도 합니다. 상고(상인)들도 대체로 이 음녀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음녀입니다. 돈 많은 유부녀가 곤잘 놀아나고 돈 없는 건달이 자주 걸려들어 심심치 않은 화제를 제공해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 있는 집 도련님들도 곤잘 이 음녀의 제물이 됩시다마는, 이 밖에 권력이나 명예의 등 뒤에까지 음녀의 마수가 뻗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음녀는 특히 신약시대에 와서 거의 마귀의 위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음녀의 행패가 없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가장 판을 친 마귀의 세력은 역시 술객이나 박수 등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바로 앞에서 모세의 이적을 그대로 흉내 낸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계17:4) 이 여자는 물론 음녀를 가리키며, 그녀는 붉은 옷을 입고 그녀가 탄 짐승은 붉은 색갈이며 거기 ‘참람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충신(忠信)과 진실’이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가 탄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은 그 권세가 크게 팽창한 것을 상징하며, 권세를 일시 동안 받아 여호와와 편에 선 의(義)의 세력을 누르는 한 때, 두 때, 반 때의 득세(得勢)를 가리키고 있습니다.(계11:8 이하 참조) 또한 계시록에는 이 음녀를 음란의 도가니였던 바벨론에 비유하여,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부)과 음란의 함수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목격하는 일이므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돈은 일만 악의 뿌리’(딤펴전6:10)라는 바울의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독(毒)이 묻은 돈도 주의 일에 쓸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돈은 유용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고후9:13) 바울이 혼란의 많은 시련 속에서 흡족한 연보를 한 마게도냐 교회의 신도들을 칭찬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본인은 그것을 현명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분도 딱하지만, 하나님께 돈 몇 푼 바쳤다고 해서 자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딱한 유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연보에 인색한 사람보다도 영적으로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보는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종의 낭비밖에 되지 않

습니다. 이래저래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마귀의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엡6:11)고 경고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눅18:8)고 걱정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벰전5:8) 그럴 법도 합니다. 말세가 되면 마귀는 전력을 크게 강화하여 사자처럼 억세어집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서와 같은 한 증거의 성령의 역사는 쉽사리 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날 세 증거(불, 생수, 이슬)의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獅子)의 주 무기가 ‘음녀’ 즉 음란의 올라미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올라미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입니다. 그녀는 언제 우리를 침범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독신으로 있는 것을 위태롭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주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어 자고하지 않도록 은혜의 사슬에 얽매어 두신 것처럼, 나도 주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고민 같은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음녀는 역시 우리의 강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그녀의 도전을 받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일단 항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

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전6:18)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극성을 띠는 이 음녀의 농간에 걸려 쓰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란죄라면 흔히 남녀의 불륜(不倫)을 가리키는 줄 알고 있지만, 이것은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즉 음란죄란 남녀 간에 실제로 부당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물론,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사실 음란한 생각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갈 우려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은 모양도 보지 말라.”(살전5:22)는 말씀 그대로, 아예 생각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는 음녀에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라도 생각에 그런 기미가 보이면 여러분은 음녀가 이미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적신호(赤信號)로 알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 음녀는 세력으로 말하면 용의 다음 가며, 이긴자는 바로 이 시대에 이 음녀를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못 심령들에게 성령을 부여하는 인치는 역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성령의 인을 맞고 음녀를 물리쳐야 왕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 Chapter 16.

# 자고(自高)하지 말라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저마다 주어진 여건 하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 태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한 생애를 마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육적인 것을 더 많이 손에 넣을까를 언제나 생각하며, 또 이런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들에게 영의 세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는 알고고도 하지 않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세계

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행동반경(行動半徑)이 비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드와 모택동이 만나고, 키신저가 비행기를 타고 동서양을 누비고, 우주인이 달나라로 여행을 가더라도 그것은 기껏해야 이 세상의 짧은 한 생애(生涯)의 일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는 일이라면 큰 안목(眼目)으로 볼 때 인간이라는 이름의 개미가 지구라는 첩바퀴를 뱅뱅 도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설사 어떤 사람이 역사(歷史)에 길이 이름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이라면 코 흘리는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지만, 그가 자기 개인의 뜻이나 재능에 의해 남긴 이름이라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는 죽어서 불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름이나 그밖에 어떤 흔적을 세상에 남기는 것을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머리로 짜낸 응졸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어서 끝 날에 반드시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기독교는 지상 최대의 사기 단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수천 년 동안 역사와 더불어 길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을 것이다.”(고전 15:19)라고 말한 바울을 상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금생’을, 즉 이 한 세상을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소망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요, 신앙 체험이 우리에게 입증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괴로운 한 세상은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 위한 교량(다리)의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역사책을 펼치면 거기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철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거리에서 외쳤으며, 한평생 통 속에서 생활한 금욕의 화신(化身) 디오게네스와 그를 찾아가 간 젊은 알렉산더 대왕과의 유명한 대화의 내용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디오게네스의 초라한 행색이 하도 딱하게 보여 도와주려고 “나에게 청이 있으면 말해 보라.”는 알렉산더의 제의에 디오게네스는 “내 앞에서 햇빛을 가리지 말아 달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격조 높은 교훈들이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과 인연이 먼 인간의 언동에 그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콩알만 한 지구에서 잘난 체 복잡거려 봐야 영의 세계에서 내려다볼 때에는 아이들의 장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에 매여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아직도 영의 세계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호화찬란하고 희락이 충만한 영의 세계를 안다면 마귀

의 손에서 노는 이 세상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며, 따라서 세상일에 그다지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인간의 목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으로, (약4:14) 조만간 이 허망한 인간의 허울을 벗고 영원한 복락이 약속된 그 나라로 가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박 아무개요, 어머니는 이 아무개지만, 그 나라에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히7:3) 것입니다. 만일 영의 세계가 유한하다면 거기에는 죽고 사는 것이 있고, 따라서 족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무한한 세계입니다. 가문 같은 것은 자랑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처럼 아무 정승의 집안이니, 아무 원님의 후손이니 하고 뽐내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재미있는 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어른들이 가문이나 출신을 자랑하듯이, 자기 아버지나 형들을 내세워 뽐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야. 선생님들이 모두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꿈쩍 못해.”

“흥, 우리 형 앞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앉으라면 앉고, 얼굴을 똑바로 들라면 들고.”

“뭐? 네 형이 뭔데?”

“우리 형은 사진사야!”



이런 아이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하는 말에 고소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콩알만한 땅덩이에서 복작거리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느끼는 심정이 우리가 아이들의 세계를 보고 느끼는 그것과 방불하실 겁니다. 여러분, 쥐꼬리만 한 걸 코에 걸고 자고(自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간의 큰 안목으로 보아도 그렇지만, 영의 세계에서 보면 다 아이들 장난 같은 것입니다.

## Chapter 17.

# 교회의 일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4:3)

구약시대와는 달리, 특히 오늘에 와서는 여러 가지 교회 사업에 부인들의 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여호와께서 육적으로 역사하였으므로 나약한 여자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특히 현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사회 각 분야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여 일하고 있으며, 교회에서도 여성들에게 많은 일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실제로 부녀자들의 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호와와의 새로운 복음(딤후1:11)을 전할 때, 부녀자들이 그 뒷바라

지로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남편 시중을 들랴, 아이들을 기르랴, 그밖에 자질구레한 가정 살림에 매어 심방 한 번 하려고 해도 시간을 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해도 방 하나 변변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밤에나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면 애가 보채기 일쑤이고, 할 수 없이 이불 속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자던 아이가 깨어나서 울어대어 정신을 빼앗기기 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 기도 합니다.

마귀는 참 악착스러워 좀 잘 믿어 보려고 하면 으레 훼방을 놓습니다. 십일조를 드리기 위해 돈을 떼어놓으면 탄 데 쓸 일이 생깁니다. 마귀가 뒤에서 교묘히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돈을 쓰고 나면 좀처럼 다시 메우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역시 뒤로 미루지 말고 먼저 바쳐야 합니다. 나도 전에 생활고에 몹시 허덕여 봤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흔히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가령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한동안이나 마는혜 가운데 깊숙이 젖어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아이가 속을 썩이거나 남편이 시비를 걸어와 비위를 잔뜩 긁어 놓기가 일쑤입니다. 이때 이것이 마귀의 농간이라는 것을 알고 감정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여 화를 발끈 내거나 맞싸움을 하면, 이젠 여러분이 마귀에게 당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처럼 받은 은혜는 고스란히 쏟아버리고 백지로 돌아가,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은혜 받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쏟았다가는 다시 받고, 받았다가는 또 쏟아 버리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이 여러분의 실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나마 착실히 믿어보려는 사람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처럼 마귀가 괴롭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괴롭힐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조리 자기의 변변치 못한 신앙과 결부시켜, 사사건건 마귀의 농간이라고 자기 나름의 해석을 내리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식구들에게 이런 마귀의 농간이 따르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이런 시험은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도 으레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마귀의 눈에 난 것입니다. 이들은 괜히 교회 일이 싫어지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이럴 때 마귀의 계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쉽지, 실제로 당해 보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의 제일 큰 무기는 뭐니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고하여 이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 이기면 마귀는 단념하고 다른 수법을 쓰게 됩니다. 즉 전술(戰術)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치면

마귀는 또 다른 데를 찌릅니다. 이것도 물리치고 해서, 번번이 이기고 또 이기면 나중에는 마귀가 손을 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환경에 시달리면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세로 적당히 따라가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sup>(마10:38)</sup> 이래서 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단수가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간해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마귀를 피할 생각을 말고 정면으로 대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하면 그만큼 약세에 몰려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때로는 환경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즉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자기 주위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가령 생활 방식을 바꿔 본다든지, 대인 관계를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식구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어디까지나 사랑으로 대하여 그들에게 부덕을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이야 어찌되었든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벌써 마귀의 올가미에 걸려든 것입니다.

나는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누구보다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시험을 무난히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줄곧 연결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나 주께서 나와 같이한다는 생각이 앞서면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와 같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무서운 이상을 보고 기절하여 며칠 자리에 누워 앓았는데, (단8:27) 사도 요한이 다니엘보다 몇 곱절 더 무서운 계시를 보고도 끄덕하지 않은 것은 지켜 주는 성령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의 종도 보혜사 성령이 지켜 주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에덴성회는 한 교파가 아니며, 여느 교회와는 다릅니다. 마귀가 우리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그렇습니다. 즉 마귀는 여러분을 제일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괴롭히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주 체험할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것처럼 미워할까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강하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중에 마귀의 도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반성해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식구만 늘면 일단 부흥한 것으로 알았다가는 오산입니다.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령이 다듬어져 변화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量)보다 질(質)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숫자보다 깨끗한 심령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짐이 무거우면 곧 벗어 동댕이치려고 하고, 상대방의 언동이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토라지는 따위의

성격은 고쳐져야 합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대강령(大綱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미워한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없어도 나만 있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요컨대 주가 내 안에 있으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전력투구(全力投球)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주님이 몰라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눅16:15)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은 물론, 사람에게도 칭찬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역시 누구나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성령이 “공치만 먹고 갈치는 먹지 말라.”는 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감시해야 합니다.

## Chapter 18.

# 천년왕국에 대하여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하여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과 마귀의 마지막 싸움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순교자들과 진실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천국과는 다릅니다.

이 천년왕국은 읽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표현한 말이며, 따라서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천 년이라는 시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곳은 영의 세계라, 세상의 시간관념과는 판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왕국을 하나의 아름다운 성으로 비유하고, 이 성은 어린 양의 아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계21:9-10) 즉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천사에게 이끌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본 거룩한 예루살



렘 성은 눈부신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데, 벽돌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의 신부가 바로 벽돌의 역할을 하며,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14만 4천의 신부의 수가 다 채워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과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이를테면 시아버지 격인 하나님을 평안히 모시려면 14만 4천이라는 며느리 곧 ‘하늘의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적으로 역사하였으므로, 선지자들도 영의 세계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자 그토록 애통해 했으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육적으로 영화(榮華)의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육을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을 모르니까 육을 위주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도 육을 위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흥해를 가르고, 해를 멈추는 등, 이런 이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금세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런 육적인 권능은 그다지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땅의 것을 마귀가 차지한 후로는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는 도구로서 유용할 뿐, 그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진, 선, 미(眞, 善, 美)도 당신의 은총에서 벗어나 단지 인간의 것에 머물러 있을진대, 별로 대견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이 진, 선, 미의 3자를 아울러 거느린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여도 그것

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못 되는 이상, 하나님 앞에 내세울만한 가치는 못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인격이 지닌 가치를 과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때 큰 가치를 갖게 되지만,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데 그치면 신앙 가운데서는 오히려 없느니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눅16:15)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군대’가 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움직임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위해 역사하셨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기 때문에 오해와 독단과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價値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중요시하시는 것도 결국 당신의 원대한 경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땅을 회복하려는 목적의식(目的意識)과 결부되어 있습니다.(행3:21) 그러므로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은 육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종과는 직분상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니 참 문제입니다. 저들은 영의 세계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잘 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계시록의 비밀이 터져 나오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겨루는 2차 전쟁에 매듭을 짓고, 불원간에 3차 전쟁으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이때 주인공은 곧 계시록에 기록된 두 증거자입니다. **(계11:3 참조)** 이들은 마귀가 득세하는 일정한 기간(한 때, 두 때, 반 때)에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 죽음은 아주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서 죽음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죽임을 당한 곳이 역사적으로 큰 비극이 일어난 소돔과 애굽과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을 보더라도, 그 죽음의 성격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죽음은 마귀의 때에 천군(天軍)의 앞장을 선 두 증인이 크게 해침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들 두 증인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주님과 두 증인은 이 땅에 세대를 달리하여 차례로 나타나 영적으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한 일을 이어받은 분이 주님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은 이가 두 증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더욱 온전케 한 것이 주님이고, 주님의 율법을 마무리 짓는 것이 두 증인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의 획기적(劃期的)인 역사이며 매우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

서 주님은 세례 요한과 힘을 합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분 다 성경적인 인물이며,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두 증인도 역시 성경적인 인물이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약 가운데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나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모두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2:17) 이 말씀에서 ‘또’라는 접속사(接續詞)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긴자에게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또 흰 돌’이라 하여, 만나와 흰 돌을 꿰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두 증거자의 사명을 만나의 시대와 흰 돌의 시대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선 증거자는 하늘의 만나를 흡족히 내려 그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무슨 역사이며, 증거자가 어떤 존재인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나중 증거자는 흰 돌을 받아 말씀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증거하는 동시에, 영적으로 다듬어 세우는 데 주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는 데 주력하고, 바울이 주님의 새로운 법도를 선포한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흰 돌의 시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마귀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며, 앞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밖에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소상히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알아야 할 것을 알려 주는 한편, 갖춰야 할 것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부어 주 앞에 다듬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이 그러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마귀와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맨주먹으로 전쟁하러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무기를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6:13)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하나님의 편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온 몸을 전신갑주로 중무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고 성령의 검(말씀)을 손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무장을 시키는 사령관이 바로 이긴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대를 모집하는 기간입니다. 전에는 순교해야만 십자가의 군병, 곧 흰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 순교하지 않아도 흰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요컨대 입혀주는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흰 세마포 옷은 몸에 새까맣게 때가 낀 사람이 입으면 금세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여러분은 현재 때를 벗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썩이기 때문입

니다. 이것은 갓 난 어린애를 안찰해도 몹시 아파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솟덩이는 주의 피가 아니고서는 씻을 길이 없습니다.

이 흰 세마포 옷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입는 예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복 없이는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마22:12) 여러분이 이 에덴성회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오직 이 예복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혼자서 마련하려면 순교하는 도리밖에 없으나, 이 예복을 ‘입게 하는 자’가 나타나면 순교하지 않아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때를 만날 것입니다.

## Chapter 19.

# 우리에게는 전진이 있을 뿐이다



오늘 이곳 개봉동에 또 한 척의 우리 ‘에덴호’가 출범(出帆)하게 된 것을 중심으로 경사스럽게 여기는 동시에, 이 방주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이 단상을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성회가 모든 애로를 헤치고 이와 같이 곳곳에 들어서게 된 것은, 위로는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아래로는 여러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힘써주신 덕택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하늘에서는 이 자리를 유심히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단은 오늘날 가버나움 회당 못지않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제단이 하나 둘 늘어갈수록 좋아하기에 앞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이영수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단은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야 주의 마음에 들까 하는 것이 항상 염려됩니다. 혹시 이 제단을 이끌어 나가기에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나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단이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주의 뜻을 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즉 주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지 알아, 그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주님께 달라고만 했습니다. ‘내가 괴로우니 편히 해 주십시오, 내가 궁하니 풍족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하니 위로해 주십시오.’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풀어 드릴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며, 죽어도 죽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적으로는 물론 육적으로도 보이게 안 보이게 꾸준히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보답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조르기 전에 무엇을 해 드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단은 이를테면 인간개조(人間改造)를 하는 공장입니다. 여기서서는 내가 주 안에 있어야 하고, 주가 내 안에 있어야 합



니다. 그래야 나 있는 곳에 주가 계시게 되고, 주 계시는 곳에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믿음은 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상이나 감정을 버리고, 대신 주의 사상과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우리 거죽은 인간이지만, 속에는 주의 신이 좌정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탈바꿈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거듭난다(重生)고 합니다. 즉 중생이란 내 것을 다 주께 드리고, 주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고 부르는 찬송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개봉동에 또 하나의 제단을 마련한 목적은 이런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일종의 물물교환(物物交換) 시장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내 것을 줘야 상대방의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시장에서도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 — 주고 받기)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와의 거래는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호혜원칙(互惠原則)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값싼 것을 주고 주의 값진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편에서는 것처럼 큰 횡재가 있을 수 없고, 주의 편에서는 그보다 더 큰 선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을 것을 주고 살 것을 받게 되니 말입니다. 성도를 가리켜 ‘빚진 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주께

아무리 깊어도 다 깊을 길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빛쟁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부도수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증수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에덴호’라는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뜻대가 같습니다. 지금은 이 배가 협소하지만, 이 배를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 이곳 개봉동 일대의 어둠을 환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장과 선원의 호흡이 맞아야 합니다. 즉 선장이 뱃머리에서 그때그때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 따라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선원들도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선장은 오른쪽으로 키를 돌렸는데, 선원들은 왼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있으며, 사나운 파도가 우리 배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는 잠시도 마을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모든 적대 세력을 꺾어야 합니다. 만일 개봉동 제단이 발전하지 못한다면, 물론 그 책임의 대부분은 선장에게 돌아야겠지만, 여러분도 주님의 꾸지람을 모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그리고 이깁시다.

저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밤낮 주님에게,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만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주의 뜻을 헤아려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때입니다. 개봉동 제단이 문을 연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과 내가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하여, 다 함께 해 뜨는 영적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개봉동 지회 개회식에서)

## Chapter 20.

# 이긴자와 ‘이한 낮’



에덴성회가 시작된 후, 오늘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꾸준히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육적인 의의(意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이 나갔으므로, 오늘은 그 영적인 의의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기독교사상 하나의 명절로 지내게 된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약350년 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든 고국을 버리고 미국에 이주한 청교도들이 낯선 땅에서 원주민(原住民)의 반항과 사나운 짐승들의 습격, 그 밖의 여러 가지 난관을 이기고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된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에 전 세계 교도들이 이 날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좀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멀리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지시한바, “땅의 곡식이나 과실이나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聖物)로 바치라.” (레27:30)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린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1년에 한 차례 수확한 곡식이나 과일 등을 하나님께 드려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 일을 맡아 제주의 노릇을 한 것이 곧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물질을 여호와께 바쳐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여호와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 전체를 여호와께 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주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성령의 열매 —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良善)과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節制) — 를 맺어 여호와께서 마귀를 박멸하실 수 있는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천신지(新天新地)인 하늘나라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튼튼히 키워, 그 날에 어엿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도 이것을 역설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정기(精氣)가 깃든 말씀,(벰전1:23) 곧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땅으로 비유하여, 그 씨앗이 길가나 자갈밭이 아니라 옥토 위에 뿌려져서 좋

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거듭나기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마다 무슨 형식적인 연중행사(年中行事)처럼 이날을 맞이하여 감사 연보나 몇 푼 내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안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고작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것도 잘 지키지 않거나 마지못해 지키는 시늉이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딱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재주를 부리지 마십시오. 당장은 이로운 것 같지만, 실은 영적으로 손해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집 제1권에도 나와 있지만, 다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稔)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계14:14-15) 이 말씀은 영적인 내용을 육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금면류관’은 이긴자의 면류관을 말하며, ‘낫을 든 자’는 영적인 추수를 맡은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낫을 든 자가 천사의 지시에 따라 곡식을 거둬들인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성전을 주관하며, 이긴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알곡을 추수하는 때이며, 오늘날 이 땅에서는 그 작업

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은혜 가운데 젖어 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교계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큰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또 별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숫제 콧방귀를 뀌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시록에 보면, 이긴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이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계3:12)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아내, 곧 하늘의 군대를 가리킵니다.(계19:14) 그러니까 이긴자에게 하늘의 군대의 명단(14만 4천)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긴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영적인 추수기(秋收期)입니다. 모처럼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은 여러분의 걸을 ‘이한 낫’이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찌꺼서 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마7:21)고 미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상고함으로써 마귀에게 허(虛)를 찢리지 않도록 마음의 단속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 Chapter 21.

# 인간의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중대한 국면(局面)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많을 것이며, 또 안다고 하더라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자다가도 눈을 뜨면 먼저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지금쯤 모두들 잠들어 있겠지.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는 이 어린 심령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이로 보면 내 아버지나 아저씨, 또는 어머니나 아주머니뻘 되는 분들도 많고, 목회의 경험으로 말해도 아득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내가 감히 여러분을 ‘어린 심령’이라고 말한 것은 단상에서 젼체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



실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 미안하지만 이 손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언약 가운데 베풀어지는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그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왈가왈부할 것이 못 됩니다. 마치 도끼를 든 사람이 맘대로 이리 찌고 저리 찌는 것을 보고 도끼가 군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내가 남달리 주님께 매달렸거나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매달리기로 말하면 나보다 몇 곱절 눈물 뿌려 주님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수두룩할 것이며, 또 이 넓은 세상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전혀 없는 건달이거나 어리석은 바보라고 구태여 위악(僞惡)을 가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 나도 남 못지않게 주를 뜨겁게 사모한 것으로 자부하고 싶고, 나도 세상에 나가면 남만큼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만사를 제쳐놓고 청춘을 바쳐가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뛰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예수 믿을 타입입니까? 그야 타입으로 예수 믿는 것은 아니겠습니까마는. 나는 이제 사사로운 몸이 아닙니다. 좋든 싫든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 나부터 크게 경치실 테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단을 지키는 것을 ‘팔자소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은 주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쥐어진’(슥4:10) 격입니다. 이 은혜의 다림줄은 일찍이 수많은 선지자와 성도들이 꿈만 꾸고 구경하지 못한 채 눈을 감을 수밖에 없던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감히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심지어 앞선 하나님의 큰 종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끝난 성령의 앞선 역사는 거들떠보시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큰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달리 여러분이 예뻐서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이 클수록 그 사명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역사는 요컨대 주께서 하시는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이러니저러니 논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여러분 중에 만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하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덕을 세우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컨대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거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선물, 곧 구원의 길을 트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몸골은 참 초라했습니다. 즉 어제까지만 해도 목수 노릇을 해서 근근이 끼니를 이어가던 한 시골 청년이 불쑥 사람들 앞에 나타나, “날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 (요10:9 참조)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2천 년 전에 살아서 그 광경을 보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꽤 기가 찼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2천 년 역사가 주님을 인정해 주니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러러보지만, 당시의 주님은 문자 그대로 한 시골 목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을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주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병을 고친다고 사람들이 빈정대고, 제자들까지도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했으며, 인간의 생각으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무참히 돌아가시자 크게 실망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결코 영적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돌아가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주의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며, 따라서 주님에 대한 인간적인 자기 나름의 이미지

를 좋아했을 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고 또 존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 모세의 경우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그가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패와 죄악에 못 이겨 격동한 나머지 이방인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 그의 형제자매인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모세의 심경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 혼인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책벌을 받았습니다.(민12:8)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누구보다도 모세를 아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모세의 후대 여호수아를 따르는 제2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그 예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의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성은 가장 견고한 요새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락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일곱 제사장들을 앞세워 나팔을 불며 성 밖을 돌게 할 뿐, 무장한 장정들에게 쳐들어가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지시를 따른 것이지만,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대뜸 항의했을 것입니다. “아니 강적을 맞아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나팔만 불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기만 하니,

이런 비겁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선불리 하나님의 지시 내용을 발설할 수도 없는 것이, 그렇게 하면 금세 마귀의 귀에까지 누설되어 여리고성의 적들은 더욱 방비를 튼튼히 할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렵히 알아서 하랴 싶어, 말없이 순종함으로써 드디어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이런 것입니다.

사울이 인간의 생각으로 여호와와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양과 소를 남겼을 때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삼상15:11)**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삼상15:22)**고 충고하기에 이른 것도 사울이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특권을 좀처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법도에는 어긋나지 않더라도 자기를 따르는 어린 심령들에게 누를 끼치고 부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이 방면에 제일 신경을 쓴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교인들에게 폐가 될까 하여 식사 한 번 대접받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심경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언동이 바울의 귀에 까지 들어가자, 바울은 기가 막혀, “누가 자비량(自備糧)하고 병정(兵丁)을 다니겠느냐? … 우리가 너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고전9:7-11 참조)고 이들에게 반문하고, “이런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낳았다.”(고전4:15)고 자부한 고린도 교회 신도들에게, 다시 말해서 영의 젖으로 자식들을 기른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이처럼 섭섭하게 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의 바울은 주로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느라고 약간의 전도비가 들었는데, 이것을 일부 인사들이 비용이 많다 적다하며 물의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마케도냐 교회의 신도들은 어려운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성껏 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힘겹게 자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한 것을 치하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는 달리(고전9:5) 일생을 독신으로 마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큰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도, 심심찮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 남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전2:15)는 바울의 말은 이들을 겨냥한 설득이자 경고였습니다.

바울과는 정반대로 자기의 특권을 남용한 하나님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느라, 세상에 부덕을 끼쳐 하나님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즉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만 계실 리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무능한 하나님이라기보다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역사가 빛나가면 반드시 이를 바로잡으시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입증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되찾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유가 아닙니다. 모세 때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역사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역사의 그림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말에 잘 따라 주지 않고,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뒤에서 불평이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해 두지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소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의 역사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중차대한 역사가 아니라면 남의 욕을 먹으면서까지 내가 청춘을 바쳐 일할 필요가 어디 있으며, 또 여러분이 그 많은 교회를 두고 여기 따로 모여 예배를 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입니다. 남북통일도 그렇습니다. 통일은 하나님께서 남쪽을 날로 부강하게 하는 반면에 북쪽을 날로 쇠퇴 일로를 걷게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될 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내려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마10:39) 나는 주님의 이 뜻을 받들어 우리의 위대한 과업을 슬기롭게 완수하기 위해 목숨과 시간과 청춘을 다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뒤를 따르는 여러분도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명예로운 하늘의 일꾼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전에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려면 순교해야 하였으나, 지금은 순교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것이 내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는 어제를 돌아보지 않고, 언제나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심정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밀어줘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늘에서는 더욱 큰 은총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달라고 투정하기 전에 우리는 땅에서 할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은혜가 공로의 대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으른 자에게는 주의 은총이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유가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라만 오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기보다 큰 불찰입니다. 그 때문에 시험에 들어 떨어진다면 그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될 터이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맹종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일에 대해선 말없이 순종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도울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건설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순종이 있을 뿐이며, 일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순종할 일과 비판할 일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금년은 도약의 해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더욱 맑아지는 동시에 이 역사를 이웃에 전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많이 이 은총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우리의 율타리가 확

대되면 나는 하나님께 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고하려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떳떳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다 더 깨끗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별로 힘쓰지도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더 달라고 간구할 수 없을뿐더러, 간구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 Chapter 22.

#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즉 내가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육적으로만 판단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잘 산다고도 하고, 못 산다고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못 살아?”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말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어서 뭘 해!” 하는 푸념도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리 있는 말이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히 신앙에 있어서 사리(事理)를 올바르게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짙은 어둠 속을 헤쳐 왔으며, 또 헤쳐 나가고

있습니까? 무지와 오해, 고집 등은 모두가 이 어둠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둠을 하나하나 불 밝혀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은혜를 입으면 영, 육이 아울러 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은 아무에게나 금세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정성과 여건이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공경하고 그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귀한 것을 손에 넣으려면 여간 힘들지 않은데, 하늘의 선물을 받기가 그렇게 누워서 떡 먹기일 수 있겠습니까?

이 하늘의 은총은 둘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은총과 영적인 은총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긴 마귀를 잘 받들어 이런 혜택이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편에 선 자가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계13:17)고 했습니다. 마귀도 자기를 잘 섬기는 자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을 상고할 것도 없이, 용한 점쟁이가 잘 사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점집 문턱을 자주 드나드는 것도 다 그들 나름의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까닭 속에는 이런 물질적인 혜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혜택이란 고작해야 쥐꼬리만 한 물질적인 것에 그치며, 그 나중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를 섬겨도 잘 사는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찢어지게 못산대서야 되겠습니까? 그는 육적으로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어디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지 않았는가, 온전한 십일조를 했는가, 주의 종을 섬섬하게 하지 않았는가 — 곰곰이 돌이켜보고 그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곧 시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육적인 혜택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것이며, 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 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자체는 주의 2차적인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은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생명의 은총입니다. 즉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피의 은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은총에 비하면 다른 육적인 모든 은총은 극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요6:63)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죽은 다음에야 어찌 되든 우선 살아서 좀 편히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육적인 은총만 바라고 또 그것으로 족하게 여긴다면 그는 믿음의 제일 얇은 단계에서 서성이는 사람이라고 하

겠습니다.

기독교는 ‘육’의 종교가 아니라, ‘영’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하나님의 은총이라 하더라도 육적인 것은 별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본의 아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양자를 분간해서 처신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그 제자들의 사이를 상기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적 등은 제자들에게도 납득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면 한 자리 하려고 잔뜩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제지간(師弟之間)에 오가는 대화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하시는 그 나라의 이야기를 이 세상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마19:21)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구구할 수 있지만, 주께서 육적으로만 잘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잘 살기는커녕, 오히려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역설도 나올 법합니다. 하긴 하나님의 뜻은 하도 깊어서, 은총만 해도 어디까지가 그 크신 손길을 베푸시는 것인지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가난

도 하나의 은총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예컨대 가난이 동기가 되어 주님을 찾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이 풍성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는 멀리하기 쉬운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부자까지도 도매금으로 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본위로 살며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부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잘 섬기느냐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 드리는 연보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컨대 얼마나 정성껏 드리느냐가 문제입니다. 깨끗지 못한 것은 주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한 것이 섞여 있으면 주의 역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보았다거나 화끈한 불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등의 감각적인 것을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 밖에 더욱 소중한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혀서 뿔기세텍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생명의 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고 못 가

는 것은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변화(중생)입니다. 이것은 물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보기로 안찰을 들 수 있습니다. 안찰이란 성령의 조화로, 이를테면 일종의 영적인 세탁을 가리킵니다. 혼자서 몇 해를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서 애써 매달려도 물리칠 수 없던 악의 세력도 이긴자의 손이 한 번 닿으면 말끔히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긴자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소중한 속사람이 언제나 그대로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더 고약해졌다면 이런 맹랑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인류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절망을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서고, 또 남들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경꾼의 태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설마 아직도 이것이 참으로 내가 가야 할 진리의 길이나, 아니냐 하고 망설이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 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남의 꿈무니만 좇으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우선 주께서 섬섬히 생각하실 터이



니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직도 여러분 중에 의심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고 깨달을 만큼 가르쳐 주셨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실로 여러분이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1:1)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는 데야 난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은 예수 믿지 말아야겠지요.

## Chapter 23.

# 이긴자와 영적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聖山)이라 일컫게 되리라.” (슌8:1-2)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곧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적어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도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가까이 계시때 부르라.” (사55:6)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

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못 만나는데 따라, 그 신앙도 큰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내리는 은혜도 은혜지만, 듣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분노와 질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내로라하더라도 한낱 초개(草芥)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귀히 여겨 기억할 경우에는 그들의 행동거지(行動舉止)가 이처럼 여호와의 큰 관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의 백성들의 움직임에 따라 땅에서 이루시려는 여호와의 경륜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경륜이 촉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항상 마음대로 척척 되지는 않습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으므로 더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크신 경륜을 이루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내리시는 것으로, 만일 땅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를 거역하면 그만큼 하늘에서 하시는 일에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여호와께서는 채찍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니 ‘분노의 하나님’이니 하는 말은 여호와의 이러한 일면을 단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신(우상)을 섬겨 범죄에 빠졌을 때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 적당한 책벌을 내리십니다. 즉 때로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시고, (출33:3) 때로는 적의 손에 붙이기도 하시고, (삼상28:19, 삿6:1, 3:12) 그래도 저들이 번번이 범죄에 빠지면 숫제 촛대를 옮기기도 하시며, (마21:43, 삼상4:22) 이것저것 귀찮으면 아주 하늘 문을 닫아 버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 하 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슌1:12) 이것은 천사가 여호와와 책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은히 여겨 여호와에게 아뢰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손해 막심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들은 여전히 법도와 율례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묵묵부답, 당신의 백성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경우에 땅에서 할 일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리고 다시 그 긍휼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열심히 매달려 충성을 다함으로써 우선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 보낸 사자(천사)들의 눈에 들어, 여호와께 이와 같은 땅의 움직임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번거롭게 땅의 일을 일일이 살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였다가 외면했을 때처럼 비참

한 광경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날 눈으로 보고 있으므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다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깊은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에덴성회가 왜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에덴성회는 여호와께서 일일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종 이긴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단상에서 떠드는 말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때그때 주께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이상(異像)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민12:6)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거의 다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갈1:12)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주께서 필요하시면 당신의 종을 내세워 역사하십니다. 사도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간이 있어온 많은 성령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다만 이 역사에 크고 작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큰 종이 나타나면 크게 역사하시고, 작은 종이 나타나면 작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군대,(계19:14) 곧 빛나는 세마포를 입을 주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수가 순교자를 합쳐서 14만 4천

이므로, 여간해서 이 반열(멜기세덱의 반열)에 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종이 역사할 때에는 한꺼번에 많은 수를 다듬어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의 보혈의 권능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소중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울타리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주를 공경하노라 한들, 주께서 현 시점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중에 주님을 멀리하기가 일쑤입니다. 이 울타리는 곧 이긴자가 나타남으로써 형성되는 영적 이스라엘의 새 열두 지파이며, 또한 참된 진리의 성읍입니다. (계7:5, 속8:3)

## 하나님

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고, 유대교는 새 언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로 발전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이루셨다. 그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역사할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감람나무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 하나님께 책을 받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며,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면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기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